

구술자서전

남구 사람들의 삶과 일

| 학산문화총서 기획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학산문화총서 시리즈

학산문화총서는 남구지역 역사 · 문화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한 地域史 복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남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일반인들도 쉽게 읽게끔 접근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양서 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술 자서전

남구 사람들의 삶과 일

| 학산문화총서 기획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 발간사 |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잎이 떨어져 흙이 되기를 몇 백 번, 몇 천 번,
그 오랜 세월, 사람들은 오솔길로, 들길로, 골목길로,
큰 신작로로, 아스팔트길로 모습을 바꾸어가며
걸어오고, 걸어갔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기쁜 일, 힘든 시절, 즐거웠던 추억, 슬픈 사연들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지역의 역사이며, 우리의 문화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은 물론,
먼 훗날 이 땅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 작업이길 바랍니다.

또 한편, 한 개인 또는 그 사회에 있어
옛 사람의 행적이 우리의 지표가 되듯,

오늘 우리의 행적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책을 발간하며 조심스럽게 이정표를 세웁니다.
"누구든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2006년 12월

남구학산문화원장 구 동 운

| 축사 |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즈음에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학산문화총서 『남구 사람들의 삶과 일』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서 "구술 자서전" 발간에 직접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주민분들, 그리고 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학산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산문화총서 『남구 사람들의 삶과 일』 발간으로 그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남구 향토사 연구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학산문화총서가 시민토론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남구학산문화원 학산문화총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이 영 수

| 머리말 |

이번 학산문화총서는 남구 주민들의 구술 자서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구술 증언에 응해 주신 분들은 남구에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남구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선진 옹은 문학동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문학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왔으며, 김필운 옹은 황해도 온진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이후 연평도로 이주한 이래 어업에 종사해왔는데, 지금은 신기촌에 살고 있습니다. 홍종식 옹은 평생을 인천소년형무소에 근무하면서 소년수들의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조경희 할머니는 화수동에서 태어나 용현고개에서만 48년을 내리 살아온 토박이로 가난을 딛고 7남매를 길러낸, 우리나라 어머니의 표상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인 데가 있습니다. 파란 많은 한국의 근대사를 온몸으로 감당해왔으며, 가족들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꿋꿋하게 삶을 영위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남구의 생생한 역사도 되새겨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주민 구성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온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이 들려주는 삶의 역정이야말로 어떤 역사 서술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남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술증언으로 남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향토연구의 한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12월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김 창 수

contents

발간사 ..... 구동운 003

축 사 ..... 이영수 005

머리말 ..... 김창수 006

활쏘는 문학동 토박이, 이선진 할아버지의 삶 ..... 김창수 010

한평생 배를 하다가, 인천근해 뱃노래를 부르는 김필운 옹 ..... 이세기 038

인천소년교도소 소년수들의 아버지 홍종식 옹 ..... 이희환 098

용현동서 48년, 온갖 행상으로 일곱 자식 키워낸 조경희씨 ..... 홍명진 162



거실에서 활시위를 당겨 보이는 이선진 할아버지

활쏘는 문학동 토박이, 이선진 할아버지의 삶

■ ■ ■

구술자 이선진 · **채록자** 김창수*

구술자 이선진 할아버지는 올해 아흔세 살이며, 1915년 부천군 문학면(현재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서 태어난 뒤 한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문학동 토박이다. 채록자가 문학동 주민들에게 문학동에서 제일 오랫동안 거주한 분을 수소문하자 이구동성으로 이씨를 추천했다. 이씨는 십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현재는 생가 터에 지은 산호파크 연립주택에 홀로 살고 있다. 5년 정도 북성동에 있었던 조일양조장에서 노동자로 일한 시기를 제외하면 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분이다. 부천공립보통학교(문학초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했으며, 스물두 살 때 남촌 출신의 부인과 중매 결혼하여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다. 자녀들은 모두 인천에 살고 있으며, 큰아들은 문학동에 살고 있다. 아흔세 살의 고령이지만 하루에 너댓 시간은 활을 쏠 정도로 건강하다. 기억력은 아직도 좋은 편이어서 3.1 만세운동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정도이지만, 말수가

---

*문학평론가. 문학박사. 현재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으로 인천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논저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집 이미지 연구」(2000), 『인천공부』(2005) 등이 있다.

극히 적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구술은 정리자의 질문에 한마디씩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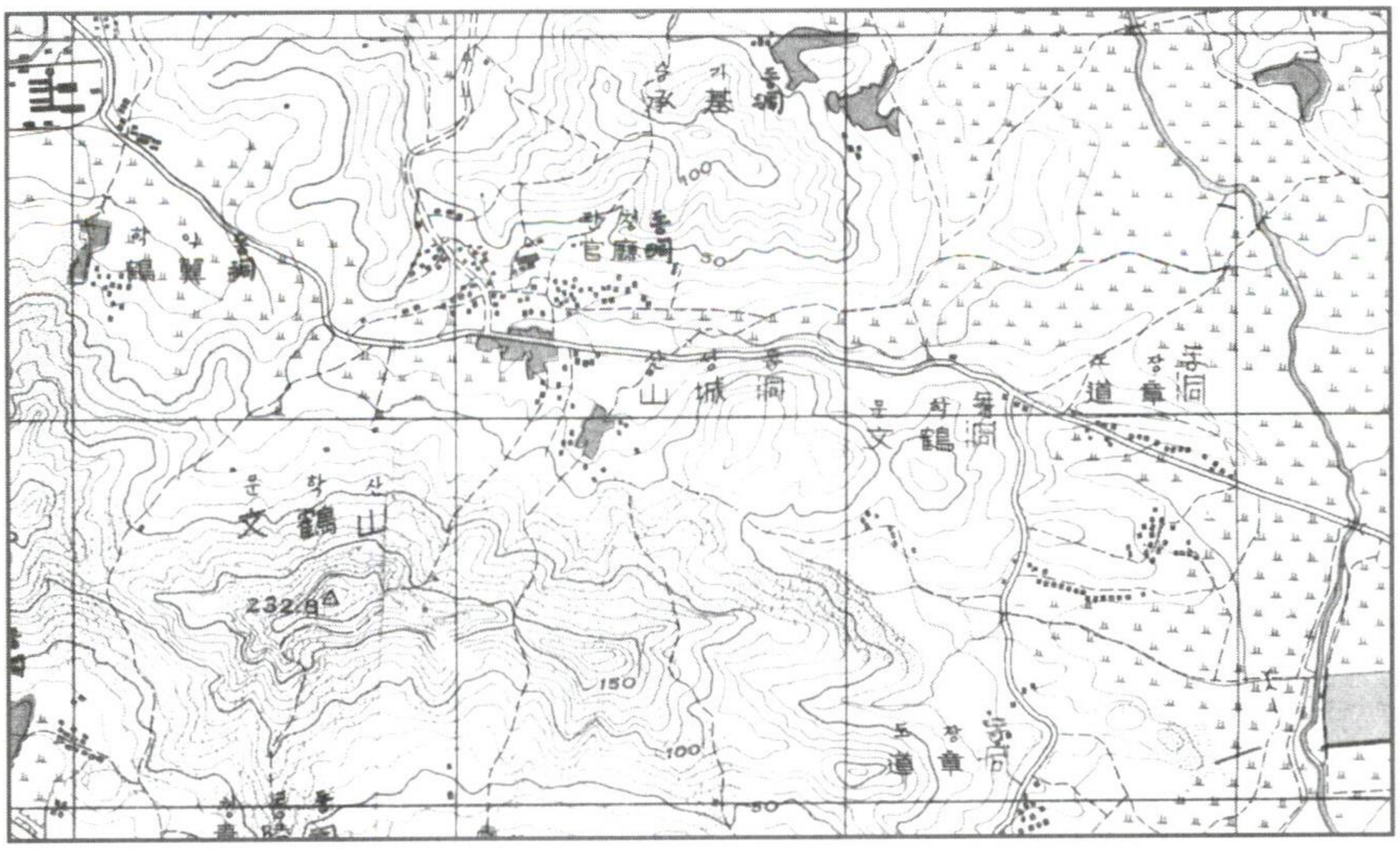
이씨는 한국전쟁 당시 충남 부여까지 5-6명의 동료들과 걸어서 피난을 갔지만 인민군이 이미 점령해서 며칠 있다가 다신 인천으로 되돌아와 연수동 쪽에 숨어 지내다가, 인천상륙작전 직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선진 할아버지는 최초의 민선동장으로 선출된 이래 17년간 문학동장일을 하기도 해서 문학동에 애착이 남다르다. 특히 문학동에 있었던 활터인 문학정(文鶴亭)이 문학종합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문학동에 활터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술내용에는 농촌이었던 문학동의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조일양조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회상도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어린 시절의 문학동, 문학경기장이 된 '공찰데'

우리 선대부터 여기 살았어요. 내가 부평 이씨 29대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사신 건 내가 알아. 자식들도 이 근처에 살아. 문학경기장 맞은편에 공동묘지가 있었지. 관교동에도 공동묘지가 있었고. 향교 앞으로 난 길이 동쪽으로 가면 승기말이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용현동 쪽이지. 그쪽엔 중국 사람들 농장이 많았어. 내가 산 곳이 학산마을,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학산마을이야. 한 40호 정도 살았지. 그 아래가 성산마을, 건넌말이라고 그랬지. 거기도 한 4-50호 정도. 지금 문학초등학교 있는 곳은 관청마을이라 그랬는데, 거기도 한

40여호 되구. 관청마을 밑에 승학산 쪽에 향교을이 따로 있었지. 지금 운동장(문학경기장) 앞쪽으론 마을은 없었고 공동묘지였어요. 행길로 쭉 나가면 큰도장, 작은도장, 셋도장이지. 행길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선학동이 나오구, 왼쪽으로 가면 승기말이 있었지.

지금 운동장 옆으로 빠지는 길 근처를 무주물이라고 불렀어. 운동장 여기서 나가면 운동장 빠지는 문이 하나 있어. 거기서 쪼끔 아래 내려가면 무주물인데, 그런데 지금 문학경기장 있는 데를 옛날부터 '공찰데' 라고 불렀어. 산비탈 말이야. 어릴 때 어디 갔다 왔냐 하면 공찰데 갔다 왔다 그랬어. 그렇게 전해들었단 말이야. 근데 정말 공차는 데가 되었단 말이야. 그거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말이야. 여기가 공찰데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냔 말이야.



1950년대 문학산 일대

옛날 길이 있죠. 이쯤에 (지도를 가리키며) 국일 아파트 앞길이 그 옛날 길이야. 옛날 길은 차 한 대 겨우 댕길 정도였지. 마차, 구루마 있잖아요? 그거 댕길만한 자갈길이었지. 예전엔 돌을 깨뜨려 자갈 깔았어요. 그거 집집마다 몇 상자 몇 마차 할당을 해가지구. 거 깔아 놓으면 뭐해. 얼마 안 가서 또 없어지고, 또 깔고 그랬어. 근데 그거 왜 깔았는지 몰라. 사람 댕기기는 힘들구. 또 차 댕기는 데 좋다 해도 그때 차가 얼마나 있었나? 마차나 있었지. 아, 여간 괴로워야지. 석유 궤짝 나무루 맨든 거, 이만한 거 거기다 자갈 담아 나르느라고 고생 많았지. 그때는 다 걸어 댕겼어. 순전히 걸어 댕겼지. 인천에 일 다닐 땐 한 시간 반 걸렸을 거야. 20리 정도 되니까. 저어기 월미도까지 걸어가면 20리두 넘었지 뭐. 나중에 자전거를 샀는데, 타고도 뭐 한 30분 40분 50분 걸렸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지. 고개 넘어가면 바로 학익동이지. 문학동하고 경계가 학익동 고개거든. 그전엔 언덕이 있었어요. 지금은 평평하게 길 맹글어졌지만 자전거 타면 못 올라가. 그렇게 해가지구 용현동으루 해서 숭의동으루 해서 공설 운동장, 지금 운동장 있지 않아요? 도원고개. 거기 그래 소방서 있었고 거 도원동에 산이 있었어요. 뚱그런 산 있었어요. 거기에 활터도 있었구. 논은 저기 문학동에 쪼끔 있었어요. 관교동 쪽에는 전혀 없었고 선학동 쪽에 가면 논이 많았죠. 우리 논은 이 삼거리에 있었지. (지도를 가리키며) 요기 쯤 되겠네. 지금 농산물 시장 앞쪽에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쯤 가야돼. 거기 남천으로 건너가는 다리. 그게 저 승기천이구. 승기천 다리 건너기 전에, 승기천 옆에 붙어 있는 둑이 우리 논둑이었지.

학산마을이야. 그냥 학산마을. 조금 내려가면 건넛마을, 산성마을, 관청마을, 문학산 밑이 돼서 산성마을. 문학산이 여기야? 여기 우리 집이 여기쯤이니

까 이 아래쯤 내려와야돼. 이게 길이래문? 그럼 여기쯤 될 텐데. 산성마을은 여기쯤 될 텐데. 네 마을이 있어서, 합치면 150에서 200여 호, 넓은 데는 아닌데. 아주 예전에 3000호나 있었대요. 여기에, 이 산에 다 사람 살았었나봐요. 지금도 기왓장 나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데 파고 그러믄 사발 깨진 거 많이 나와요. 그전엔 고인돌도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 고인돌 거 왜 없애는지 몰라아. 우리 어려서 거기서 놀고 그랬는데. (고인돌을 박물관에 옮겨놨어요) 아, 그걸 그리 옮겼구나. 그 자리에 놔나야지. 청학동으로 가는 그 터널 위에 학산서원터가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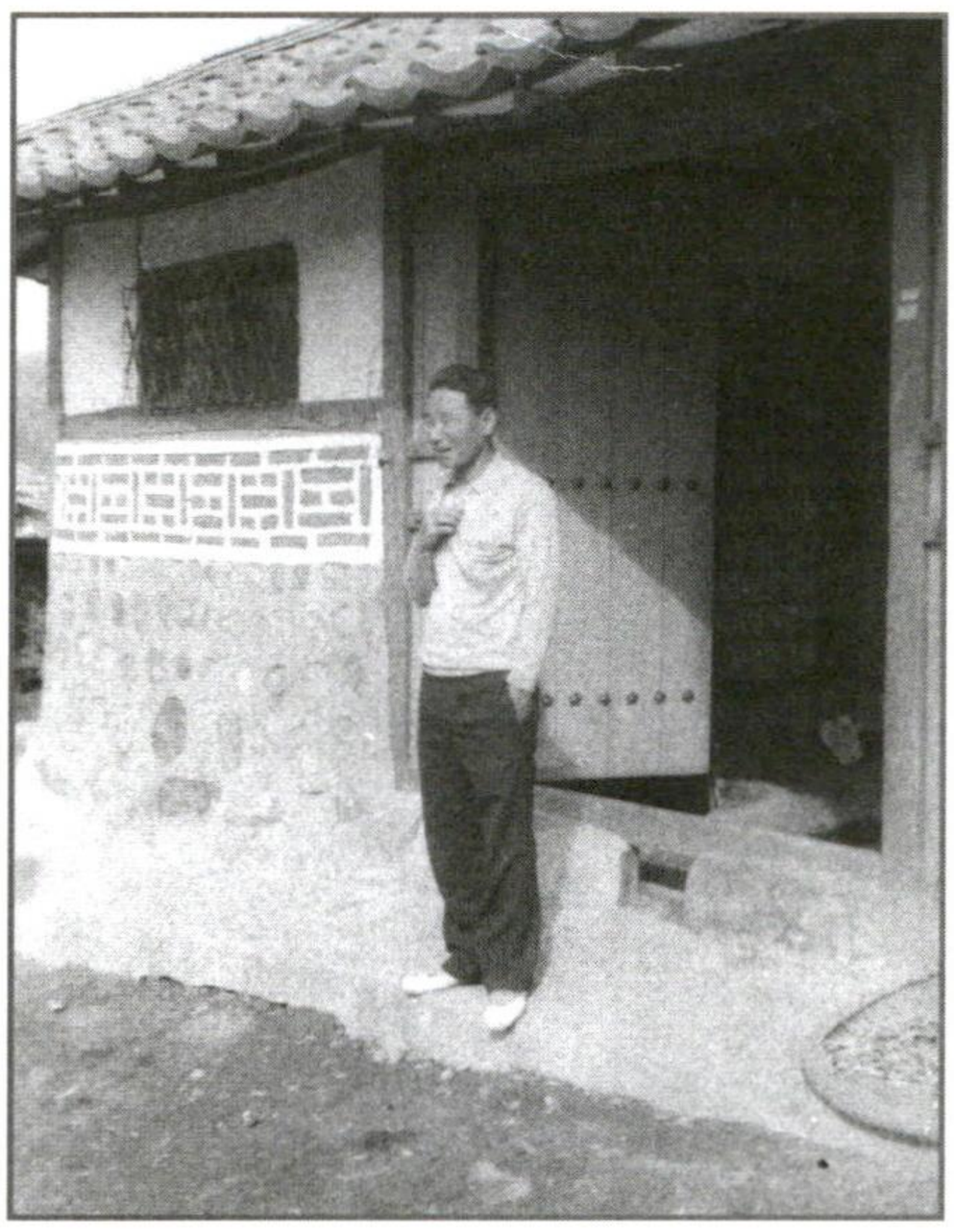
나 출생하기는 빌라 바로 밑에 있는 길이야. 학산마을에는 우리 이씨들이 주로 살았지. 학산마을엔 우리 이씨들이 아주 예전엔 반 이상 살았드랬어요. 타성은 최씨가 좀 있었고 김씨도 좀 있었구. 어릴 때는 주로 논농사, 벼농사 지으며 살았지. 밭에는 보리, 그땐 주로 보리, 콩을 심구. 과수는 이전에 여기 김갑식이라는 사람이 요 밑에 복숭아를 했지. 그때까진 포도밭은 없었어. 산 위에 밤나무가 좀 있었구. 감나무는 웬만하면 집집마다 다 있었구.

삼호지고개라고 술을 한 잔만 먹으랬는데, 석 잔을 먹었다는 거야. 안관당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딘지 몰라. 문학산성에 봉화대가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물이 약간 있었어. 그 우물이 바다하고 통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든.

문학동의 두레패와 놀이 문화

그 뭐 명절 때나 추석 때, 그 농사지을 때. 그리고 당고사 드리는 때, 그때 농악대가 돌아다녔지. 당고사는 가을에 추수해가지구 했을 거예요. (문학경기장 옆을 가리키며) 당 터가 여기여. 그 산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마을 사람 다 모여서 뭐 음식 맹글어가지구 먹구 그랬죠. 농악대는 주루 꽹과리 둘, 징 하나, 저금, 장구, 북, 여섯인가? 여섯 호적, 날라리 기리구 소고 대여섯 명 뭐 그 정도였지. 우리 아버지가 상쇄를 했어. 상쇄는 그 지휘자야, 상쇄가 치는대루 다 그대루 치거든요? 가락이 넘어가는대루 가락이 열두 가락이예요 열둘. 그 가락 그거 치다가 넘어 가구 딴 걸루 넘어 가구. 예전엔 뭐 그런 걸 공부하구 그런 게 아니라 천재루 타고 난 거 같애. 그땐 어디서 공부를 해요. 치는 걸 공부를 안했죠. 그냥 어른들 하는 거 보구 배웠지. 치는 재주는 타고 나는 거 같애. 어디 가서 지금은 학원에 댕기면서 배우잖아? 그런 거 우리는 몰랐어.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어른들도 예전 어른들에게 배웠겠지. 그래서 쫓아 댕기며 허구. 그래서 배운 게지.

(어르신은 못 치세요?) 아주 약간



생가 앞에서

치죠. 쳐요 약간 쳐요. 뭐 잘은 못하지만, 아 뭐 나 이제 젊어서는 그 집집마다 겨울이면 댕기면서 고사도 지내주구 쌀두 받구 뭐 술도 얻어 먹구. 그전에 실패 이래 감는 패가 있어요. 거 실패주고 그랬어요. 거기다 꽂아서 고사 지내구. 동네 필요한 물건 같은 것두 사구 그랬죠. (언제부터 치셨어요?) 나 어려서부터 (농악) 치는 거 봤으니깐 뭐 열댓 살 적에 봤으니까. 철 나가지구 농악패로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각 동에서 모여서 대항하구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정월대보름날이면 집집마다 댕기면서 고사 지내주구 놀구 술 먹구 놀이가 그런 거 밖에 없지. 그 전엔 철들기 전에는 제기차기, 딱지치기, 자치기 뭐 비석치기 그런 거하며 놀았지. 참, 돌 가지고 땡치기라구 있었어요. 1원짜린가 동전이 있었어요. 예전에두 나 어려서두 있었어요. 고거 돌에다가 탁치면 땡하구 멀리 나가. 그걸 어디가면 야치기라고두 해요. 돌 이렇게 등에 붙은 거 이렇게 쳐가지구 돌치기라고도 하구. 또 저 나무로다 목찌를 만들어다가 십 메타정도, 십 메타? 거기다 돈 던져서 맞춰서 따먹고 그랬지. 그전에 돌치기라고 저 나무로다 만든 걸 목찌라고 했어요. 목찌 요만하게 목찌 크기로 만드는 거야. 납작하게 나무로 맹근 거. 거기다 돈을 이렇게 다섯 개로 만들어.

그리군 한 오메타? 십메타? 고 정도께에 고기다 놓고 반대 걸 맞추면 더 주구 옆에 꺼 맞추면 뛰어가고 그랬어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유년기와 청년기

범띤데. 범띠는 실제로는 2년 앞서야 돼요. 그 전에 애들이 많이 죽었었거든

요. 그래서 2년 후에 출생신고를 했어요. (원래 1913년에 태어나신 거네요?) 응, 삼일운동 때 일고 여덜 됐으니까? (웃음) 어린애들 나면 죽거든요. 후다닥 죽어요. 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출생신고 뭐러 해요. 그니까 1-2년 있다가 출생신고 하고 좀 커가지고 학교 가고 몇 년 후에 하고 그랬어요. 형제가 5남맨데,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셋 있었지. 초등학교 들어간 건 열 살은 됐을 게야. 아마 열 살. 공부한 거하고 논 거하곤 기억 안 나. 그때 배운 건, 하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열 여섯에 졸업했지. 학교 댕길 때 소풍 간 건 생각나. 능허대, 그때 주로 가는 데가 거기였어. 능허대 그치 않으면 문학산으로, 연수동으로 간 거 같기두 하고. 지금 원인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전엔 그거 있는 거도 몰랐어. 거긴 염전이었지. 나도 거기 일(염전일)도 댕겨봤어요. 갯벌에 가서 일두 해봤어요. 애들 적이죠. 그때 한 열일곱 살? 그런 정도지. 가서 뭐 소금 미구 댕기구 아니면 염전에 흙 다듬고 그런 거 했어요. 삯은 얼마 받은 지도 몰라요. 몇 원이겠지. 간조날이라고 있어요. 한달에 두 번인가 한 번, 열흘에 한 번인가……. 뭐 보름에 한 번인가 간조날이 있어요. 아, 그 간조날. 돈 탈라고 하는데 여기서 셋이. 여기서 다니던 친구가 셋이었는데. 거 일 댕기다가 간조날 돈 타러 갔는데 밤에, 저녁 끝나구 줬거든 그때?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시간이 뭐 그냥 열한시나 열두시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셋이서 그때 공찰데라고 부르던 곳, 공찰데, 그리 이렇게 넘어오는 지름길이 있어요. 고개 넘어 산을 쓰윽 넘어오는데, 그 아래로 개천 있거든? 개천 있는 데서 불이 반짝반짝 이래 오고 있잖아. 그래서 뭐 어른들이 물을 푸나. 아니면 무신 일이 있나부다 하구 그냥 그리구 셋이 옛말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는데, 그냥 그 불이 쭈우욱 그냥 우리를 앞으로 쭉 와. 그게 도깨비불이야 도깨비불. (웃음) 아이

고 무서우니까 그냥 셋이 냅다 뛰는데 아이고! 거 봤어요, 도깨비불. 무섭죠. 애들이었니까, 거 무섭잖아요?

담밸 좀 일찍 배웠지. 열일곱 살인가? 뭐 열댓 살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전엔 담배도 정말 사기 힘들었어요. 봉지담배라고 담뱃대에 이렇게 담뱃대. 거기다 이렇게 놓고 기름 봉지 썰은 담배 있어요. 그걸 신문지에다가 그 담배를 몰래 훔쳐다 (웃음) 어른들 몰래 훔쳐다 신문지로 말아서 피구 그랬어요. 그때 궐련은 잘 안 폈지. 그래가지구 나이 좀 들고 그랬을 때는 궐련 사서 폈지. 비죤이라구 비죤, 아사히, 마꼬가 유명했지.

궐련은 따루 있는 담배 가게에서 팔았지. 허가 내가지구 담배 가게 허가를. 나 어려서는 말등에다 짐을 지게 해가지구 끌구 댕기면서 담배 가게에 배달해 주구 그랬어요. 가게에는 눈깔사탕 그런 거. 그전엔 눈깔사탕이라고 뭐 이마만한 거 (엄지와 검지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 보이며) 입에다 넣으면 이렇게 볼이 불룩불룩 나오구 그랬어요. 지금두 그런 큰 거 있대요. 그전엔 그런 거 하나 사먹을래문(사먹으려면) 힘들었었지. 호떡, 거 호떡이라구 있어요. 지금두 호떡이라고 허는데 옛날 호떡하구 달라요. 지끔 또. 그전엔 손으루 반죽해가지구 이렇게 만져가지구 거기다 설탕가루 넣고서는 해서 해가지구 이 뚱그렇게 해가지구, 연탄불 위에다 구워내구 그랬어요. 아! 그거 아주 최고였었죠. 아주, 그래두 요즘 길거리에서 하는 거 먹어보니 맛은 있대요. 그전엔 그렇게 안하고 그냥 뚱~그렇게 싸가지구 거기다 넣어서 꺼내고 꼭 집어넣어서 꺼내구. 지금 음식하구는 달라요.

결혼과 양조장 일

결혼이 요새와 달라. 사모관대하고 했지. 난 스물두 살, 색시는 열일고 여덜. 그게 아주 적기야. 매파가 오고가고. 그래두 한 번인가, 저 멀리래두 한번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볼래 가봤지. 가봤어요. 멀리서 말도 못하고. 그냥 뭐 먼데서 몇 번 가서 봤어요.

그때 나 장가들 때는 택시 정말 드물었어요. 그래두 택시 타구 가서 장가 들러 가서 장가들구. 택시 태워 가지고 오구. 색시집에서 결혼식 했거든.

먼 데는 삼일도 자구 오구 그랬지. 여서는 그렇게 안했어요. 댕일(당일)가서 식허구 올리구 집에 데리구 와서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허구. 신혼여행은 없었어. 결혼해도 동생들과 다 한 집에서 살다가 시가 내보내고 그랬죠. 애들 삼남매 길르구. 딸 하나, 아들 둘, 다 이 근처에 살지. 딸은 송도 살구 둘째아들은 연수동 여기 살구 큰애는 여서 가끔 나하구 같이 지내지.

결혼하고 나서 돈 벌러 양조장에 다녔어. 그 전엔 그 돈벌이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댕기기도(들어가기도) 힘들었어. 조일양조장에 아는 사람이 멀리 친척 되는 사람이 있어서 청해서 나 좀 여기 좀 댕기게 해달라구 부탁을 했드니, 나하고 팔춘 되는 사람하고 둘이 댕겼어요. 같이 댕기니까 댕기기두 좋구. 지끔은 더 좋아요. 예전엔 추웠어, 아주 추웠어요. 자전거 타고 아침에 가면요, 손발이 얼어서 그냥 가다가 손으로 녹이고. 그래두 그걸 댕겼으니 몇 년을. 회사는 아침에 일찍 가죠. 몇 신지는 모르갔는데 뭐 하여튼 아침 일찍 갔어요. 하튼 여덟시나 아홉시 늦어야 아홉시. 가서는 그 정종 맨드는 데서 일했어요. 정종.

정종은 먼저 쌀을 깎아요. 쌀 그냥 그 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깎고 깎고 그냥 제일 속에 꺼만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일등 술이야. 그 담엔 쌀을 쪄요. 쪄 가지고 누룩두 쌀루 누룩 맹글구 약 넣어 가지구 쌀로 만들어요. 밥을 식혀가지구 버무려가지구. 정종 통이 (거실 전체의 부피를 가늠해 보이며) 이거 만해. 이거 만해. 아우 들어가서 그냥 거기다 술 다 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구 새기는(삭히는) 거지. 어우 그거 저 퍼내고 들어가서 닦는데 거기 들어가면 코가 아주 콱콱 찔러요. 한참 그냥 거기서(회사에서) 자기두 했었어. 자고 거기 기숙사에서 밥 먹고. 회사 안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구. 회사 규모는 병 담고 술 담고 사무실 사람이 한 거반 십여 명 되고, 술 맹길 때는 일본서 사람들 데려와요. 일본 기술자를. 그니까 그걸 맹글어 놓고 색혀가지고 거르는데, 배 모냥으로 해가지구 자루에 담아가지구 이렇게 틀어서 눌러가지구 짜서 틀에 짜거든요. 그래가지구 그걸 이저 물에다 돌아가게 물 솥에다 끓여가지구 수증기로 빙빙 돌아가는 파이프 있죠? 그 수증기로 돌아가면서 뒤에 뜨겁게 끓여 그렇게 끓여요. (중탕하는군요?) 예. 큰 솥에, 가마솥. 아주 큰 솥이야. 그 물 끓여 그 안에다 그걸 넣고 술이 돌려 나와. 끓여서 저장하는 데도 있지. 그 통에 끓이는 거야 끓이는 거야. 식혀가지구. 아 저 단꼬(탱크) 있어요. 거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구 식혀 가지구 한 일이 년 묵히나봐. 좋은 술은 그렇게 걸려요. 삭히는 것도 오래가요. 그것도 한 달은 가나? 한 달. 아마 한 달은 갈 거야. 막 걸리는 금방 가죠. 정종은 그것하고는 달라요. 자루에 담아가지구 배 모양으로 이러케 짜는 게 있어. 거기다 자루에 담아가지구 차곡차곡 잘 집어너가지구 우에다 이렇게 뚜껑을 해서는 집어넣고 돌려요. 눌러 짜. 하여튼 술도 오래 될수록 좋은가봐요. 아주 그 일등 술은 마시고 나면 입쌀이 붙어요. 손에 닿으

면 끈끈하구. 나는 술 맨드는 데서 거기서 자고 일하고 그랬지. 술 맨드는 기술자 밑에서 일허는 사람, 병에 담는 데서 일허는 사람이 다 달라. 그 병에다 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숙사 매일 와서 왔다 갔다 하구. 술 맹기는 데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구. 밥 먹구 그랬어. 일허구. 아주 술 그전에 그 저 밀짚 있죠? 밀짚 엮어 가지구 씌웠어요. 한 데 들이 병, 거 한 되 들이 담아가지구 팔구 그랬거든요? 거 맹길어서 여기서 동네 사람들 내가 돈벌이하라구 그러케 해서 맡겨가지구 마차에 싣고 오거든. 동네 사람이 마차에 실코 오면은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몰래 이만한 바가지루 하나씩 떠주면 그냥 먹구 먹으면 빨리 나가라구 빨리 내보내야지. 거기 있으면 금방 주정하구 그래요. (웃음) 술 취해가지구 마차에 타고 소가 그냥 끌구 오는 그럼 사람들도 있어요. 술이 취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가 가는 데루 가라구 그래 집을 찾아와요. 정종은 그때 한 병에 4-50원 했으니까. 그때 습관으로 제사 지낼 때 정종도 쓰죠. 그 뭐, 막걸리들 많이 제사 지낼 때 썼는데. 정종도 많이 썼죠. 나중엔 정종도 많이 나와가지구 그리구 약주 집에서 만드는 약주 있잖어 막걸리 말구. 저 약주는 독에다 해노며는 이런 저 그 뭐라 그래. 거 소쿠리 마냥 그 긴 거 있어. 거기다 집어느믄 말갛게 그 쌀 지게미는 안 들어오구 말갛게 술만 대거든? 고것만 떠오면 딴 독에다 퍼느쿠 그 약주라 그러죠. 거 맛이 아주 좋아요. 약주는 우리 순 한국술이구, 정종은 일본놈술이지. 그 양조장에 한 5년 댕겼지.

일본인 사장이 편의를 봐 줘서 나중엔 거서 다 먹고 자고 다니게 됐지. 그전에 집에서 다녔을 때는 병술 담는 데서 일했지. 그르다가 나중엔 술 맹기는 데루 들어갔지.

가끔 월미도 같은 데서 인제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 가는데 같이 가서 일 좀

해다오 하면 같이 가기두 했지. 옛날엔 월미도에 사람들 많이 놀러 왔지. 조탕도 있었고, 바다로 쭉 나간 곳에 용궁각도 있었지. 단체로 놀러온 사람들이 술을 많이 주문하면 양조장에서 배달을 나갔어. 그땐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로 다 배달했지. 난 양조장 다니면서도 술은 한잔도 안 먹었어.

참 그때, 냉면도 자전거로 배달했는데, 그 배달하는 거 나무 목판에 냉면을 수십 개 얹어가지고 자전거로 배달하고 그랬지. 하여튼 그 배달하는 거 기가 맥혀요. 거기다 한손으로 자전거 타는 거 보면 대단해요.

술 주문이 들어오문 주로 차루다 배달해서 하구. 그런 건 확실한 건 모르지난. 사무실에 전화해서 주문을 해요. 그럼 포장해서 각지루 다 보내구. 다른 양조장도 있었지. 후까미라구 있었어요. 정종 맨드는 후까미 양조장. 소주는 조일양조장이지. 조일양조장에서 소주 맹기는 공장, 정종 맹기는 공장. 지금 인천여고 자리, 거기가 후까미라는 사람이 하는 후까미 양조장이 있었지. 조일양조장은 북성동에 있었고. 조일양조장이 숭의동에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소주를 주로 만들고 북성동에 있는 조일양조장은 정종을 주로 만들었어요.

해방과 한국전쟁기의 문학동

문학면에는 출장소도 있고 주재소도 있었지. 주재소에는 순사가 셋 있었지 아마. 부장 하나하고 순경 둘. 주재소의 순사들이 일이 힘드니까 조선인들로 경방단(警防團)[1]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순찰도 돌고 그랬지. 경방

1)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제가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편성한 전시조직

단은 일본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경방단, 소방대니 뭐니 부서가 있어가지구. 소방대, 경방단이 그때 한참 전쟁 중이구 비행기 날라 댕기구 공습경보 이런 거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경방단 불러서 그 저 소집시켜가지구서리 뭐 그런 거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김에 일본이 항복하는 거 들었거든요? 8월 15일. 일본이 아예 항복하는 거 들었어요. 경방단 사무실이 있었거든.

일본놈들이 나가고 나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죠. 동네에 본래 빨갱이들이 있었죠 뭐. 서로 주구 받구 쌈하는 건 없었어요. 문제는 완전히 해방되면 인민위원회 패거리가 주둔할라구 했던 건데 해방이 안 되구 그냥 정작 좋게 갔으니까. 그냥 저 놈들이 몇 사람 여기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 사람들은 다 이북으루 넘어갔는데, 다시 안 돌아 왔지, 주동자들은.

다른 마을에서는 서로 죽이고 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그런 거는 없었고 대개 다 친척간이고 그러니까 그래 두고 보자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면 너희들 몇 사람은 시신 시키겠다(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구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거 있었을 거야. 그니까 뭐 말 듣긴 내가 그 2차 해당자라고 그랬다나봐. 왜정 때 경방단에 심부름 했던 것 때문이지. 그때 그 어떡해 거 안 들어가면 안되는데. 내 생각엔 그런 거 같애. 내가 그이들 한 들어갈 때 내가 악담한 것두 없구. 저이들 봐두 내가 갖다 어따 일러바치거나 뭐 누구 이눔들이 어디에 있다(고자질) 이런 것두 안했거든. 그런 거 전혀 안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본 것 같애. 좌익들이 바루 요 밑에 본부를 차리고 있었지. 우리집 옆에. 거기 우리 집안 애들도 많았아요. 우리 같은 이씨들도 많았어. 그래 이씨들이 서른 명 안 와요. 그때 갔어 걔들이. 그리구 전쟁 때 한참 점령하고 그랬을 때, 나는 그 피난 갔다가 길이 맥히니까 부여 근처에서 강도 건너지 못하고 그

래가지구 도루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구 집으로 와서 다락에서 가끔 자기도 했어요. 근데 큰집이 여기서 멀진 않지요. 굴을 파서 숨구 있긴 했지만. 아마 걤들도 알았을 거예요. 나 거기 있는 거. 그냥 봐 준거지. 하여튼 어느 날인가 우리 큰형보고 물어 보드래. 선진이 거기서 잤냐구. 그 방에, 가끔 집에 와서 자구 가구 그랬거든. 다락에서 잔 거 그거 눈치 채고 아마 물어 봤나봐. 하긴 그때 저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점령했으면 난 그냥 골로 갔을 거야 (웃음). 기래두 나중에(전쟁 후에) 거 뭐 거 빨갱이라고 여자들두 있었는데 내가 그래두 학대 안했어요. 여기선 그러지두 않았어요. 하나도 그냥 관대히 처분해버렸지 쌈하구 그런 거 안했어요. 거 그때 뭐 인민군이라고 와서 있을 때 젊은 놈들 거기 안 쫓아하고 안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다 쫓아댕기문 괴뢰군 말 듣고 땅굴 파고 오구 그랬지. 난 숨어 있느라 그거 안했어요.

상륙작전 후에 학익동 교도소 까정 미군들이 들어와 있었나봐요. 거기 저 땅 파고 들어가 있던 담요 뭐 그런 거 내들구 왔대요. 모두 방에 와서 거저 있었나봐. 인민군도 있었거든요? 그때, 인민군들이 여기서 담배들 피는 거 그때 처음 봤지. 담배들 붙여 물고 피고 있는 중에 미군들이 와가지구 행길 건너에 있는 인민군을 총질해가지구 한 열한 명 거기서 죽었어요. 거 기관총 있잖아요. 따라라락하는 거. 그걸루 쏴서 몇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구 그 끌어다가 향교 앞에 땅 파구 전부 다 묻었지. 실은 상륙작전 직후에 그 소리 듣고 달려 오다가 나도 죽을 뻔했어요. 연수동 쪽에서 이리 넘어오는데, 나한테 대고 인민군인줄 알고 총질 막 하더군. 움직이면 다 인민군인줄 알고. 그때 나도 죽을 뻔했어요. 문학경기장이 여기 요기 있지. 그 너머가 우리 큰집인데 거기서 이리 오면 길이야. 이 뒤는 산이구. 거기 요렇게 건너오는데 총알이 막 올라오잖아.

응 조금 더 있다 올걸. 그때 그거 맞았음 죽은 거야. 지금 향교 있잖아? 고 밑에 밭이거든 인민군이 거기 다 숨었어, 밭에. 그 여기 지끔 큰 길 있는 데서 미군들이 기관총이 드르르르륵 그냥 쏴가지구 열 몇 명인가 죽었잖아. 그래서 (죽은 인민군 시체들을) 동네 사람들이 구댕이 파가지구 땅 파가지구 끌어다가 갖다 집어넣구 묻어버렸어요. 땅 속에 뼈는 남아 있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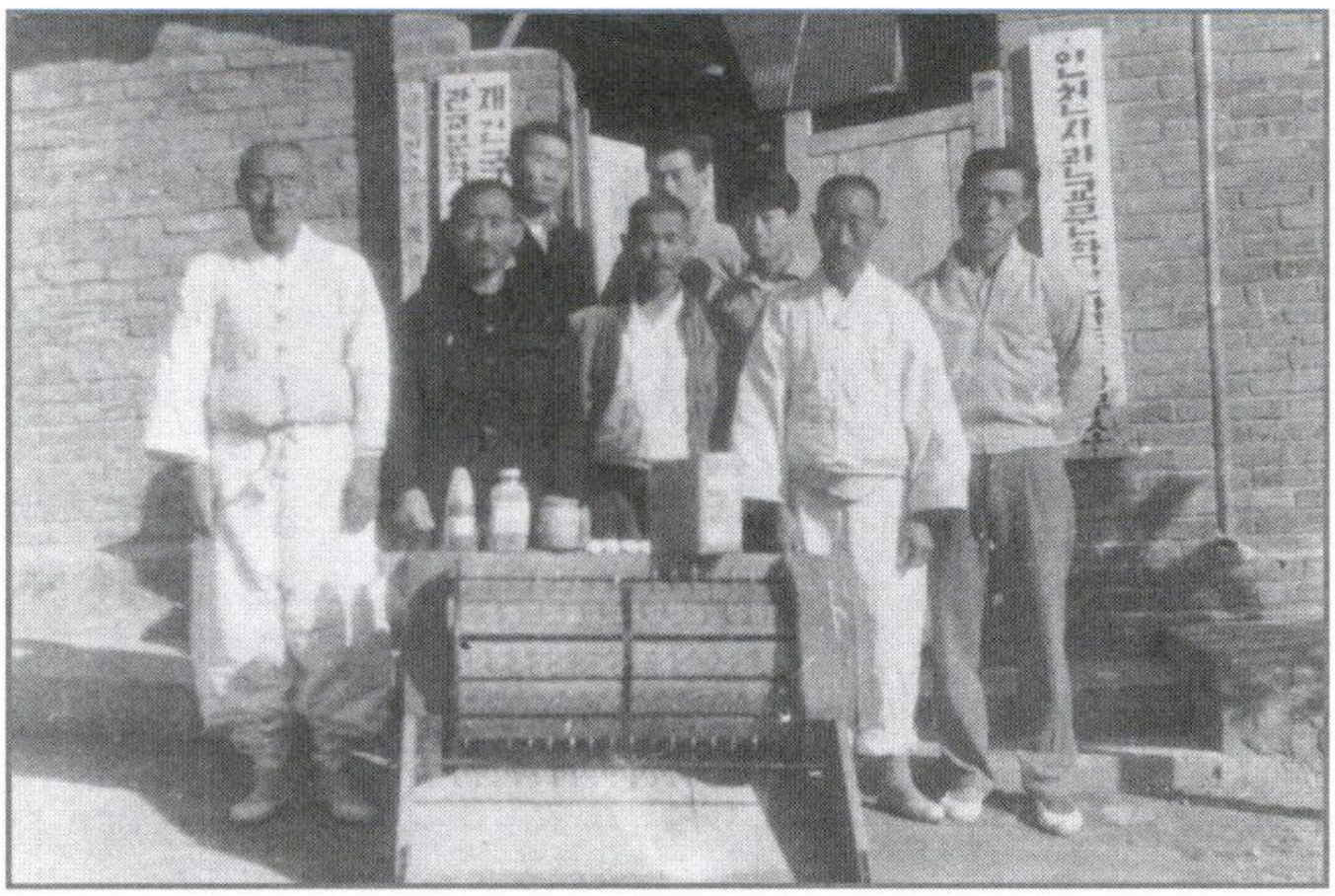
문학동장, 이선진

전쟁 끝나고 농사를 짓다가 51년돈가 동장이 되었지. 그래, 51년돈가 52년돈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 2년도에 한 건지 1년도에 한 건지 알 수 없어. 그거는 그래가지구 2년 했죠. 또 재선했어요. 그때는 민선이었지 민선. 그르구 재선해서 동장할 때는 문학동, 관교동, 선학동, 3개 동을 합쳐가지고 그때 내가 당선을 됐었거든? 그때 당선돼가지구 하구 나서 2년 쉬었다가 61년돈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61년도에 한 거 같은 데에? 2년을 쉬었거든? 한 번 그랬다가 또 한 거 같은데. 5.16 후지. 바로 후야. 그래가지구 61년도에 당선됐다가 5.16 나가지구설랑 다시 재임명 받았거든. 재임명 받아 71년도까지 했어요. 중간에 몇 년 쉰 거 빼고는 51년부터 72년까지 문학동장을 했지. 한 17년 될 거야. 내가 처음 동장할 때만 해도 여긴 순 농촌이었지, 순 농촌. 기관 뭐 이런 거 없었구. 공장도 없었구. 순 농촌인데 그때는 거름, 퇴비 이런 거 생산 장려를 많이 했거든요? 퇴비 장려를 해가지구 1등헌 기억이 나요. 우리 동에서. 응, 그래가지구 상품으로 탈곡기, 저기 발로 밟는 탈

곡기 있지? 응 그거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지구 바람내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그리구 또 풍구 거 이렇게 세워놓구 돌리면 그 저 낟알은 떨어지고 찌꺼기는 바람에 날라가는 거 있어. 그게 풍구라고. 나무통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우에다 이렇게 쏟아놓고 돌리는 거 있어요. 그 세 가지 상품 일등 상품 타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런 게 있어가지구 그러고 있는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구 그 농번기에 가물면 관정 파고 물 푸구 그랬거든요. 그거를 시내 기관에서들 나와서 주루 세무서 직원들이 많이 나와 도왔어. 응, 와서 우물 파고 물 퍼주고 가끔 그런 거 있었구. 또 모낼 때 손 모자라면 와서 모내기도 해주고 또 장마 때 벼가 쓰러지구 그러면 와서 벼두 이렇게 일으켜들 주고. 그런 거 기억이 나요.

참 우리 동네에 여기 저 옥터가 있었거든 옥터. (옥터요?) 옛날에 감옥이었지. 가막소겠지? 그거이 생생하네. 한 40년전까지도 터가 남아 있었어. 밭으로 되었다가 지금 조금은 남아 있어. 문학교회에서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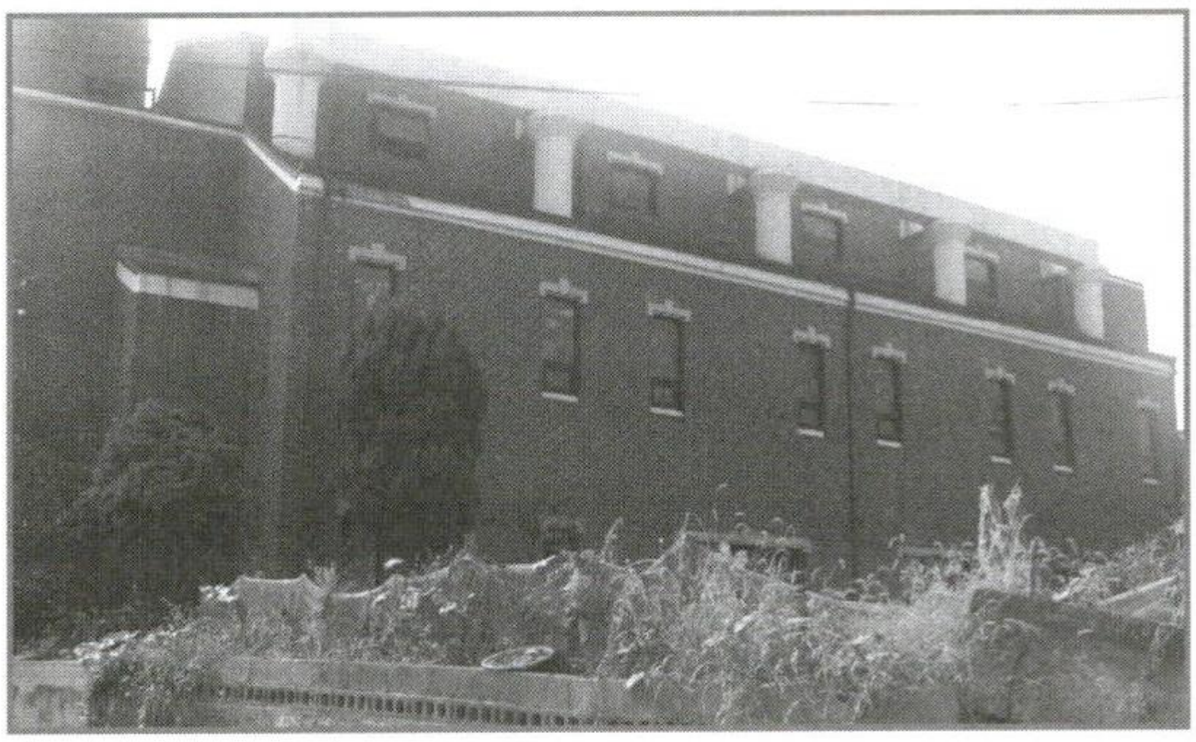
문학동장 시절 퇴비생산 우수상으로 받은 탈곡기 앞에서 (뒷줄 왼쪽이 이선진씨)

건너다 뵈는 저거 큰 길 있죠? 좀 내려가면 바로 고 건너야 바로 보여. 그리구 장대라고 요기 문학교회 올라오는 데 있죠? 장대, 장대하면 군사 훈련하는 데 아냐? 훈련소 이런 거 아니야? 그 장대인데 거기 저 무관들이 활 쏴서 과녁 맞추고 무관 벼슬 줬거든요. 문관은 글 써가지고 과거를 했지만 무관은 이 활 쏴가지고 과거를 봤거든요. 그런 것도 했대는 소리를 들었어, 여기서.

그런 거 기억이 나고, 그게 여름에 장마 들면 그냥 사태, 사태가 그냥 막 내려와서 여기 개천인데, 우리 이 집 앞에 이 길이 개천이야. 물이 무척 내려왔어. 그전엔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바위들이 막 굴러 내려오고, 장마만 지면 저기 저 문학교회에 옆으로 물이 내려와서, 동네 개천이 범람해가지고서는, 집에 물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문학동장 시절의 이선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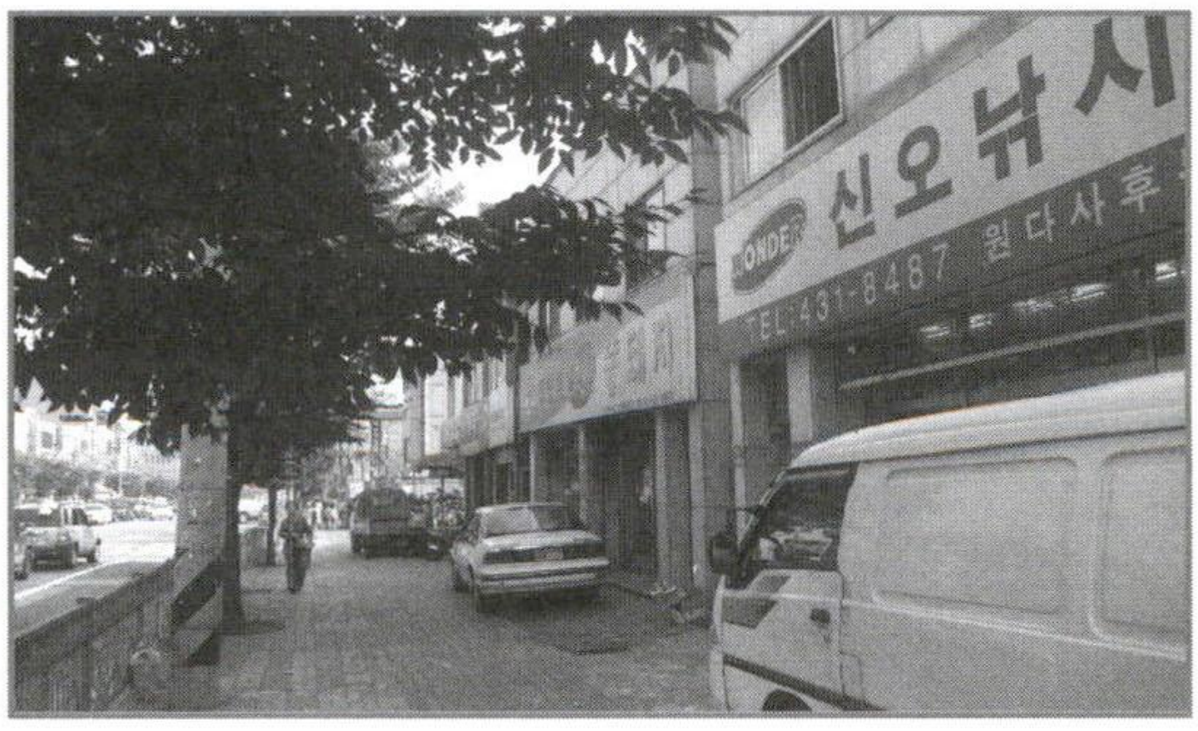

옥터 자리, 지금 문학교회가 들어서 있다.

그때 동장은 동네 전체 일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서류 같은 거 해줘야 되지. 처음 동장 할 때는 직원 하

나 데리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동장 할 때는 직원이 한 댓 명이 있었구. 문학출장소라고 사무실이 있었거든? 바로 동사무실이 예전에는 순사들 관사, 관사자리에 서있었는데 구청이 되가지고설랑 주안으로 구청이 나가고 그 문학출장소 자리가 동사무소가 되구.



무술을 연마하던 장대자리. 지금은 상가로 변했다.



옛날 부천군 문학면 사무소. 인천시 문학동 사무소가 있던 자리

그때 동장은 무보수지. 곡식인가, 허허. 좀 받은 기억이 나고. 별로 보수 그런 거는 혁명 이후에(5.16 이후) 받았어요. 곡식을 모으는 걸 모곡이라고 그랬지. 쌀이나 보리 이런 거 줬을 거야. 그땐 무보수였어. 무보수였는데도 시에서 누가 나오면 그거 다 동장이 손님 대접 다 했어요 허허허. 그러다가 5.16혁명이 정부가 돼가지고 61년도부터 돈 줬어. 한 30만원? 그 정도였을 거야.

문학산에 미군이 여기 있었잖아요. 미군 혜택을 좀 봤지. 거 종업원들 말이야. 거기 거 들어가려면 여간해서 못 들어갔거든. 동네 사람 한 대여섯 사람 취직해서 먹고 살았지. 아마 막사에 하나씩 (한국) 사람 하나씩 두었을 거야. 거

기서 그 사람들 심부름꾼이나, 뭐 그 막일하고. 그리고 뭐 가서 고치고 이러는 것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지. 기름 때고 도라무통 이런 거 나르고 그런 거는 한국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미군부대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동장하면서 기억나는 건 호적도 없는 양색시 호적등본 해 준거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르는 고아였는데, 어디서 그냥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런 댈 와가지구 양색시 노릇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무 서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호적 만들어주고, 돌봐주고 그랬지. 착한 애였어. 미국으로 가서 미군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나한테 편지도 보내고, 또 몇 년 되서는 아이도 낳고, 나중에 그 결혼한 미군이랑 한국으로 와서 날 찾아왔더라고. 고맙다고 인사 온 거지. 날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지. 불쌍한 앤데 미국 가서 잘 산다고 하니 나도 고맙지.

또 우리 동네 한 열대여섯 살 먹은 처녀애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가 삐뚤어지고 병원에 댕기구 그냥 그래도 안 나아요. 전쟁 뒤라 약도 없었지 뭐. 폐가 나빠서 그렇다니. 미군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미군이 거 데려 오라고 그러더라고. 거 데려가서 미군이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고쳐줬어요. 동장하면서 그 일은 아주 생생해요.

그땐 먹기 살기 어려울 때지. 꿀꿀이죽 먹구 가난하게 살았어요. 문학산 미군부대에 올라가 꿀꿀이죽 갖다 팔고 사먹고 그랬지. (어르신도요?) 그럼요. 허. 나도 몇 통 얻어다가 그래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 동네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눠먹기도 하고. 그때 어려웠어요. 꿀꿀이죽이라는 게 미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지. 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통에다 붓잖아요. 그걸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살았다구. 아주 꿀꿀이죽 파는 데

가 따로 있었어요. 길거리 옆에 끓여놓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그것도 없어서 돈 주고 사먹었어요. 얼마씩 주고. 그 속에 고기 덩어리 뭐 이런 거 들었거든요. 거기 허허. 그리구 저 또 원조 받아서 밀가루가 자주 나왔죠. 동네루 할당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줘가지고. 하천공사, 뚝 터진 거, 무너진 거 보수하면 나눠주고, 그런 것도 많이 했고. 하여튼 미군 와가지고 혜택도 좀 봤죠. 헌옷도 많이 갔다 노놔 주고. 내가 동장할 때 우체국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체국을 내가 동장할 때 지어놨어요. 우체국이란 건 인천우체국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지어야 되는데 터가 없어서 터를 동사무실 옆에다 마련해가지구. 관교 우체국을 지었지. 아마 1965년의 일이었을 거야.



인천향교 석전대제 배향후 촬영한 기념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선진씨)

또 기억나는 거는 농촌이니까 순 농촌이니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벼를 베면 말려가지구 탈곡하는 기계가 그때는 없었어요. 탈곡하는 거라곤, 도리깨를 나무로 맨들어가지고 콩이나 이런 거 떨고, 도리깨로 짚 떨고 그랬죠. 보리 떨고 그 도리깨로. 태질이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구. 그러던 것이 고 댐에는 탈곡기, 발로하는 거 그걸로 하다가 돌려서, 또 이제 고 댐에는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떨구. 지금은 트랙턴가, 기계로 논에서 바로 벼 가마니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발전이 되었어. 고작 내가 산 평생에 그런 변동이 허허.

동네도 뭐 싹 없어지고 완전히 빌라촌이 됐잖아. 지금 이 동네에 남아 있는 옛날 집은 두 집 밖에 없어. 새마을운동 열심히 했지. 뭐 길 닦기, 농로확장, 지붕개량, 그때 지붕이 다 바뀌었죠. 그전엔 다 초가집이었지. 그전에 기와로도 바꾸고 스레트로두 바꾸고, 화장실이 이 그 저 이게 저 빌라에서 생겨가지고 화장실 생겼지. 그전에는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저기 나가서 맹글어 놓고 밤이면 거기 나가서 볼일 보고 그랬지 않아요. 편하긴 편하죠. 복잡하지 뭐, 그전엔 널찍하게 그냥 여유도 있고 마당 있고 마당에서 곡식도 갖다 떨고 그냥 말리고 뭐 이래.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지금은 화장실 하나 편리하지. 젤 멀리 있던 걸 방안으로 가져왔어요. 옛날에 화장실 순전히 거름으로 썼지. 예전엔 숭의동 운동장 그쪽이 똥꾸뎅이, 똥구뎅이예요. 청소했다 거기 갖다 부으면 우리 농민들이 가서 마차로 가져와서 실어다가 밭에 주구 논에 넣고 그랬죠. 아주 거기 똥구뎅이 유명했어. 숭의동 거기 일대가 똥꾸뎅이였어. 그때만 해도 마차에다가 인부들이 똥을 긁어 담아서 마차로 실어서 밭에다가 쏟았는데 나중에는 자동차에 담아가지구 그 농촌까지 자동차로 싣구 와서 쏟아주고 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밭 귀퉁이에 똥구뎅이 천지였어. 그런데 변소를 퍼서 거기다

가 붓구 필요한 데다가 거름 주고 그랬죠.

내가 동장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동장들 새로 와도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허허. 아, 우리집 활쏘는 데도 사두(射頭 : 회장) 허면은 사진 갖다 걸어놓고 몇 대 사두라고 적어 두지 않아요.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쭉 걸어 놨지. 그게 시청에 가보니까 역대 시장 사진들 쭈욱 걸어놓고 있더군. 지금도 있는지 몰라.



문학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이선진씨 (1950년대)

문학동에 활터를…

활은 우리 아버님들이 활 쏘셨어요. 할아버지 적부텀 쐈는데, 대부분이 선조가 활을 쏘면 그 자손들도 그렇게 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구 그런 계통은 아니구. 예전에 동네 부락마다 활쏘는 사람 뭐. 그 어디다 정해 있거든요. 그게 인제 거 어른들 쏘는 거 보고 가서 구경도 허고 가서 활쏘는 데서 화살 집어다 주구 심부름도 했죠. 어른들이 활쏘면, 어렸을 제 핵교 갔다 와서 활 집어다 드리고 그랬지. 할아버지 활쏘는 건 난 못 봤어요. 그때는 활터가 요즘처럼 사정

(射亭) 같은 게 없었고, 부락마다 넓은 장소를 골라서 그냥 과녁 맹길어가지고 노상 쏘지는 못했죠. 지금은 그냥 운동 삼아 노상(1년 내내) 쏘는데 그때는 농한기, 농한기지, 겨울 이때나 좀 쏘고 그랬죠. 그렇게 노상 쏘고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쯤엔가 너도 쏴봐라, 쏴봐라 한번 쏴봐라, 어른들이 그러는 바람에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 45년에 해방됐지. 그때 그냥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른들 활쏘는 게 뚝 끊겼어요. 한 27년인가 30년 동안 활쏘는 게 끊어졌지 아주. 딴 데는 활을 계속 쐈어요. 근데 여기만, 문학면만 활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76년도 동네 친구들을 나중에 만났는데 오늘 저 여기 연무정이라고, 계양구청이죠. 거기서 수봉산 무덕정허고, 계양산 연무정허고 대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구경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뭐 오래되구. 그리구 또 가서 보면 재미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자고 한 댓 명이 그래. 그래, 가자. 가서 그 인제 활쏘는 거 구경도 하고 거 대접도 받고 인제 응, 점심 뭐 아주 술 잘 차려먹어요. 아주 거 대회 쩍에 그래 거기서 구경하고 대접 받고. 그때에는 택시가 타고 다닐 땐 무슨 택시야. 군인들 타고 댕기는 짚차 같은 거 그런 거 있



활터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는 이선진 할아버지. 활쏘기는 유일한 소일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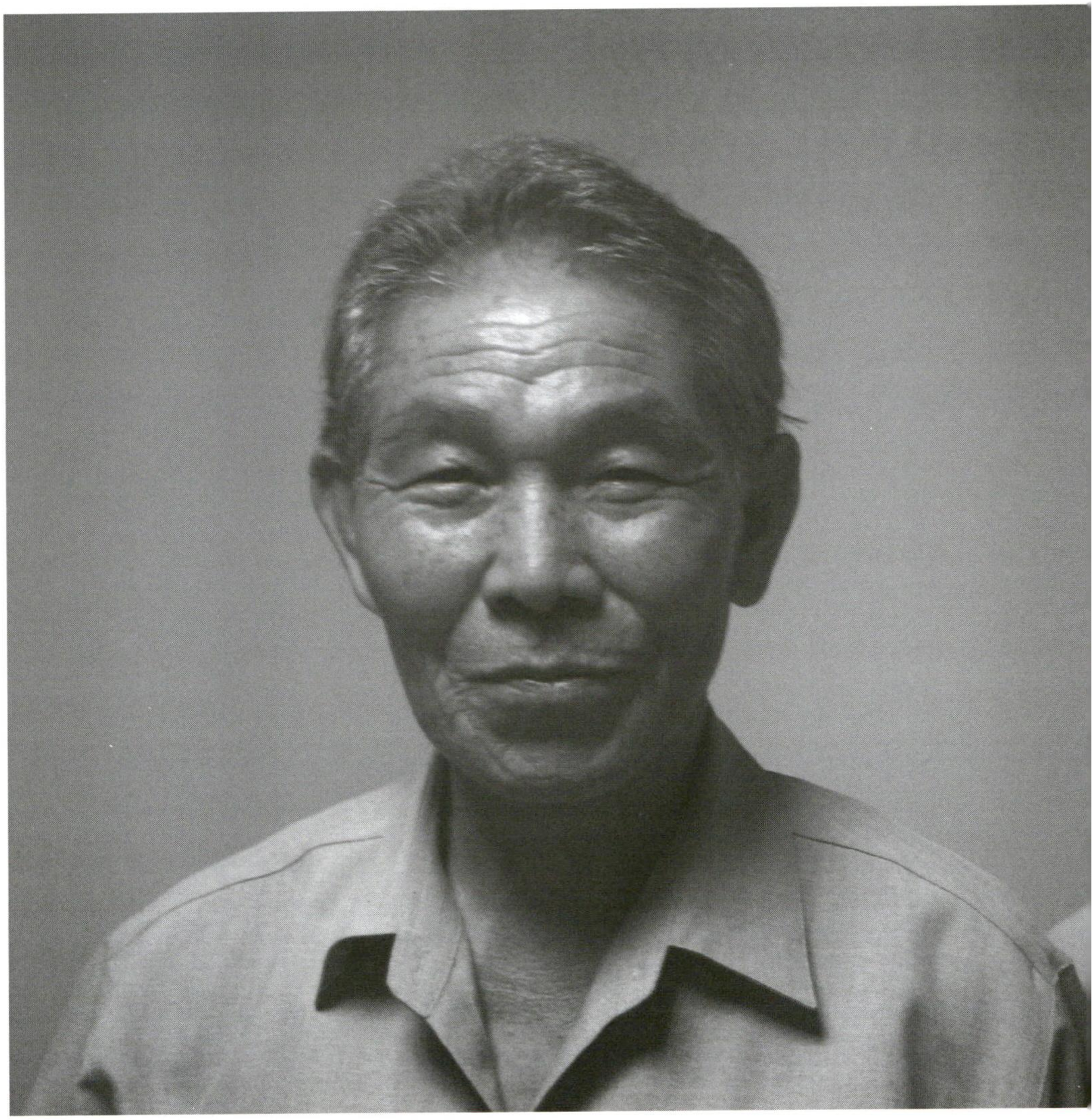
죠. 다섯 명씩 타는 거 그런 거 있어. 다섯 명이 갔다 오다가 타고서 왔지. 계양 오다 중간에서 '야 우리도 활 다시 한번 쏘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더라고. 뭐 그때에는 활이니 무신 도구가 많아요. 이거 손에도 끼는 것도 있고, 뭐 살도 이거 없고 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무덕정이라고 여기 다 수봉산에서 활 쏘는 데 있어요. 거길 가자 거기 가서 활을 빌리든지 사든지 해서 쏘자. 그래가지구 거기서 한 댓 명이 갔더니, 거기서는 아주 그냥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활쏘는 사람은 활쏘러 오는 거 아주 대환영이야. 아 와서 어서 오라고 대환영이야. 아 가서 얘기도 하고 활을 쏴야 할 텐데 도구가 없다 그러니까, 활 빌려 주는 사람, 살 빌려주는 사람, 사구라고 끼는 거 있어요. 그거 빌려주는 사람. 깍지라고 그래요, 깍지 이래 끼구. 요게 잡아 댕겨야 실이 여기 걸리거든요. 그래야 손이 안 아퍼요. 그거 빌려주는 사람. 뭐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쏴보고 인제 야 그럼 우리도 쏘자. 그래서 과녁 맹길어 세워놓고 하나둘 뭐여 우리 동네 사람 선학동 사는 사람들 하나둘 차차 모여가지구 쏘기 시작한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여기 문학경기장 있는 산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1년인가 쏘았어요. 76년도에 시작해서 77년서부텀 문학경기장 있는 데서. 그래가지구 활을 쏘는데 정(亭)이래는 명칭이 없었거든, 정. 다른 데는 다 뭐 연무정이니 연수정이니 남호정이니 뭐 이런 정 이름이 있는데, 우린 그런 조직이 안 돼 있어서 '문학정' (文鶴亭)으로다가 신청을 했죠. 문학정 명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구 사정(射亭)을 지었어요. 거기 저 개인한테 거기다가 세를 받아가지구 거기다가 인제 무덕정 집을 거기서 예전 쏘던 집을 버리고 새루 시설을 지어줬어요. 그 건물이 남았었거든 그때까지. 그 건물을 30만원주고 사다가 여기다 짓구. 그리구 거기서 계속 쏘던 중에 문학경기장이 생긴다고 우리 나가



문학경기장 쪽을 내려다보며 문학동의 활터인 '문학정' 의 복원을 궁리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때 보상을 받았어요. 오천 몇 백 만원 받았는데 사정을 짓고 쏴야 할 텐데, 여기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거 연수구 쪽에서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거기 사람들이 선학동이 연수구 됐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해가지고서는 그리 가기루 되었지. 보상 받은 거는 거기다 갖다 줬어. 그 돈이 지금도 남았어. 지금도 아마 한 이천 오륙 백 만원 남았을 거야. 근데 이름만 남아 있어도, 이름만 안 바꿔도 그냥 두겠는데 문학정을 아주 없애 버렸잖아. 문학정을 살려야지. 우리 대에 와가지고 웃대에서 해 오신 것을 말이야. 이 문학정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거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놓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법은 본래 있던 데로 이리로 옮기는 방법이지 뭐. 우리 문학정을 살리면 우리 옛날 문학정에서 활쏘던 사람들이 열댓 명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정을 따로 살려가지고 여기다 장소만 해주면 여기서 문학정

을 다시 살릴 수가 있지. 살릴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허구, 또 땅이 꽤 들어요. 그런데 과녁은 실제로 세 개밖에 안 써요. 네 개는 맨들어놨지만 한 개는 안 쓰고 세 개로도 충분하거든. 그것두 대회 할 적에나 세 개 필요하지 보통은 하나만 가져두 충분해요. 대회 할 적만 그렇지 하나만 둬도 충분해. 15메타 최소한 15메타, 10메타 이 사이. 그리구 이 집 짓는데 이 최소한도 한 500평 가져야지. 그 저기 그 과녁터 한 500평 들겠고. 10메타 곱하기 150메타 하면 얼마에요. 한 삼천 평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이 여서 나가면, 체육공원 될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 되면 좋죠. 문학정 지어서 활터 하나 넣어달라면 넣어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내 생각에도. 그러니까 어디 자리를 만들어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꼭 맨들어야 되는데 운이 될런지……. 그걸 문학경기장 안에다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 보고 그랬거든. 시장님이 서명을 했는데 설계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장소가 맞는데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경기장 안에는 못 넣었다는거야. 활터를 만들고 옮기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빨리하면 좋긴 하겠는데, 허허, 내가 그 안에 살른지 죽을른지도 모르고……. 활터 마련하고 건물 짓고 시설하는 데 돈 많이 들꺼예요. 그래도 문학동에 문학정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김필운 차영녀 부부



한평생 배를 타다가, 인천근해 뱃노래를 부르는 김필운 옹

■ ■ ■

구술자 김필운 차영녀 부부
채록자 이세기*

김필운(金弼雲) 옹은 1933년 103가구 정도 사는 섬마을인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무도리(거첨)에서 태어났다. 7세 때 어머니를 잃고 13세 때 화장으로 배를 타기 시작하여 67세까지 안강망 어선을 탔다. 19세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연평도로 이주 1년간 피난살이를 하다 다시 덕적도로 가족 모두가 이주를 하여 정착하여 살았다. 그 후 인천으로 이주하여 화수동, 신기촌 등지에서 살

았다. 나이 들어 기운도 떨어지고 눈도 어두워져 뱃일을 못하자 황해도 옹진지역에서 불렸던 주대소리 인천무형문화재 5호 준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차영녀(車永女) 여사는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무도리에서 1935년도에 태어났다. 22세 때 덕적으로 피난 와서 김필운 옹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낳고, 1988년도 이래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인천무형문화재 3호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화장, 밥해주는 사람으로 배 댕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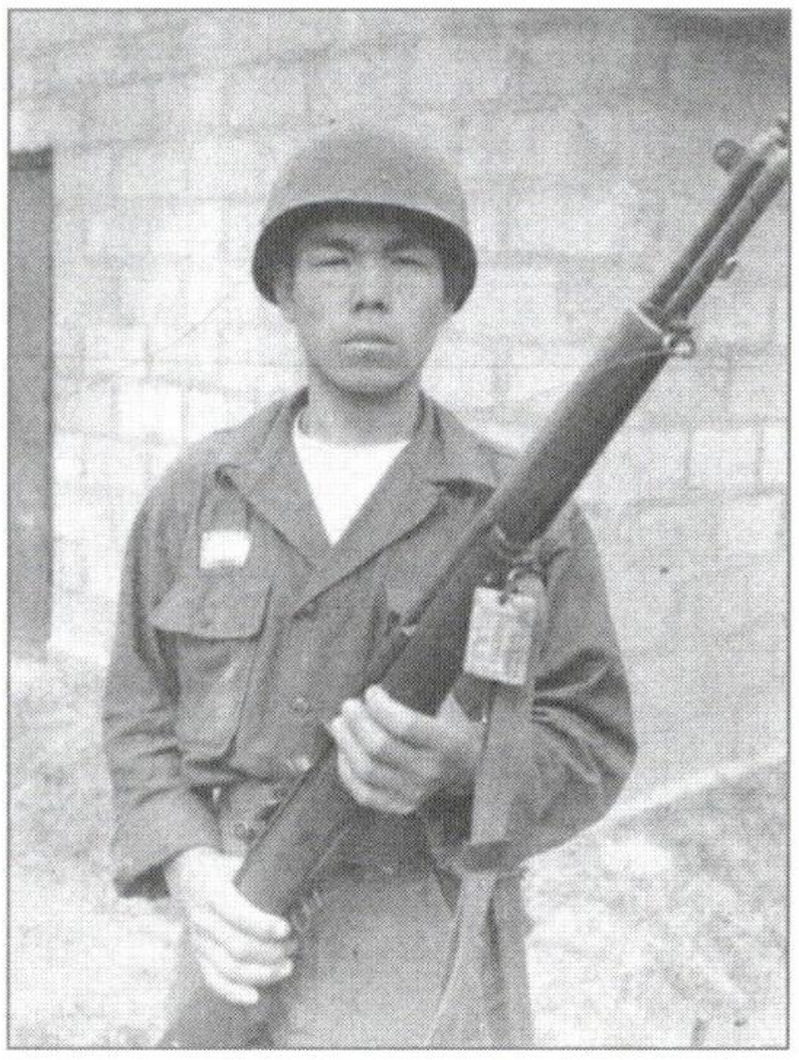
김필운 : 나는 거첨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황해도(黃海道) 옹진군(甕津郡) 봉구면(鳳鷗面) 무도리지. 무도리하고서 동네 이름은 거첨이야. 무도리가 거첨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거첨이었지. 문갑산다 하는 그런 식으로 거첨산다고 그런 것이지.

아버지 성함은 김희규야. 아버지 때 4형제 중에서 세 번째가 우리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 항렬이 4형제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우덜이 형들, 누이, 나, 허허 그걸 대야한단 말야. 내 항렬도 그러니까 4형제지. 큰형님, 작은형님, 누이, 내가 막내야. 어머니는 봉구면 출신인데 다른 동네였고, 아버지는 봉구면 무도리 출신이 아니셨는데 나중에 무도리로 오셨지. 기억으로는 할아버지가 첨에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육지 어드메서 살았다는 것만 알지. 아버지 때 무도리로 넘어왔어. 막동아버지만 육지에서 살았고.

---

*1963년 인천출생. 1998년『실천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먹염바다』가 있음.

내가 태어난 해는 1933년이고 무도리에서 살면서 열시 살서부터 조그만 배를 댕겼어. 어머니를 일곱 살적에 잃구, 형수한테 자라면서 열시 살 먹으면서 벌써 배를 댕기기 시작한 거지. 달리 할 게 없었어. 4학년까지 있는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 황해도 옹진이라는 분교가 있댔어. 이게 섬이니까, 뭘 좀 배워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분교를 다니다가 8 · 15해방이 된 거지. 더 배우려면 육지로 나가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작은 배를 댕긴 거지.



군복무 시절 모습

작은 배 댕기다가 대꺼번에 큰 배를 댕길 수는 없잖어. 한 이삼 년 댕기다가 화장[1], 일하는 놈 밥해주는 사람으로 댕기는 거야. 그때가 한 열대앗 살에서 열일곱 살쯤 되었지. 쪼그만 배 타고 다녔던 건 운반선이었어. 처음 탔던 배는 시아우젓[2]도 싣고 조기도 싣고 해서 마포로 들어가서 팔고 그랬지. 거서 그렇게 한 이 년 댕기다가 조금 나아지니께, 일고여덟 아홉 명 댕기는 배를 댕겼는데 거기서도 밥 해주는 사람으로 배 댕겼지. (그건 뭐 하는 배였어요?) 그건 고기 잡는 배야, 안강망. 옛날에 우리 고향에선 일중선이라구 해, 일중선. 연평도 거내에서 작업을 했지.

먼데론 안 가, 그때 당시에는. 고기가 놀아지면서 저기하면 전라도도 댕겼

1) 화장(火匠).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배에서 주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의 업무이다.
2) 새우젓을 말한다. 여러 번 발음을 요청했지만 '시야우젓' 인지 '시아우젓' 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언어의 구조상 '시아우젓' 으로 표기한다.

고 그른 데루 댕겼지, 연평도에서만 잡았어도 그 고기가 남고 지칠 못했거든. 그랬기 때문에 먼데 가서 안 하고 연평 거내에서만 작업을 하지. 우리 황해도 쪽에서는 물 반, 고기 반이었어. 다 반찬이야, 반찬. 하하. 덕적으로 오면서 조금 적어지고 그래서 전라도로 가구 그랬지. 배들이 다 간다구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잖어. 안 드는 배는 안 드는 거지. 안 드는 배는 그냥 벌렁 벌렁이 들어오구, 이건 뭐 그냥 만선 배를 잡았다 하믄, 그냥 뭐 해댔지.

그때 당시에는 시월 달쯤 되면 파송 친다고 해, 파송. 파송을 치면은 그때 당시에 한 두서너 달 지리 놀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고기 잡을 수가 없지.[3] 그러니께 한 두어서너 달 놀다가 이제 새해 되면은 정월보름 밥 먹고서는 또 배 댕기구.

차영녀 : 두서너 달 큰 고기를 잡고, 음력 칠팔 월을 시아우젓 달이라고 하지요. 육젓[4] 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도라무통에 이빠이 데려요. 이 사람이 열두어 살에 배 댕길 적에 쪼그만한 상곳배야, 상곳배. 대꾸닥에 연장[5]달고. (대꾸닥, 연장이 뭔가요?)

김필운 : 연장이 뭐냐면 바람 불 때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3) 10월의 마지막 고기잡이 시기를 말한다. 한강을 왕래하는 상곳배가 가장 호경기를 누리는 시기다. 시월막사리가 지나면 한강이 얼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이 시기를 기해서 운항을 끝내고 귀항하게 된다.

4) 새우젓은 잡는 시기별로 명칭이 다르다. 음력 정월 그믐 경부터 4월 그믐까지 잡히는 것을 데뜨기젓, 쌀젓(참젓), 오월은 오사리젓, 유월은 육젓, 칠월은 자젓, 팔월은 추젓, 구월 그믐 경부터 동짓달까지 잡히는 것은 동백젓이다. 동짓달 하순부터 정월 하순까지 3개월간이 새우잡이 휴무기다.

5) 돛에는 크게 돛대와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돛대를 대꾸닥(대꼬작)이라 하고 연장은 활과 앵기, 아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장이라구 허지. 깃발은 말하자면, 태극기 깃발, 그런 걸 깃발이라구 하는 거고 연장은 깃발이라구 하믄 안 돼. (빈 종이에 그림을 그려 설명한다) 그러니까 돛대는 대꾸닥이라 하고 이렇게 대꾸닥에 매다는 걸 연장이라고 해.

차영녀 : 그러면 큰 배서 잡아서 당기고 우리가 사 실을 만큼 사 실어가지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옛날에 그것을 한강으로 건너가서 마포에다 팔고. 그러니까 시아우젓 파송하는 칠팔 월에는 젓을 팔고 다녔어요. 그렇게 할아바이는 화장질하고 댕기고 나는 뭍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다 나이 먹으니까 동사가 되지 않겠시껴, 동사. 일하고 밥은 안 해주고.

김필운 : 무도리에서 마포까지 가서 팔고 그랬지. 그때는 기계배[6]가 없고 돛단배만 있으니께는 노 저어 댕기구.

차영녀 : 고기 잡으러 댕기믄 바람이 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께는 소식을 몰르잖어요. 한 달에, 십오 일 만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니께는. 그라믄 바람에 쫓긴다구 해요. 어데 석 좋은 데로 바람 맞춰서 돛을 달고 가서 바람 안 부는 데에 있다가, 날이 좋아서 바다에 나가 고기 한데 잡아 싣고 오나야 살아오는구나 알지, 아무 소식도 모르고 살았지요. 할매들이 갯바닥에 들어가서 굴도 줍고 바지락두 줍다가 바람 불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갯가소리를 한다) '볕 좋다 바람은 부는데 배들은 다 어데루 째였다가 고기나 잡아 가지구 들어오나야 알지. 소식두 모르갔구나.' 그라믄 으물으물 하믄서 눈물도

---

6) 동력배

흘리구 그렇게 살아온 섬이야요. 물 가운데서.

김필운 : 요즘처럼 기계배가 아니라서 마포루, 한강으루 가야되는데 이제 수위가 나, 수위. 물살이 내려오기만 허지 올라가질 안 해. 그 수위가 나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께 이 닻을 갔다가 밧줄을 해가지고 육지에 갔다가 놓고서 잡아당겨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또다시 거기다 놓구 잡아 당겨 올라가고 그랬지. 올라가서 다 팔고 내려올 적에 수위를 만나면은 내려오는 건 괜찮아. 하룻저녁에 그냥 내려오는 거지.

차영녀 : 인제 배들이 내려오면은 누구네 배다 하고 딱딱 알어. 허허. '야, 저거 누구네 배다.' 고기 잡아가지구 들어올 때도, '야, 저거 누구네 배다, 누구네 배야.' 왜냐면 그때는 연장을 여자들이 나가서 깃댔거든. 흙물 들여가지고 다는 거지. 아휴, 여자들도 일 많이 했지.

전쟁통에 바가지라도 타구서

김필운 : 그 당시 마포는 이렇게 뚝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굴이 하나 있고, 그 뒤로는 다 논길이었어, 논. 그래가지고 우리 할매하고 나하고 놀았든 적이 있어. 우리 고향 배 하나가 밥만 멕여가지고 데리고 댕기던 기억이 있어. 왜 그르냐. 그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갖구 마포가 다 둑이 있어가지구 이렇게 모래가 있었는데, 거가 밭고랑이구 집은 드문드문 없구 좀 나가야 있었어. 그때는

전철이 다녔지. 아니 전철이 아니구 전차라 해야겠구나, 전차. 그때가 해방되기 전의 얘기지. 마포댕길 적엔 화장을 했어. 1·4후퇴 적에 연평 거쳐가지구 여기 와서 살면서 할매 만나서 자손들 다 퍼뜨린 거 아녀, 내가. 마포에서 돌아댕긴 얘기는 열 일고여덟 그 쯤 되았겄다. 그러니께 고향에서 열아홉 살적에 무도리에서 덕적으루 왔으니까. 열일곱 적에 마포를 돌아댕겼지.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차영녀 : 전쟁이 일어난 거는, 그기 이북땅으루 됐으니께 우리는 육지로 넘어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어. 가막개라고 육지가 있구 우리는 물 가운데 있으니까는 즈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배로 다 막 들이닥치구 막 총을 들이대고… …. 죽지 않고 살아남은 군인들두 배를 타고 나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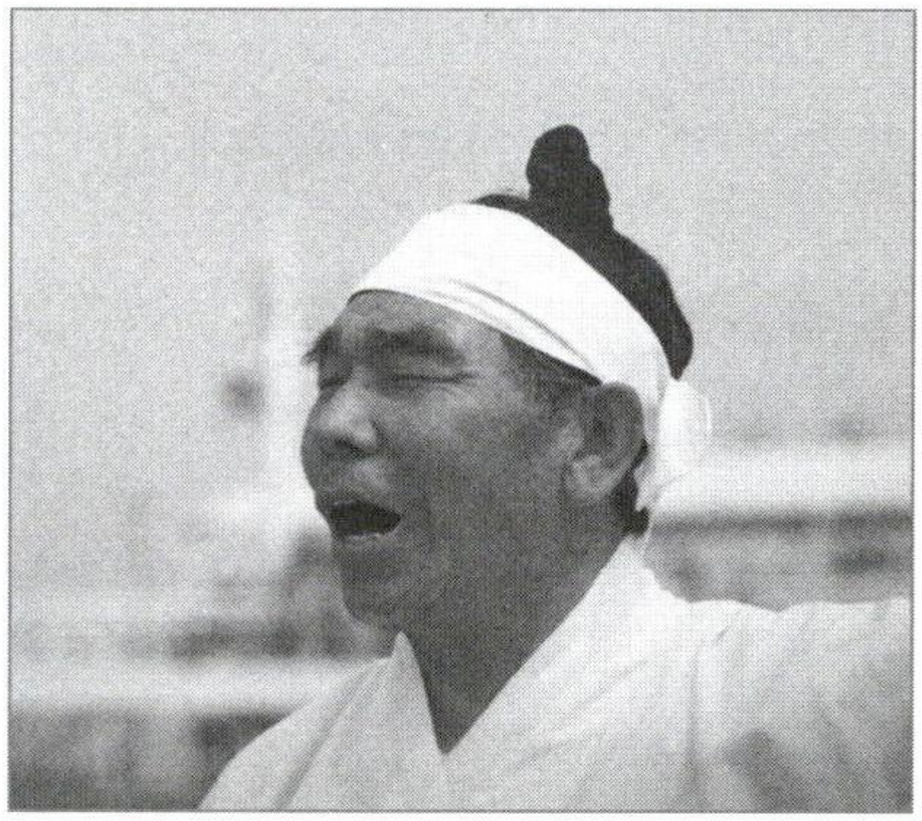
김필운 : 그러니깐 전쟁이 난 거는 알구 이제 바다에 나갔다구 봐야지. 어떻게 아냐믄, 섬이라두 말하자믄 사태가 불리하다는 거, 그런 거 쫌 알구. 인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두 전쟁이 좀 날 듯 하다라는 건 알구 있었던 거지. 그카구서 고기잡이배니께 우린 고기를 잡는 거지. 섬이니께. 그러니까 육지는 이미 싸움이 났던 거야. 나이두 어렸지만 전쟁이 난 건 알구 있는데 고기 잡는 거지. 근데 밤에 육지에서 포소리가 막 나구, 인제 전쟁이 붙었다는 건 짐작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이제 멍텅구리배라구 하는 배루 사람을 한 배 싣구서는 발동선이 끌구서는 빨리 집으루 가라했지. 큰일났다구. 전쟁이 났다구 하더라구. 들어오니까 이미 전쟁은 터져서 육지에서 사람이 거첨으루 요만한 바가지라

두 타구서 우리 섬으로 건너왔지.

차영녀 : 연평에서 배를 타가지고 오마니하고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는 바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거첨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거첨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고 나는 나이 좀 들었다고 오라바이하고 싣고서 덕적이나 문갑이나 소야리나 다 댕기고 쑥개에서 하룻밤 자니까는 인민군 배가 달려들어서 총을 쏘고 다 뒤지는 거야요. 거첨서 우리 오라바이는 향토방위대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뒤지니까는 우리 오라바이가 나온 거야요. 그래서 우리 오라바이 쏴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죽이지 말라 해서 우리 오라바이 살고. 그러다가 온통 섬마다 댕기면서 떠다니다가 한 달 만에 죽기 살기로 우리 섬에 들어가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그냥, 울고. 그래서 들어가서 산 것이지.

김필운 : 우린 빨갱이라고 해서 사람이 몸이 빨간 줄 알았잖아. 허허. 그 당시에는 우리도 이북 사람이지만은 남한으로 피난 온 거지. 그러니까 몸이 바뀐 거야.

그 인민군들이, 우리 섬에다가 막 포를 쏘는 거야. 이제 살 수가 없지, 거기서. 날이 밝도록 밤새도록 포소리가 나니깐 아, 전쟁이 사태가 불리한가보구나 하고 생각을 허고 있는데 그 멍텅구리배로 사람을 한 배씩 싣고 오더라구. 그라믄서 빨리 가족 싣구 도망가야 한다더라구. 먼저 들어간 배는, 우리 고향에 안강망이 한 예닐곱 배 정도 됐는데 그 배는 먼저 들어와갖구 가족을 다 싣구 저기했는데 나 같은 배는 나중에 들어와가지구 한 달 만에 싣구 왔지. 그래갖



구 배를 갔다 대면 일단 사람이 기어 올라가지구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만큼 사람이 많았지. 육지서 요만한 바가지라두 타고 와서 살겠다구 그랬으니.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어망을 실어야 국으루라도 아무데서나 먹고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갖구 나는 집에도 못 가보구 총각 때니께, 가족두 몰르구 못 보구 그땐 뭐 섬이니께 죽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벌써 먼저 들어온 배한테, 그니까 쉽게 말하믄 형은 이 배 댕기구, 동생은 저 배 댕기구 그랬던 거 아니야.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지. 우리 섬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로 배로다 다 나왔지. 우리 가족은 고모만 못 나왔어. 거기서 못 나온 사람은 소탕이 되구 말았어. 빨갱이 정치가 돼서 비행기가 폭격을 했으니께.

무도리가 한 백 가구는 됐었는데 늘어서 백칠십 가구 정도 늘어났어. 백 집이 넘으면 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길 아버지가 하시더라구. 『정감록』에 있는 옛말이 그렇다네. 섬에 물이 없어. 그러니께 섬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우리 거첨으로 와서는 물이 없어서 못 살겠네 그랬단 말야. 물이 안 나와. 물이 짜기두 하구 안 나오니까 물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을 정도여.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나무, 나무도 없어. 땔기(땔감), 땔기가 없어. 9월, 10월이 되믄 나무를 육지에 들여놔야 돼. 쌀두 들여놔야지, 심지어 물까지 갖다 놓는 기야. 백여 가구 정도 되믄 꽤 큰 섬이지. 안강망이라는 고기잡이배가 한 열한 척 정도 됐는데

알고 보면 육지 사람들 보담 부자야. 섬은 살기가 좀 힘들었어도 농사짓는 거랑 같은 거지 뭐. 내가 육지를 댕겨봤어도 그래두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덜보단 못하다는 거지. 옷 입는 걸 봐두 그렇구 사는 것두 그렇구.

전쟁 전엔 주로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했었어. 그땐 전라도 배고 뭐고 다 연평도로 몰렸지. 남북이 없었으니께. 연평도가 고기가 엄청 많았거든. 대신 허가를 받았어야 했어. 첨에는 아랫녘 배들, 전라도 배들은 안 왔지. 그런데 와서두 거기서두 고기를 잡아먹구 여 연평도에서도 고기를 잡아먹구 그랬는데 연평도 와야만이 고기를 많이 잡구 그랬지, 안 그러면 고기 많이 못 잡았어. 광복 후에는, 이북 쪽으루 많이 들어가야 고기를 많이 잡지, 나오면 고기가 많이 안 잡히거든. 라인선[7] 안으루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북 땅으루 들어가야 고기가 많이 잡히지, 이남 쪽은 안 잡혔단 말야. 그러다 고기를 잡다보면 라인선을 넘어가. 그 놈들이 배를 가져다가 몽땅 다 잡아갔네. 우리 삼형제만 거기 안 들어갔지, 거기 다 들어가 심사 받구 특히 총각들이 못 나왔어.

한 달 동안 배로 돌아댕기다 보니까 먹을 것두 없고 더 이상 돌아댕길 데가 없는 거지. 이미 부산까지 빨갱이 정치가 됐다는 거지. 그르다가 서너 사람 탈 밴데 한 사람이 총을 잡고 꼼짝 마라고 하는 기야. 쑥개 앞에서 우덜은 그냥 잽혀갖구 심사받았던 거지. 둘이가 환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조사 다 받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내보내 줬던 거지. 빨갱이는 한 명이었는데 벌써 지방 빨갱이들이 생겼던 거야. 이제 더 이상 부산을 가도 소용이 없으니깐

---

7)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한다.

다시 거첨으루 돌아왔어. 이젠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고향으로 가라고 인민군이 풀어주더라구. 해코지는 안 하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데. 나도 덕적 와서 1기생으로 군인으로 나가야 해. 근데 아버지가 솔직한 얘기루, 인제 덕적으루 들어서서 1기생으루 군인으로 나가야 하니까 너는 연평에 떨어지구, 그니까 이제 우리 가족만 모두 덕적으루 떨어진 거여. 그래서 나는 연평으루 떨어져서 1기생으루 군인을 나간거야. 그리구 오라바이하구 내 친구두 군인을 가게 됐어. 재수 돈 꿔가지구. 그랬는데 난 군대 안 가겠다구 나이두 줄였지, 이제 그런 관계루 휴전 돼 갔구 군대 갔다 왔지. 점점 살기가 힘들어서 애기 낳구, 결혼하구 애기 낳구 그러고 군에 갔다 왔지.

무도리에서 마포까지 거리는 바람에 달렸지

김필운 : 배 탄 얘기를 하자면, 이삼 년 동사루 댕기다가 선장으루 가구, 또 선장으루 이삼 년 댕기다가 이제 덕적으로 건너왔지. 그카다가 인천으루 또 온 거지. 인천 와서 또 선장 노릇도 하구 영자[8] 노릇도 하구.

원체 연평으루 사람이 많이 몰렸어. 미군이 아구리선 갖다 대고서 남하시키고 했지. 그러니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해 먹구살어. 그러니까 연평서 거주를 했는데 그게, 연평 주민이라야만 끌려가지를 않지. 나중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많으니께. 미군이 아구리선 갖다 대구 남하시켜야 살지. 연평에서는 살 수

8) 고령자(高齡者)의 준말. 오랜 경험으로 고기떼의 이동이나 날씨 등을 예측하는 선원으로 풍어, 흉어는 영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없거든. 뭐 그냥 식량두 그렇고, 땔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우리덜이야 배를 가지고 있으니께 배로 댕기면서, 뭐 다시 복구되믄 고향에 들어와 살갔다, 그런 욕심을 가지구 있었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배루다 인천으루 내려 온 거지.

덕적서 오래 살았지. 덕적에서두 계속 배를 탔었어. 아, 한 십여 년 정도 살았구나. 덕적에서 살면서는, 그때는 아까 말대루 남북이 막혔으니께는 연평 안으루는 못 가니께 그때는 이제 전라도루 가구 했지. 거시기 뭐라구 해야 하나. 전라도 칠산[9], 칠산어장. 그리구 동지나, 남지나. 젤 처음에는 거기서 칼치[10], 칼치를 잡았지. 최고로 많이 잡았지, 내가. 칼치를 원체 많이 잡으니까 그 씨매(씨)가 없어져. 그러게 전쟁 후에 덕적에서 배를 계속 탔지.

1·4후퇴 후에 육지로 나온 사람들은 광천, 그런데루 다 살러 갔어. 배가 한 십여 명 동사를 가져야 운영이 되지. 그러니께 십여 명은 그 배루 갖다가 먹구사는데, 배두 동사가 있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다덜 섬을 떠난 거지. 광천으루 가는 사람들은 광천으루 가고, 다른 섬으루 가는 사람들은 다른 섬으루 가구. 인제 우리 고향 사람들은 수깨하구 서포리하구 고렇게 젤 많이 가고 그랬지. (지형적으로 참 가까운 말인데 어렵네요.)

우리 전라도 말이나 황해도 말이나, 전부 못 알아 먹는다구. 우리 황해도 말 알아듣지 못하는데 거기다 더 보태서 재트리[11]라는 거 있잖아. 다른 데서는 재

---

9) 칠산바다(七山 -). 전남 영광 앞바다. 일곱 개의 섬이 있어서 생긴 이름. 조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다.

10) 농어목 갈치과의 바닷물고기. 생김새가 기다란 칼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도어(刀魚) 또는 칼치라고 불렀다. 지방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통영 지방에서는 빈쟁이, 전라도에서는 어린 갈치 새끼를 가리켜 풀치라고도 한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11) 재떨이

트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타고빡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두 모르잖어? 하하. 거기서는 또 쓰레받기는 쓰리장판이라고 하지. 우리 섬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말을 어디 가서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은 뒤끝이 좋지 못하고, 똑똑 잡아 띠이고 그래. 또 딸 이름두 깜딴이라구 짓고. 또 우리 마누라 오라버니 이름이 주개. 주걱이라는 말인데 이름이 주개야. 하하. 짝대기란 이름은 우리 마누라 사돈, 작은 아바이 동생인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 병원에 갔더니 짝대기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 근데 분명히 그 병원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3층으루 올라갔더니 짝대기 동생이 순인데, 걔가 거 있드라구. 그러니께 순이가 짝대기라고 말해주니까 박자박이라고 그렇게 적더래.

우리 섬에서는 육지로 나가야 면이 있기 때문에 면에 가서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도 없고 멀기도 멀구 그래. 큰누이 이름은 필순이, 그 다음이 필우, 똘똘이, 내가 필운이. 하하. 우리 할매두 덕적 와서 주민등록증을 맨들어야 하는데 아니, 도민증이구나. 그때 말로 도민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생하구 이렇게 둘이가 섰는데 할마이는 원래 음전이고 동생 이름이 영려야. 하하. 근데 거 이름이 바뀌어 가지구 면에서 도민증이 다 나왔다고 이름을 부르는데, 마누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겠구나 하구 기다리는데 어째 차음전이 안 나오고 차영려가 나오더래. 그걸 그냥 내뿌려뒀더니 그냥 할 수 없이 받아야겠구나 했겠지. 이름을 바꿀 생각두 안 하구 그냥 그대루 쓴 거지. 뭐, 전쟁통에 어수선하구 하니께는 도민증이 뒤죽박죽 했던 거지.

상곳배루 고기를 잡아오믄 천상 칠팔 월에 육젓으로 도랑에다 들여놓으면 그걸 염창독이라고 요만한 독이 있어. 그럼 염창에 가서 멍텅구리배라고 짐 싣는 데다가 이빠이 실어다 놔. 6월 달에. 육젓이라고 잡아 오는 거를 거기다

가 실어다 놓고서는 마포, 한강으로 가서 또 내리지. 덕적으루 와서는 남북이 맥히면서 한강으루 못 댕기니께는 시아우젓 팔러 한강으루 가서 파는데 남북이 맥히니께는 올 수가 없어. 그니까 육지로 육지로 와서 메칠만에 왔다는 이두 나 아는 이가 있어.

(무도리에서 마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김필운 : 무도리에서 마포까지 거리는 바람에 달렸지. 운전대 있는 꽁무니가 있어서 바람이 그 쪽에서 불면은 그냥 바람 대로 가니까 열 시간에 갈 거 다섯 시간에 가고. 그거는 몇 시간을 잡으면 안돼. 바람이 좋으면 한 시간에 갈 수도 있고, 바람이 안 불면 노 저어서 가야 되는데 물이 썰물이 있고 들물이 있잖어. 들물에만 가야지, 썰물에는 못 가. 그래서 시아우젓을 싣고 가다가 갈 수가 없어. 물이 내려오기만 하지, 올라갈 수는 없지. 물이 우로 가야 이 배가 노를 저어 가는데 말야. 하하.

마포에 가서 시아우젓이 좋다구 이렇게 얘길 해야잖어. 근데 이제 질 첨에 조기를 싣구 가든가 젓을 싣구 가든가 싣구 가면은 섬에서 팔아주는 사람이 한 두어 명 나와. 시아우젓도 좋다구 선전을 해야 하지만 조기를 하나 큰 거 들구 선 좋다구 해야 하거든. 시아우젓을 이제 간을 떠놓으니까 관중들이 좋다구 보구 있는데 대변이 거 있어. 몇 십 명이 거 보고 있는데 어떡할 겨. 근데 시아우젓이 아무리 새카맣게 썩었어두 달다 하면은 줄을 서 줄을. 달기만 하면 좋은 거지. 간에 똥오줌 다 들어 가두 그거 먹어서 잘못 됐다는 사람은 못 봤어. 하하.

한국전쟁 때는 배가 마포로 가지 못했지. 원래는 무도리에서 노저어가지고 우도 지나서, 강화도 지나서 마포로 들어갔지. 근데 삼팔선이 만들어지고 나선 못 댕겼지. 거기 가서 시아우젓을 팔다가 난을 당하니께 한 달 동안을 육지로 그냥, 알몸으로 그냥 물어물어 한 달 만에 알몸으로 찾아왔지. 배 놔두고.

(덕적에서 생활하면서의 기억들을 말씀해 주세요.)

김필운 : 덕적 와서 한 건 뭐 배 댕기구 그런 것 밖에 없어. 여수, 부산, 목포로 고기 잡으러 들어가고 했지. 그렇게 댕겼어도 많이 잡으면 뭐 재미가 있었지만, 전라도 댕기면서 집에두 못 오고 처자식두 못 보고 거의 한 달 동안을 육지서 살기도 하고 그랬지. 고향에선 배가 일찍 들어와두 걱정이야. '왜 배가 벌써 들어올까. 야, 많이 잡았으니 들어왔겠지' 하지만 제 날보다 며칠 늦게 와야 많이 잡아 온 건데, 근데 하루 앞서 일찍 들어오면 걱정두 되구 그랬던 거야. 그러면 일찍 들어온 배들은 한 사흘 밤 나흘 밤 밖에서 자구 들어가고 그랬지. 제 물때에 못 잡고 들어왔다가 시꾸미[12]돼서 들어온 배는 집에서 못 자지.

그렇게 내가 육십 한 예닐곱까지 배를 탔어. 연평도에서 덕적도에서 배 댕기고 칠산, 동지나, 남지나 다니면서 동서로 갑판장으로 생활하다가 말년에 선장 한 삼사 년 정도 하고 다시 영자로 있다가 남양부두에서 생활하고 그랬지. 나이 들어서도 더 벌어야 되는데 큰 배는 심이 들어서 못 허겄으니까 남양부두 배루 연안에 댕기다가도 거기서 끝내질 못했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구 지내다가 대청 가서 한 일년 육 개월 살었지. 멸 잡는 일을 했어, 멸. 멸치. 까

12) 배에 필요한 생필품.

나리라고도 하는데, 첨에는 어망 보수하는 사람으루 있다가, 그거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 하거든. 그렇게 일년 정도 있다가 우리 할마시 따라 온 거지. 지금도 아마 연평, 적지로 바투 들어가야 꽃게두 많이 걸리구 그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삼형제 모두 배를 탔는데 우리 삼형제만 (북에)끌려가지 않았지, 다 끌려가서 심사받고 나오거나 못 나오기도 하고.

우리 할마시 오라비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 라인선으로 들어갔다구 잡아다가 가두는 거야. 나중에 할마시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불르다 불르다 마가리타령이라고 선장 앞에서 '이북도 한 민족, 이남도 한 민족인데, 한 나라 한 민족끼리 삼팔선은 왜 갈랐나.' 그 노래를 불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누라 곁에서 좀 있고 싶은데 덕적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다 말다 그날 배 나가야 한다는 거라. 그래가꾸 폭풍 만나 죽은 사람두 많구. 그런데 우리 거첨이란 섬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허니, 한 사람두 죽지 않았다는 거야. 한번은 우리 형님이 태풍을 만났는데 사람 시명 대꾸서 살아온 적이 있어. 우리 거첨이란 섬이 참 그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구. 물결이 그렇게 씌우고, 배가 뜰 때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도 어찌 다들 구조가 됐는데 사람 한 명이 안 죽은 곳은 이 거첨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이거, 말을 댈 줄을 몰라서 그렇지만 이런 말할 사람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없어. 그럼 내 밑으론 이제 다 안 댕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두 모르지, 뭐. 배 얘기두 하나두 모르지.

배 댕기다가 배에서 내려오면 술부터 먹었지, 뭐. 우리 형제들은 술은 좋아해도 노름이니, 이런 건 할 줄 몰랐어. 그렇게 팔랑거릴 줄을 몰랐어. 왜 그랬냐면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랬기 때문에 팔랑거릴 줄을 몰랐지. 형수님 밑에

서, 어머니가 일곱 살적에 돌아가시고 형수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이제, 옷을 한 벌 해 줘두 나는 형수에게 욕을 먹을까봐 구지게 놀질 못했지. 게다가 열시 살 때 형수들하고 밥도 해 먹구 갯바닥에 가서 굴도 잡고 그러다 이제 커서 돈 벌어다 형수님 주니까는 뭐 좋다구 하구. 사람들은 싸움도 하구 우락부락두 하지만 나는 형수님께서 그렇게 잘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서 사람이 커지질 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술은 한잔씩 했지.

덕적에서도 살기 힘들었지. 무도리에서 보다 덕적에서 외려 더 살기가 힘들었어. 집이 한 채 있길 해? 아무것도 없잖어. 그러니께 첨에 와서는 뚝막이라는 게 있어, 뚝막. 거기서 의지하고 살다가 한 이삼 년 있다가 배도 타게 되고 차츰차츰 나아졌지. 그러다가 인천으루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천으루 한 해라두 먼저 건너선 사람은 좀 나아지구 그 뒤떨어져서 온 사람들은 더 나아지질 못하구. 일찍 온 사람들은 배 하나를 먼저 더 장만하구 아이들 공부를 더 시키구 그랬지. 또 나무해야 되지, 여자는. 여자들은 땔나무를 구해 와야 하지. 그거 도둑질해서 베어 와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서 그거 해 와야지, 굴이라도 한 사발 따다가 그거라두 팔아서 천 원이라도 벌어 애들 양말이라두 사야지. 먹고 싶은 걸 못 먹구 살기가 힘들었지, 살기가. 밤엔 호롱불 켜 놓구 아이들 양말 기어줘야 하구, 이 잡아 줘야 하구. 그러다 중간에 채신부라고 들어와 가지구 발전기를 놓구서 저녁이면 이제 불을 켤 수 있었지. 하하.

(연안부두나 인천에 많이 다니셨겠네요. 그때 풍경은 어땠나요?)

차영녀 : 그때 인천은 발전이 잘 안 됐었지요. 살기 힘들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을에만 하루 올라가면은 양념 같은 거 신발두 좀 사 가구. 그리고 중선으로 올라왔다가 객선으로 댕기는 거야요. 객선호는 관광호로 조그맣게 지은 것이야요. 그러면 그걸 타고 내려오지요. 인천 오믄 중앙시장밖에 못 다녀봤어요. 왜 그랬냐면 하루 와서 자고 아이덜 보러 또 가야하니깐. 우리 고모가 피난 와서 중앙시장서 크게 했으니깐, 내 바지도 사 입고, 아이들 양말도 사고 그랬지. 아휴, 그렇게 살아온 걸요. 덕적서.

이제 남북이 막혔으니께

김필운 : 배만 탔으니까 천상 배 댕긴 얘기를 해야겠구만. 바다에 나가서 한 십사 일 동안 있다가 집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다에 나가는 거였지 뭐, 특별한 활동이 없었어.

차영녀 :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십오 일 안 되서 한 십이삼 일 돼서 들어와요. 고기를 좀 시원찮게 잡으면 한 이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하루 이틀 배에 나가 일하다가 다시 한뭇날 두뭇날이면 바다에 나갔다 하는 게 세월이지요.

김필운 : 생각을 해봐. 계속 그런 격이지. 우스운 말로 젊은이들이 바다에 나가고 싶어서 가겠어? 먹고 살기가 바쁜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또 들어와서 고기나 팔고서는 또 나가게 되면 한 십사일, 늦으면 한 십오일 그렇게 있다가 또 집에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 나가구. 뭐 그 생활만 계속 했지. 당시에도

안강망을 탔어. 뽀족배. 인천으로 올라와서는 철선.

그렇게 어디루 간다는 건 정해지지 않았어. 마산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제주도, 목포도 갈 수 있었어. 거리가 멀고 나가게 되믄 반드시 그쪽에서 가까운 디루 들어가야 되구 미리 많이 잡아서 들어오게 되믄 집으루 들어올 때두 있구. 고기는 전라도 내려가서는 칼치를 젤 많이 잡구. 인천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칼치를 젤 많이 잡았다구 봐야 해.

내가 열아홉 살적에 덕적으로 와 가지구 거기서 한 칠팔 년 살다가 인천으로 올라와서 인천서 사는 것이 이제 남북이 막혔으니께 인제 이북 바다엔 못 가거든. 그믄 거기를 못 가면서는 조기가 덜 잽히구, 저 전라도로 가기 시작했지. 첨엔 뽀족배를 가지고 댕기기 시작했어. 그게 점점 개조가 되니까 철선이 생겼지. 그 뽀족배, 선장이 맨발에 15마력 놓고 통통통통 이래면서 댕겼지. 근데 점점 개조되면서 철선이 생긴 거야. 남북이 맥혔어두 덕적이랑 연평에 배를 댕길 적에는 조기가 많이 잡혔지만 아랫녘 전라도루 댕길 때는 칼치가 많이 잡혔지. 흑산도 가는 그 쪽은 24시간이 걸렸지만 현장에 나갈라믄 48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 그니까 인천에서 48시간이 걸렸어. 이틀 동안 꼬박 배 타고 어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배를 댕기거든. 빨리 잡으면은 워낙 칼치가 많으니께 한 삼사 일 걸리구, 갔다가 얼른 팔구서 또 와서 잡을 때가 있어. 그렇게 잡는데 그놈을 씨매가 없이 잡아 나니께는…….(씨를 말린다는 뜻) 그러다가 중국 배를 만나면은 우리는 이따만 한 걸 잡는데 한국 사람들은 요따만한 시아우까지 잡는다고 흉봤다는 말들도 있다구 하더라구. 잡다 보니께는 중국까지 뵈는데 가가지고 나중엔 중국배 한국배 손해를 많이 봤어. 우리들은 큰 배지만은.

인천 올라와서는 철선 타다가 나이 먹으니까 조그만 배 타다가 문화원으로 들어오고 말았으니까 배로 말하자면 퇴직을 한 셈이지.

차영녀 : 라인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도 이북 바다로 가면 다 잡아갔어요. 할아버지 삼형제가 다 선장이었어도 안 잡혀 들어갔어요. 우리 큰오라바이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로 돌아와서 배 타먹고 이제 늙은이들이야요. 나이 먹고 돌아가셨지만.

김필운 : 못 나온 사람들은 못 나왔어.

배를 타다가 그만둔 게 67세 정도까진데 그때까지 중선배, 안강망 어선을 탔어. 열시 살부터 밥 해주는 화장으로 시작을 해서 동사도 했다가 갑판장도 했다 기관장도 했다 선장도 했다 나이 많아서 영자 자리는 그러다가 그해 투망배라고 있지. 문갑산 배니께 안강망보다 조그만 배가 투망배인데 조기가 놀아지니까 투망배를 가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배에서 넘어가지고 그것도 힘드니까 못 댕기고서 연안에 나가서 그물치고 낚시나 하는 남양배에서 더 한 삼년 댕기고서 끝냈지.

일본인이 지은 낙배를 타고서 그 놈이 말하자면 운반선이야. 그게 서울도 가고 마포도 가고 가서 팔고 하는 배거든. 그러다 거기서 잘 되면 안강망으로 갔던 거지. 그 놈을 타서 배 안 타면 해먹을 게 없으니께. 거첨이라는 데가 면은 육지가 있구 우리는 거첨이 분교거든. 한 반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고정도는 배워댔지. 육지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4학년까지 또 배우고. 그러다가 8 · 15가 났지. 나도 한 3학년까진 댕겼어. 그러다 집에 와서 할 게 없으니까

노 젓고 배 타고 그러다 뭐 그게 직업이 된 거지.

첨에 어떻게 했냐믄 우리 형님하구 오 목수라는 사람하고 칙칙이배를 하나 샀어. 고걸 하나 사가지구, 배가 작으니까 얕은 데두 가구. 큰 배들은 얕은 덴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가. 그러고 한 삼년을 그러구 댕겼지. 그러다가 차차 큰 배를 댕겨야 되니까.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우스갯소리

김필운 : 우리 인천에 와서 이사 참 많이 댕겼어. 처음에는 화수동에 살았드랬는데, 애들하고 할매하고. 2년짜릴 얻구 3년짜릴 얻어서 기한이 다 되면 나가야 했지. 이사를 마흔에 와서 일곱 번을 댕겼어. 신기촌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논두렁 밭두렁이 많았는데 좀 살다 들어오면 논두렁 밭두렁이 좀 없드라구. 쌍용아파트 들어앉았지, 쪼그만 아파트 들어앉았지.

당시 주안동이 고때만 해도 뭐 허허벌판이었어. 배를 타고 집에 들어와서 신기촌에 오면 당시 3번 종점이었고 앞에는 5번 종점이었고. 신기촌이 5번 종점이었어. 또 옆에 화장터가 있었고 고 앞에 도자기 공장이 있었어. 이제 생각이 나네. 우리 할매 오라버니를 거서 화장했어. 마흔 살에 들어와서 여기서 벌써 십이 년 됐지.

지금 신동아아파트 들어선 곳은 예전에는 돌산이었지. 거기에 과수원이 있었어. 사과나무도 있고. 지금은 죄다 아파트로 변했지. 예전에 신기촌에는 마누라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장화 없으면 못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그

때는 온통 진흙바닥이드랬지 뭐. 그리구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민회관쯤이 3번 버스 종점이었어. 많이 변했지. 허허 벌판이었지.



차영녀 : 인천에서 올라와 어렵게 살다가 냉동일 많이 댕겼수다. 하인천, 화수동으루. 사는 게 힘드니까 일 많이 댕겼어요. 그러다 이선주[13] 선생 만나서 소리를 하게 됐지. 마흔 살에 신기촌 들어왔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거무당네 집으로 오라고 한다네. 그래 왜 오라고 하냐 했더니 옛날 소리를 한다고 한다는데 큰딸 인숙이가 이제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온 거야요. 고향에서 거 노인네들이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고 거 남편들 배를 떠나보내면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막 결이 치면은 이제 갯바닥에 나가서 웅얼웅얼 하면 이제 소리, 그 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데, 거 기억이 날 것도 없지만서도, 뭐 어떻게 갑자기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지요. 우리 이제 배를 떠나보내고 아들들 다 떠나보내면 그때 뭐 무전이 있나 전화가 있나 뭐가 있나요. 바람이 불면 어디 째꼈다가, 째꼈다는 게 뭐냐면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연장 달고 째꼈다가 날이 좋으면 바다에 나와서 잡고 오믄 살아서 온다는 걸 알

13) 이선주 씨는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장을 역임했고, 인천근해 갯가노래 등을 조사발굴하여 『한국의 민요-인천지역편』등 다수의 인천지역 관련 무속 및 민요집을 편저했다.

았거든요. 그러믄 그동안에 갯바닥에 굴이 많으니께 쪼루 가서 굴 따다가 줍기도 하구. 〈나나니타령〉[14]은 '새연평 꼭대기 실안개만 돌고, 요 내 문턱엔 정든 님만 돈다' 그러고, 〈군음〉[15] 소리는 슬프게 '응~응~ 아이구 바람은 불구 어디루 째꼈나. 째꼈다가 날이 좋아야 나와서 고기나 한 재 잡아 가지고 돌아와야 알지' 하던 소리를 기억나면 하라고 해서 들었던 것을 한 거지.

김필운 : 이제 할매가 그거로 나선 거 아냐. 그거로 이제 뱅신이 돼있는데 인제 3호 소리[16]를 맨들어 놨어, 3호. 뱃감노래, 뱃노래라는 것을 할매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선주 선생이 그러면은 고향의 거 그전에 듣던 것 있으면 한 가지 더 맨들어보자 해갖고 연줄연줄 하러 가면 되갔다 해서 할매가 5호 소리[17]를 만들어놨어. 그래갖구 두 가지를 다 못하겠으니까 영감은 뭐하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 탄다고 하니까. 그럼 영감 몇 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배를 타냐 하니까. 그때는 인제 그때만 해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이 적으니까 뭐 돈을 줘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그것 가지고 장식할 수 있을려나 그래. 내가 저 이선주가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5호 지분으로 처음엔 들어가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후보까지 되긴 했는데…….

---

14) 인천의 용유도, 덕적, 장봉, 백령도와 연평도에 이르기까지 어촌 부녀자들이 부르던 노래로 새연평소리, 나이나타령이라고 하는 지방도 있다. 물장고에 맞추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시어머니 · 시누이 · 며느리 · 어머니와 딸의 구분 없이 여성으로의 일체감으로 묶여지며 남성들은 간섭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한국의 민요-인천지역 편』(이선주, 민속원, 1996), 114쪽 참고

15) 인천의 용유도, 덕적 등 옹진 앞바다의 섬에서 갯가에서 일하며 부르던 노래 중의 하나다. 궁시렁거리며 부르는 소리라 하여 군음이라고 한다. 밭에서 김을 맬 때나 썰물 때 갯벌에서 조개를 캘 때, 또는 굴을 쪼면서 불렀다. - 위와 같은 책, 110쪽 참고

16) 인천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를 일컫는다.

17) 인천무형문화재 제5호 주대소리를 일컫는다.

차영녀 : 배 나갔다 들어오면 또 나오란 날은 나오라 해서 나가서 소리 좀 해 보라고 하면 배치기도 하고 또 5호 소리 잡고 했지요. 주대소리[18]는 거첨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갯바닥에 나가 응얼응얼 하던 소리

김필운 : 물 가운데다가 창 씌워 놓고 고기 담는 거. 이거는 어디 섬에도 없는 거야. 인제 연평이고 어디고 아무리 고것 작아도 물 가운데 창 씌워두고 잡아 묵는 건 우리 거첨밖에 없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거첨이 좀 유명해. 박사가 들어섰지. 허허.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내가 5호를 받아야 하는데. 임영래[19]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월 들겟[20]은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은 뿐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글로나 봐가지고.

차영녀 : 이제 그 양반도. 임영래라는 사람이 상쇠로 들어왔거든. 그 사람이 후보로 떨어지고 우리 영감이 배치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전에도 이 여자라두 5호 역할을 했지요. 난 가만 있는 것만 못 하죠.

---

18) 어부들은 바다에서 조업할 때 사용하는 닻줄, 앙금줄, 아메줄, 버리줄 등 여러 종류의 줄을 늘 손질하고 꼬아야 한다. 그 중에서 닻줄은 굵고 질겨야 하므로 칡덩굴을 소재로 하며, 칡덩굴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도구도 필요하다. 인천 근해에서는 이 도구들을 모두 주대틀이라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줄을 꼬는 일을 주대질 또는 주대일이라 하고, 이때 부르는 노래를 주대소리라 한다.

19) 인천무형문화재 제5호 풍물(상쇠) 준보유자

20) 들게소리



김필운 : 줄 꼴 때 하는 소리가 주대소리야. 배가 출어하려면 줄이 있어야 해. 닻줄도 있어야 하고 버리줄도 있어야 하고 모든 줄이 있어야 되니까. 줄을 꼬기 위해서 주대소리라고 이름을 붙였어. 줄 꼬는 거 병판[21]으로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이제 줄을 꼬는 거지.

차영녀 : 그게 우리 기술로, 어허라디엿다 어허라디야 하는 소절 밖에 없었는데. 이선주 선생님이 알타령이라던지 들을 거세, 들을 거세 거기다 새겨 놨죠?

김필운 : 이게 소리가 가볍게 잡아당기는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무겁게 하는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룻배가 노를 저어갈 적에 하는 소리,

21) 줄 꼬는 데 쓰이는 도구

밭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 그게 각각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차영녀 : 우리 고향에 할배가 욕질을, 사람 실려 가면, 할아배가 노를 젓는데. 섬에 알이 많으니까 (할머니 노래) '섬에 가면 알 좀 사나 알만 사나 조개 두 사지 조개만 사나 민알두 사지 민알만 사나 맛살두 사지 조개만 사나 불알 두 사지 불알을 왜 사나 공알을 사야지' 쌍소리를 전부하니까 일하다가 가만히 듣는 우리 촌사람들이 곡식을 배로 바꿔갈려고 배 안에 가만히 있으니 이 할아배가 참 이상하게 소리를 하거든. 촌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말한 거고. 우리 동네 할아배니까, 되게 큰할아바이거든요. 할아바이 어렸을 때를 이렇게 보았다나. 그건 아주 웃겼어요. 그걸 노를 저으면서 앞에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걸 이야기를 이선주 선생한테 딱 해 드렸지.



김필운 : 내가 소리 질러야 내가 소리 안내면 안돼요. 한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주고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 그냥 악을 쓰고, 재미가 안나요.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갯가노래, 뱃노래. 우리 5호 소리는 누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해 가져가서 싣고 그랬어.

차영녀 : 이선주 선생님이 무용으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올해 공연을 놀았는데 참 멋있어요.

김필운 : 우리 거첨이 무슨 소리로 유명했냐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물 가운데 창 세워놓고 물 가운데 낙태 세워놓고 거기다 그물을 매놨어요. 그것이 유명했다고.

차영녀 : 내가 3호 소리를 맨들어 놨을 때, 이선주 선생이 맨들었을 때. 내가 소리를 하면 배가 노를 저어서 쓱 돌아갔을 때 쟁기를 주면 내가 고놈소리를 하지. 고놈소리를 녹음을 하면 한 이십분 듣거든요. 주고받고 하면. 그걸 어드네까지 부르라고 하면, 내가 부르고, 대사가 쟁기를 긁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 기를 다 퍼 싣구서. 그때 내가 말하는 소리, 나 며칠 한 이레 주고받고 하면 한 참 되지 않았을 땐 노 저어서 한양으로 들어가면 나도 끝이고. 그래서 그딴 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배치기는 안 해도 따로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선생님인지 역할을 하는데 노 저어 나가는 것도. 이렇게 나가는데 5호는 뱃소리가 없고, 주대를 보기 때문에요. 줄을 꼬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혀라 자차. 어혀라 디야. 그리고 세침이라고, 또 세 가닥을 합치거든요. 세침하는 소리도 했어요.

김필운 : 우리 할매하고 나하고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해준다면, 정확한 게 이걸 갔다 붙들어도 누가 안 좋아하겠어.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녹음을 하면 임영래라는 회장이 이걸 녹음하러 오면은, 말하자면 맨입으

로는 안한다 이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없으면 우리 이 소리를 못 내요. 자랑이 아니라 인제 소리하던 두 아낙네가 다 돌아가시고. 맨들기는 이 할매가 맨들어 놓고, 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불려 다니는데, 이선주 선생이 두 사람 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영감은 뭐하냐 하니까, 배생이라고 하니까. 좋다, 통장을 만들어 줬어. 교수하고 선생하고 시험보구서 '너희는 천상 연분이다' 그래서 시험보구서 나를 조교로 만들어 주더라구. 조교로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 후보로 올라갔어.

차영녀 : 이렇게 해야 해요(노래를 잠시 흥얼거린다).

김필운 : 그거 하게 되면은 처음서부터 불러야 하거든.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저 남해 타령은 말고. 이게 설명을 하고 해야 해. 이거 알타령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납사궁이 있어요. 나룻배가 있는데 육지나 섬사람들이 고기를 말려서 육지로 나가야 쌀로 바꿔오고 곡식 바꾸는데. 고기서 못을 알아 붙여서 나룻 사공이 섬에 들어가면 '알 좀 살 수 있나요?' 하니까 나룻사공이 못을 붙여가지고 '암, 사다마다요. 불알도 사시오. 보고 좀 가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거 노가 어떻게 됐냐면 저기서 오는데 노가 이렇게 돼있어야 해. 그럼 대는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꽁무니로 이렇게 이렇게. 어허라디야 하면서 할아버지가 '알만 사나? 기내 알도 사지.' 막 할머니한테.

그물을 뜷기 위해서, 가는 줄을 꼬아야 그물을 뜷지. 줄은 굵게 꼬아야 되는 거, 이 안강망이라는 것은 가늘어두 안 돼지. 칡을 육지에다 맡겨 두면은 그거 실어다가는 물에다 다 갔다 놓고. 아름다리 허벅지 만하게 줄을 꼬아야 해.

차영녀, 김필운 : (알타령[22]을 부른다)

받는 소리: 김필운

섬에 가면 알 좀 사나요
어기야 디야
어야 디야
어여차 디야
어여차 디야
어야 디여차
어야 디여차
어기야 디야
어야 디야
(이하, 받는 소리 생략)

메기는 소리: 차영녀

알만 사나 민알도 사지

22) 보통 공알타령이라 한다. 이선주의『한국의 민요-인천지역 편』(민속원, 1996)에는 자우소리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배를 저을 때 부르는 것이다. 자우질을 할 때나 배를 저을 때, 갯일을 할 때, 그물 일을 할 때 흔히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성기를 익살스럽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

민알만 사나 조기알도 사지
조기알만 사나 불알도 사지
불알을 왜 사나 공알을 사야지
공알도 가지가질세
어디 한번 셈겨나 보세나
새빨갛구나 앵두 공알
새파랗다 청파 공알
팔랑 떴구나 댕기 공알
아궁 앞에는 발린 공알
시렁 위에는 얹힌 공알
발딱하구나 대접 공알
납작하구나 접시 공알
음묵하구나 주발 공알
암팡맞다 종지 공알
장대 끝에는 늘어진 공알
싹싹 쓸어서 빗자루 공알
흠침질에 걸레 공알
독수공방 궁상 공알
갱궁 건너서 쌜쭉 공알
일월영춘에 짝짝이 공알
언덕밭에는 씰그러진 공알
장대 끝에는 걸린 공알

둘둘 말아서 멍석 공알
활짝 폈구나 부채 공알
밤콩밭에 왕방울 공알
수수밭에 붉은 공알
쿡쿡 찔러서 보리 공알
목화밭에 펑퍼진 공알
감자밭에 혹 달린 공알
옥수수밭에 달짝지근 공알
공알 서 되로 모를 붓고
좆대 활량이 댕겨가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갯가 공알로 어서 가자
꽉 물었구나 조개 공알
톡톡 쏘누나 해파리 공알
휘감았구나 낙지 공알
쪽 빨았다 거머리 공알
미끌미끌 장어 공알
쌩도라졌다 가재미 공알
죽고 못 살아 소라 공알
요리조리 미꾸리 공알
정신없다 송사리 공알
물만 나오는 샘물 공알

복상사 무서운 갯벌 공알
이 공알 저 조개 다 던져두고
내 집 공알이 제일일세
우리 집 공알은 사리때 마둥
치마춤 잡구서 발발 떤단다
무심만 되면 공알 새가
다 빨아먹고 빈 좆대만 남았구나
자 다 왔소 내리슈

차영녀 : 하하하. 이선주 선생이 시켜서 나는 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일수록 하지 말라고 하고 배운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듣더니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김필운 : 뱃소리는 받는 사람이 있고 메기는 사람이 있어야는데 내가 메기는 소리는 하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 뱃소리는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김필운 차영녀 : (주대소리 한다)

줄을 꼬세 줄을 꼬세(차영녀 할머니가 '어야 디야' 하고 받는 소리를 한다)
힘을 주어서 오디게 꼽시다(어야 디엿다 잘도 간다)
우리배 동사들 근력이 좋아서(어야 디야)
닻줄 버릿줄 잘들도 꼬누나

김필운 : 또 이런 거 있다고.

연평바다에 깔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보잖다
(김필운, 차영녀 같이 소리한다)
어야 어어야 오오 어어이야 오오

내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김필운 : 내가 배우지는 못했어두 배는 말단이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회한 같은 거는 없어. 젊어서 군대갈 적에는 뭐 어차피 군대 갔다 와선 배 안 탄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배우지 못했으니 어디 취직할 때가 없잖어. 근데 배만 탔다 하면 쌀 시가마니씩 줬단 말이야. 그땐 최고였지. 돈두 그땐 돈 거래가 없구 은행에두 저축 같은 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사는 거 하나 뿐이었지, 저축이 없었어. 우리 삼형제가 배를 댕겼으니까 배 부리는 거보다 나았지. 덕적으로 와서두 저축하는게 없었어. 먹고 사는 게 시급했으니께.

차영녀 : 그래도 배 타서 아이들 키우고 했지요. 큰딸 이름은 김인숙이구, 나이가 이제 쉰둘. 아들이 이제 마흔아홉이야. 이름은 김기복이야. 그담에 딸이 마흔여섯, 김이쁜이. 막내아들이 마흔네 살이고 김기동.

큰딸은 성남서 괜찮게 살아요. 큰아들은 좀 벌러 댕기다가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실속을 못 채리구 좀 떨어지게 됐어요. 공부를 이제 다 중핵교를 덕적서 나오고 큰아들하고 큰딸하고 나오고 이제 요거 이쁜이하고 기동이하고는 이제 그걸 못 갈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인천을 올라온 거야요. 마흔 살에. 그래서 이제 이쁜이는 고등핵교를 나오고 이제 막내아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한다는데. 나넌 몰르지만. 대핵교를 들어갈려구 이루 말 할 수가 없죠 뭐.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하고. 도서관에도 댕기고.

(자식들한텐 해 줄 말을 묻자)

김필운 : 에이, 그런 거 없어. 하하. 큰딸은 그냥 그렇게 사니까 잘 사는 것 같구, 큰아들은 지가 조금 그래 가지구 나하구 떨어지게 돼서 좀 그렇지. 벌기는 잘 버는데……. 장가를 가라니까 그렇게 못 가구. 술을 그렇게 좋아해 가지구. 애가 똑똑칠 못해서 그래. 그게 아쉽지 뭐.

차영녀 : 안 된 자슥은 뭐 어떡하겠나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김필운 : 이 나이에 뭐 꿈이 있어. 허허. 우리 할마시는 보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콩나물 대가리. 이걸, 글을 하나두 몰라. 나두 모르지만은 이것만 알았어두 누구 부럽지 않게 살 뻔했어. 그랬으면 나 같은 사람한

테 시집오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누구 부럽지 않게 살 뻔했는데. 거첨에선 부모들이 바람난다고 핵교를 보내지 않았어. 바람난다고. 그러다 8 · 15 해방되니까 그 저, 일본글 배워다 야학 배우는 거 있지? 난파선이라고 그걸 닦아갖고, 한 오십 난 사람들한테 열다섯 살 먹은 아이가 와서 얼마나 글을 배우고 싶었으면. 그래서 한 일주일정도 배우니까 해방이 되고 말아.

(배를 타면서 마음에 있는 회한들은?)

김필운 : 그런 것도 몰랐지. 배를 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께. 누구나 뱃사람이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 한 삼일 동안 있다가 일을 하면서도 삼일 동안 나가 있으니께. 술 먹고 나가서, 이젠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만큼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못했어. 형한테 얹혀살았을 화장질을 했어도 일등으로 벌었었는데 이제 내 살림 되니께 돈이 불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았지.

이건 우스운 말이지만 저 할마시로썬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데 형들, 오빠, 나하고 같이 다니는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라믄 야, 필운이 게 얌전하더라. 나는 필운이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오빠들이 그랬어요. 오빠들이 나한테 보내준 거나 다름없지.

내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이제는 뭐 한번이나 고향 거첨에 가서 써억 둘러보고 싶어. 그게 소원이라면 내 마지막 소원이지.

인천근해 갯가노래

나나니타령

〈받는 소리〉
나나나나 사니로다
아니 놀고 뭘 할쏘냐

〈메기는 소리〉
새끼나 백발은 쓸 곳이 많고
인간의 백발은 쓸 곳이 없네
나나나나 사니로다 아니 놀고 뭘 할쏘냐
뒷강에 뜬 배는 낚시질 배요
앞강에 뜬 배는 나를 실을 배라
나나나나 사니로다 아니 놀고 뭘 할쏘냐
나를 실러 올 적엔 반돛을 달고
나를 싣고 갈 적엔 꼬작끝 달아라
나나나나 사니로다 아니 놀고 뭘 할쏘냐
시집살이 못하면 단가살이 할망정
술 담배 아니 먹고는 나는 못살겠네
나나나나 사니로다 아니 놀고 뭘 할쏘냐

뒷동산의 할미꽃은 늙으나 젊으나
꼬부라만 졌네
(이하 받는 소리 생략)
바다의 물결은 때맞춰 일고
정든 임 생각은 때 없이 나네
아주까리 동백아 열리지 마라
이팔청춘 다 늙는다
우리네 서방은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천길만길 뚝 떨어져 살아도
유정님 떨어져는 못 살겠네
으스름 달밤에 머리수건 쓴 년은
도둑년이 아니면 화냥년이로구나
밥 먹기 싫은 건 두었다가 먹지만
님 보기 싫은 건 하루일시도 보기 싫어
앞산 밭에다 깨를 한줌 뿌렸더니
깬죽깬죽 시뉘 잡년
시뉘 잡년이 뒤지면 아랫목 차지는 내 차지요
시애비 잡놈이 거꾸러지면 광 열쇠 몽땅 내 차지
못 살고 잘 사는 건 내 분복이요
정들이고 못 사는 건 화류계 여자
날 데려 가려마 날 데려 가려마

한양낭군아 날 데려 가려마
님이란 건 탄탄 남인데
밥 먹다 졸아도 정든 님 생각
으스름 달밤에 삿갓을 쓴 놈은
도적놈이 아니면 유부녀 볼 놈이로다
연평도 물이 마르면 말랐지
내 주머니 돈이 마르랴
나물 캐러 간다더니 총각낭군 무덤에
삼우제만 지내네
새벽동자를 하라면 바가지쌈만 붙이고
물 길러 가라면 엉덩춤만 춘다
새연평 꼭대기 실안개 펄펄 돌고
우리네 문턱엔 정님만 돈다
오리발의 웬수는 고슴도치가 웬수고
우리네 웬수는 백년이 웬수로다
백년을 살자고 백년초를 심었더니
백년초가 못 되고 이별초가 되었네
잘 살라고 할 적에는 보리동냥을 갔는지
개딱지 타고서 낚시질을 갔네
앞산 밭에다 외콩을 뿌렸더니
외틀비틀 시뉘 잡년
뱃사람의 임은 못 새겨 둘 거지

정들만 하면 닻 감아 매네
새연평산은 칙산이요
연평산은 춤산이로다
장산곶 마루에 실안개 펄펄 돌고
우리 집 문턱에 내 아들만 돈다
우리 부모님 뫼에는 홍두깨꽃이 피었는지
우리 삼 동서 떼난봉 났구나
잘사는 시집살이 왜 못 살게 하고
뒷감당 못할 걸 왜 시작했나
소대섭 색시들은 잔디풀 캐기가 일쑤구[23]
육거첨 색시들은 배불림하기가 예사라[24]
강화의 색시는 새침떼기가 예사구
인천의 색시는 삐죽거리기 일쑤라
가막게 색시는 얼마나 쩍쩍하던지
밥주먹 쥐고서 민어금치가 예사라
물 먹고 싶은 건 참을 수나 있지
정든 님 생각은 그칠 날이 없네
일구나 월심에 그리던 님을

---

23) 소대섭이라는 섬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땔감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 한다. 땔감에 보태기 위해서 여인들이 풀을 많이 베어서 잡초까지 귀해지자 풀뿌리까지 캐서 썼다 한다.

24) 육거첨에는 3대 4대 과부가 많았다. 섬의 뒤쪽 갯가에서 해초 등을 채취하던 아낙이 근처를 항해하는 배를 향하여 머리수건을 흔들면 여인네의 마음을 알아차린 선원이 선박을 갯가에 댄다. 마을 사람들의 묵계 하에 이렇게 해서 자녀를 두는 여인이 종종 있었다 한다. 배를 부른다 또는 과수댁의 배가 불러온다하여 배불림이라고 하였다 한다.

어느 시절에 다시 만나 하소연을 할까
네가 나만큼 사랑을 한다면
가시덩굴 속에라도 날 찾아오게
사랑에 겨워서 등을 슬쩍 밀었더니
가고영절에 무소식이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나를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나비 없는 산에 꽃은 피어 뭘 하나
님 없는 방안에 불은 밝혀 뭘하나
심난심난 구심난에 친정 오라버님
왜 왔다 가나
오동남 열매는 옹톨옹톨 하구요
처녀의 가슴은 몽실몽실 하네
답답한 안개는 꼈다가도 벗건만
답답한 내 속은 언제나 벗으랴
우수나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내 가슴이 풀리네
장독 밑에다 더덕을 한 줌 심었더니
더덕더덕 내 동생아
열라는 콩밭은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리나
살림살이 하려니 바가지 한 짝이 없구요

도망질 하려니 가시는 임이 없구나
님이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느냐
고달파라 인생살이 한도 많으네
쓸쓸한 동풍에 궂은비만 내리고
시하나 연풍에 임 만나 노세
하늬 사랑은 솔방을 사랑인지
정들만 하면 떨어지고 마네
산에나 올라가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다
처녀마다 시집을 간다면
기생될 이가 어디 있느냐
들창 밖에 내리는 비는
가신 님들의 눈물이다
사랑 사랑하길래 무엇이 사랑인가 했더니
한품에 들고 보니 요것이 사랑이더라
병신의 종자가 또 따로 있나
한팔한팔 절면 병신의 종자지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시골 큰애기 난봉난다
내 머리 석 자 내 댕기 석 자
이바우 저바우 다 뜯기네
살림살이는 될지 말지 한데

호박에 박넝쿨 울 넘어드네
서산 낙조는 내일 아침 다시 뜨건만
한번 가신 서방님은 언제 다시 오시려나
세월이 가겠으면 저 혼자 가지
우리 부모는 왜 다 데려가나
저 건너 계집이 얼마나 좋길래
날 두고 저렇게 바삐 가나
영출 나오네 영출 나오네
해산 곁으로 영출 나오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우리 둘이가 요렇게 좋을 줄 나는 몰랐네

* 바닷가 아낙네들이 물바가지장단을 치고 놀면서 하는 노래. 소연평도에서 많이 불렀다 하여 '소연평수심가' 또는 '쇠평수심가' 라고도 한다. 전라도지방의 '둥당애타령' 에 비할 수 있는 경기 · 황해도 바닷가 아낙네들의 유흥요다. 원래는 앞소리를 돌아가며 메기며 장단이 훨씬 느리다. 노랫말은 주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남녀간의 애정표현이다.

군음

〈받는 소리〉

응 으응 왜 생겼나

〈메기는 소리〉
심난 심난 구심난한데 오라버님 오셨구랴
응 으응 왜 생겼나
일점혈육 사춘오라버니 내 서름을 들어보소
응 으응 왜 생겼나
초세 살에 어머니 잃고 초다섯에 아버지 잃고
응 으응 왜 생겼나
초일곱에 삼춘집에 얹혔더니
응 으응 왜 생겼나
밥이라고 주는 것이 알강조밥에
(이하 받는 소리 생략)
국이라고 주는 것은 구대기 둥둥 뜨는 된장국이요
동지섣달 설한풍에 쥐구녁에 눈 드릴 적
삼베 것이 웬 말이냐 겉발 벗고 살았구나
그럭저럭 먹은 것이 초아홉이 되었구나
허구헌날 밭두덕에 갯바닥에 내몰더니
웬수로다 웬수로다 알락조개가 웬수로다
떠내려가네 떠내려가네 내가 떠내려가네
한자세치 내 머리칼 갈기갈기 헤쳐지며
배꽃같은 흰 살결은 바위마다 부딪혀서

갈기갈기 찢어지네 양치기배에 건져져서
이집 저집 안잠배기 그럭저럭 먹은 것이
삼오십오 열다섯에 중신에미 들락날락
시집이라 들어가니 게딱지로 쏟을 걸고
명아주뿌리로 불붙이고 바가지 한 쌍 없구나
외틀비틀 시미잡년 깬죽깬죽 시뉘잡년
범난골에 다 잡아 둘이랐더니
이구십팔 열여덟에 홀과수가 웬 말이냐
서방 죽고 내가 살던 열녀가 되는가요
애구애구 내 팔자야 애구애구 내 팔자야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나는 못 살겠네
한번 가신 우리 님은 돌아올 줄 모르고
꿈속에만 오락가락 애간장을 태우누나
대동터의 소뼉다귀 털이 나면 오시나요
평풍 안에 그린 닭이 꼭꼬하면 오시려나
시렁 아래 삶은 개가 뚜껑 열고 멍멍하면 오시려나
산이 높아 못 오시나 물이 깊어 못 오시나
산이 높아 못 오시면 말을 타고 오시지요
물이 깊어 못 오시면 배를 타고 오시지요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나는 못 살겠네
우리 님 보고파서 나는 못 살겠네

바디[25]소리

〈받는 소리〉

어야 바디야

어야 어어야

〈메기는 소리〉

어여차 바디야

어여 어여차

이 바디가 뉘 바디냐

어야 바디야

이 선주네 복바디란다

어여차 바디야

임 장군님 귀히 모셔

(이하 받는 소리 생략)

썰물에두 천여 동이요

들물에두 만여 동이요

테질마다 금덩이 나오네

어야 바디야

우리네 동사 근력이 좋아서

양주만 남기구 다 퍼다 실어라

나가는 길엔 깃발 속에

---

25) 그물에 둘러싸인 조기를 배에 퍼 담는 도구. '테' 라고도 한다.

들오는 길엔 꽃밭 속에
가지가지 오색꽃에
명지필은 통삼에 두루구
삼칠 이십일 중동에 발랐다
어야 바디야
모진 광풍은 내불리구
명지바람은 드려불어라
한술 두술 듬뿍 뜨니
우리 배 장원일세
들물에두 석동이요
썰물에두 석동일세
단테 질루나 퍽퍽 뜨세나
어기여 디여
양반님네 김칫국 떠먹듯
덤백 덤백 잘도나 뜬다
어기여 디여 어야 디여라
민어두 올라오고
조기두 올라오고
조기두 올라온다
어야 디여라
골창열게
시참까지 떠야겠네

오늘두 만선이로구나

* 그물에 잡힌 고기를 퍼내는 어구의 일종을 바디, 또는 테라고 한다. 이 바디질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바디소리, 또는 테질소리라고 한다. 그물 안에 든 고기를 퍼내기 위해 불매줄을 풀어 그물의 하단을 두세 사람이 벌려서 잡고 있으면 바디로 고기를 퍼내어 삼태기로 받아서 이물칸 또는 고물칸에 쏟아 넣기도 하고, 바디질로 뱃간에 부려놓고 고기의 종류를 나누어 숫자를 셈한 뒤에 각각 칸에 밀어 넣기도 한다. 전자는 단일종만 잡혔을 경우이고 후자는 두어 종류의 고기가 섞여서 잡혔을 때다.

주대소리(줄 놓는 소리)

〈받는 소리〉

어여차 영차

어야디야

어여 어화이

〈메기는 소리〉

줄을 꼬세 줄을 꼬세

힘을 주어 오디게 꼽시다

우리 배 동사님들 근력이 좋아서

닻줄 버릿줄 잘들도 꼬누나
영자님이 늘인 줄은 뻘조기살에 멕일 줄일세
고물사공님이 늘인 줄은 유지사리[26]에 멕일 줄이고
이자[27]님이 늘인 줄은 백중사리[28]에 멕일 줄일세
가는 것은 고물[29] 줄이고 굵은 것은 이물[30] 줄일세
이불 속의 노 젖는 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주대 꼼새도 썩 잘하누나
이 닻줄을 감아 메고 조기 생일에 도장원을 해 보세나
선사리 족사리 다 먹어보세
여보게나 이 사람아
몽실몽실 처녀 가슴 더듬듯이 하지 말게
똥줄이 쭉 빠지도록 힘을 주어 꼬아보세
우리 배 임자 아주머니 새참 주니에 진동걸음
애야 애야 화장애야 주대질은 잘도 한다만
네 손맛에 신물난다 오늘부터 군침 돌아
배꼽눈이 툭 터지게 됐다 두 팔뚝을 걷어부쳐라
이번 행부에 도장원하면 달덩이 같은 내 마누라
치매 한 감 끊어주꾸 별덩이 같은 농월이 년은

---

26) 한사리라 하여 바닷물이 많이 밀고 쓰는 사리를 말한다. 큰달의 보름, 그믐사리로 정월보름사리, 소만사라, 유지사리, 백중사리, 시월막사리, 섣달그믐사리가 있다.
27) 영자 다음의 연장자 선원
28) 음력 칠월 보름 백중날에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를 말한다.
29) 배의 뒤쪽
30) 배의 앞부분

말굴래 같은 은가락지다 한물거리에 천여동이요
두물거리에 만여 동[31]이라 주대질하기가 재미가 난다
배 임자님께 금이 가면 우리에겐 은이 오고
배 임자님께 보화가 가면 우리에겐 금이 온다

* 주대소리는 노동요로서 어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줄을 만들 때 부르던 노래이다. 배에서 쓰는 줄은 용도에 따라 앙금줄, 아메줄, 닻줄, 버릿줄 등이 있는데 특히 닻줄은 길면서도 굵고 질겨야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매우 힘겨웠으며 집단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노래가 생겨났다.

주대소리의 내용은 나무타령, 자우소리, 줄 놓는 소리, 꼼새소리, 순레소리, 채짓는 소리, 여사소리, 사리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타령은 건축 · 조선(造船) · 농기구 등에 쓰일 재목을 벨 때 부르는 소리이다. 자우소리는 자우틀이란 문래의 일종으로 허술하게 꼬여진 줄을 자우틀에 걸고 줄을 잡아 늦추고 당기며 문래를 돌려 단단하게 꼬는 일을 자우질이라 하고, 이 때 부르는 소리가 자우소리다. 줄 놓는 소리는 그다지 굵지 않은 세 가닥의 줄을 꼬아 나갈 때 부르는 소리이다. 꼼새소리는 세가닥의 줄을 더욱 단단하게 꼬는 동시에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인데 뒷손치기 또는 줄비소리라고도 한다. 순레소리는 꼼새로 수평이 된 3개의 줄을 한 개의 굵은 줄로 꼴 때 부르는 소리이다. 여사소리는 술레질로 굵게 꼬여진 줄에 가는 줄로 돌돌 말아 나가는 과정이며 여사란 옷을 뜻하기에 굵은 줄에 옷을 입힌다는 뜻이 된다. 채짓는 소리는 3개의 줄이 한 개의 굵은 줄로 꼬이는 끝 부분에서 세 사람이 한 가닥씩 잡고 서로

31) 한 동은 생선 1,000마리다. 만여 동이면 천만 마리 정도가 된다.

주고받아 한 개의 줄로 마무리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사리소리는 완성된 줄을 둥글게 포개 사릴 때 부르는 소리이다.

시선뱃노래(노 젓는 소리)

〈받는 소리〉
어기야 디여
두루나
어여차 디여찰다

〈메기는 소리〉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빨리 저어라 어야디야
손길 맞춰 빨리 저어
두루나
저 배보다 먼저 가세
어기야 디여
어기야 어허 두루나
돈 실러 가네 돈 실러 가네
한양 마포에 돈 실러 가네
어야디여 어여차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이하 받는 소리 생략)
화장애야 밥 지어라
배고파서 노 못 젓겄다
아이아범아 빨리 저어라
마포장을 얼른 보구
마루라두 자식들두 봐야겠다
먹는 것은 사자밥이요
자는 곳은 칠성판이라
이놈의 바람은 왜 안 부느냐
바람이 불어야 노를 안 젓지
에이야 에이허
손바닥이 다 부르텃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비단이불을 피어 놓구
창포밭에 금잉어 놀 듯
굼실굼실 잘도 노는데
내 신세는 어이하여
칠성판을 떠메고 다니나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딸이 있거든 사위나 삼으쇼

아이야 그렇구 말구
보리밭에서 어어이 김만 메네
딸은 하나 있다마는
나이가 어려서 못 삼겠네
아이구 어머니 그 말 마우
참새는 작아두 알만 까구
제비는 작아두 강남을 가요
인제 가면 언제 오시나
오시는 날짜를 일러주오
가다가 긴 한숨쉬면
나는 다시 오리라
일락서산 해는 떨어지구
월출동녘에 달이 솟는다
선돌목을 지났으니
조광포에서 한숨 쉬세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 싶어 지는가
님을 두구 떠나는 나는
가구 싶어 가나
달은 밝구 명랑한데
집 생각이 절로 난다
강비탈에 사는 처녀

노 젓는 소리에 놀라 깬다
저 넘어 술집에 불빛이 뵈누나
아버지 눈엔 술집만 뵙니까
빨리 저어서 어서 가자
저 달 지면 물참되니
어여차 디여차 노 젓는 소리에
단잠을 못 자구 깨어 보니
노 젓는 소리가 처량하여
늙은 과부 맘 심난하구
소년 과수는 단 봇짐싼다
사귀지 못할 친구는
뱃놈의 친구요
정들만 하면은 뒤 보듯 띠어 놓구
뚝 떠나간다
달은 밝구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아야범아 빨리 저어라
행주참이 늦어 간다
돈 실러 가네 돈 실러 가네
한양 마포에 돈 실러 가세
날은 궂어 비바람 치는데
도롱이마저 한 잎 없네

에헤에 어서 가서
허이야어 막걸리 먹자
말걸리두 좋지만은
마누라두 봐야겠네
집 떠난 지가 여러 날 되어서
처자식 생각이 간절하네
자네 말이 옳은 말일세
서울 마포 들어가서
좌정이나 하세 어이야

* 시선(柴船)이란 강화도 근처에서 부터 서울 마포나루까지 한강을 통하여 각종 물자를 실어 나르던 배를 말한다. 이런 배들은 땔나무(柴)를 비롯해 소금, 생선, 새우젓 등의 해산물을 마포로 실어 나르고 대신 내륙에서 나는 곡식이나 잡화를 바닷가로 실어 날랐다. 마포나루는 수십 척의 운반선들로 늘 북적거리던 곳이었다. 시선뱃노래는 그러한 운반선에서 일했던 고달픈 뱃사람들의 애환을 풀었던 노동요이다.

봉구미타령

들렀다가게나 들렀다가게나
봉구미 귀안포 들렀다가게나

바람세 좋다고 돛 달지 말고
봉구미 귀안포 들렀다가게나

갈 길은 멀구요 행신은 더디니
늦바람 나고 성환이 조른다

명월은 밝구요 명랑은 한데요
고향산천에 처자가 그립네

망망한 대해에 일엽은 편준데
칠성판 떼메구 석어[32]를 낚는다

우수나 경첩이 썩 달아났다구
늦바람 불더니 반찬[33]이 없구나

가잔다 가잔다 만뱃등 하구서
서둘러 가잔다 내 고향 산천에

봉구미 귀안포에 들렀다 가게나
바람세 좋다구 돛 놓지 말구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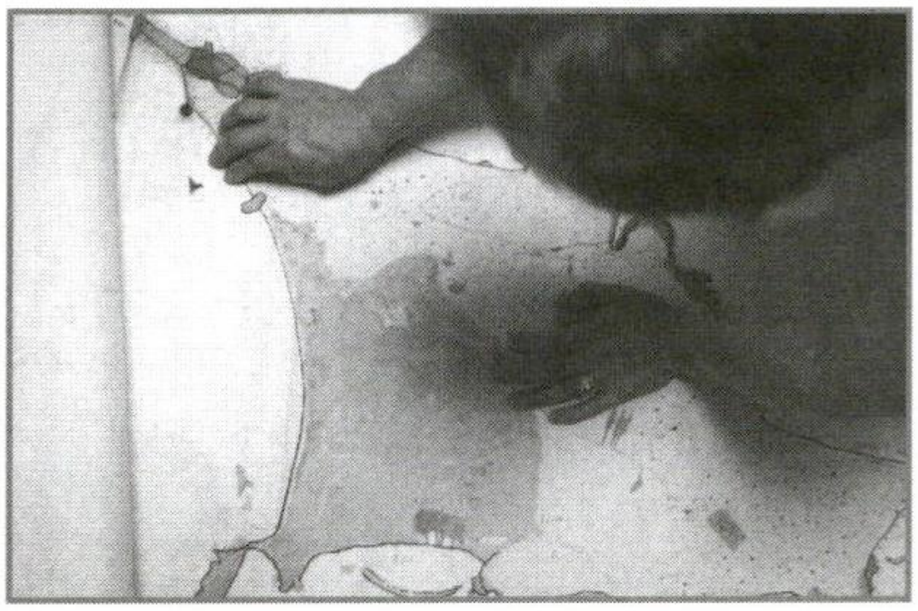
32) 조기
33) 생선

* 한밤중에 보초 당번이 된 어부가 쏟아지는 잠을 몰아내기 위해 철썩거리는 파도소리를 장단 삼아 달을 쳐다보며 불렀다는 노래다. 봉구미타령은 물보초소리라고도 하며 어부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집 생각이 나서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곡은 몽금포타령과 같은데 조금 느리고 후렴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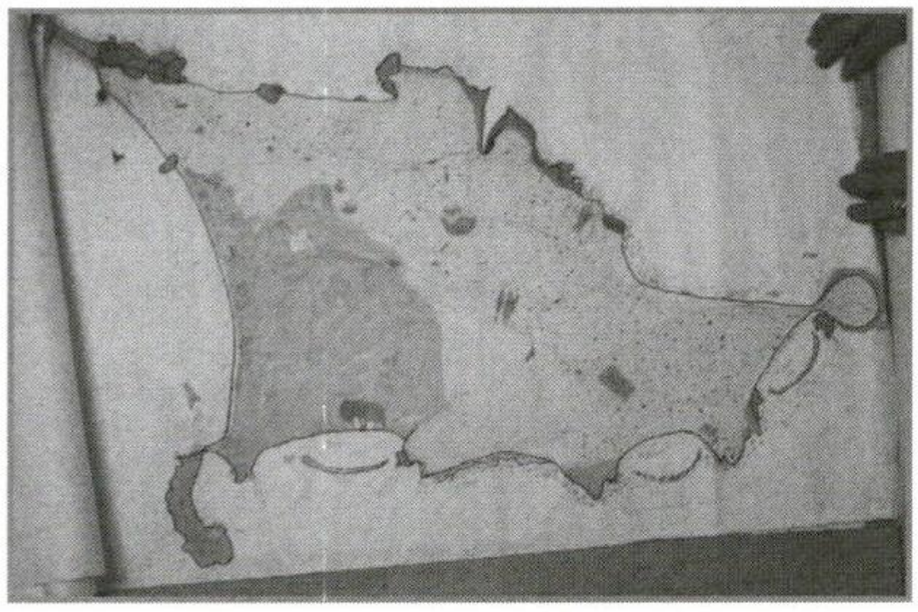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이선주 편저, 지방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무속 · 민요』(인천민속문화보존회, 1986년)
2. 이선주 편저, 『한국의 민요—인천지역 편』(민속원, 1996년)
3.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3호 보존회,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제 29회 정기발표회, 2001년 11월
4. 제5호 주대소리 보존회, 〈인천무형문화재 제5호 주대소리〉제31회 정기발표회, 200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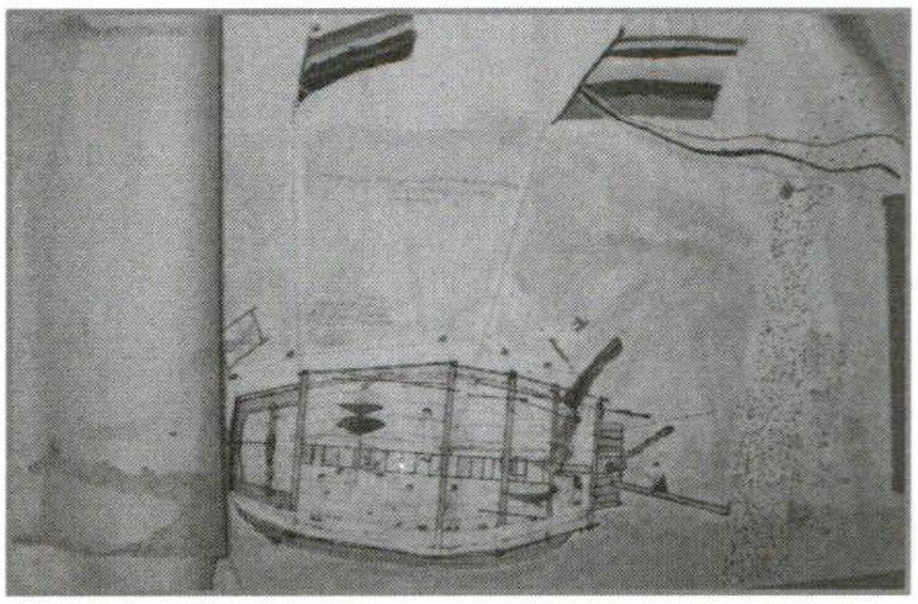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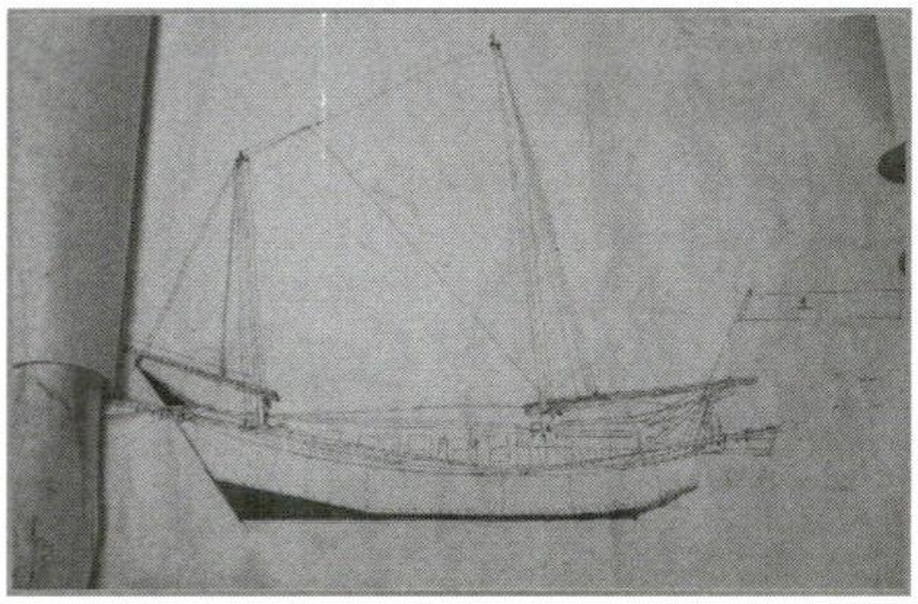
고향 무도리(거첨)를 설명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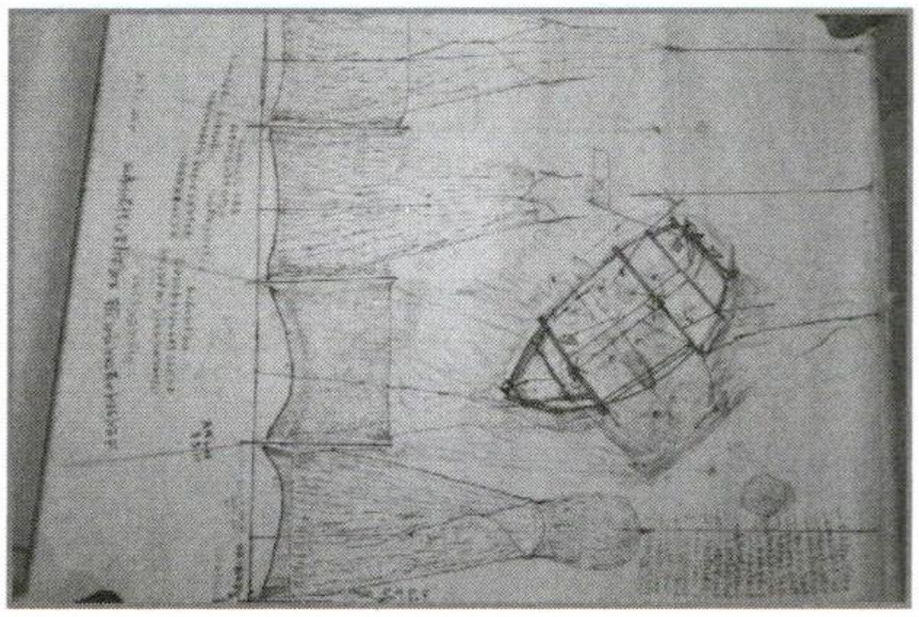
무도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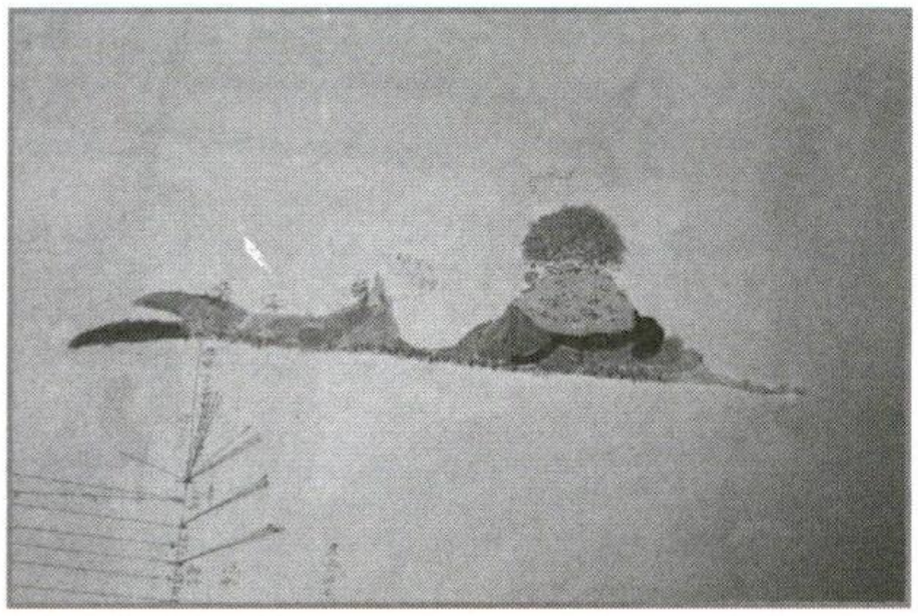
마을에 조기잡이 배가 정박한 모습을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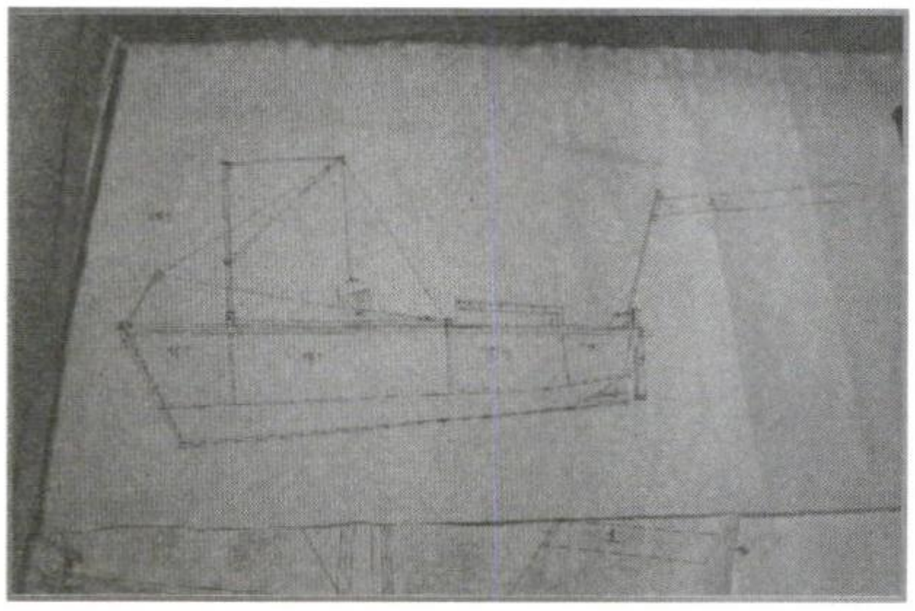
조기잡이 배인 중선배(뾰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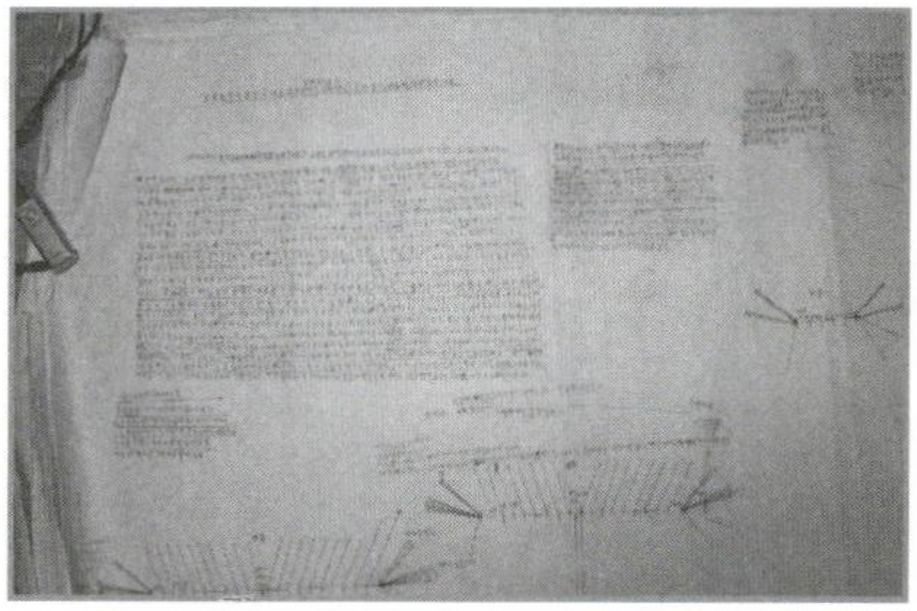
무도리에서 조기잡는 어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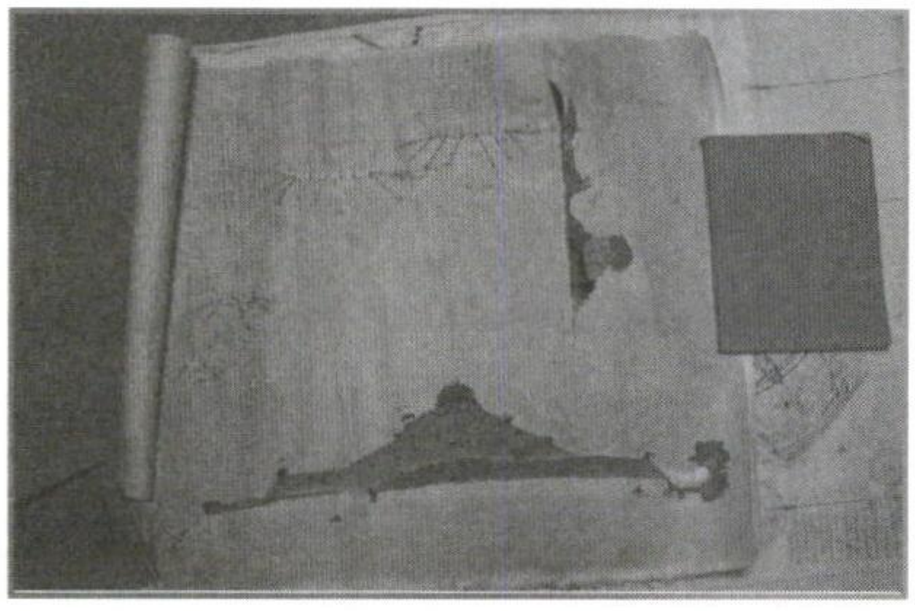
무도리 인근인 골맹여 풀뱅여에서 조기잡이 그물설치도



조기잡이 배 설계도



소인식 옹이 무도리에서 조기잡이를 하게된 내력을 기록한 문서



무도리 지도와 인근 조기잡이 어로도

*지도출처 | 무도리 출신 소인식 옹(작고)이 직접 제작한 지도



홍종식 옹의 근영(近影)

인천소년교도소 소년수들의 아버지 홍종식 옹

■ ■ ■

구술자 홍종식 · **채록자** 이희환*

평생을 인천소년형무소에 근무하면서 소년수들의 아버지로 살아왔던 홍종식(洪鍾式) 옹은 1924년 2월 5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에서 태어났다. 1939년 2월 연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일제 패망을 내다본 부친의 권유에 따라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1944년 9월 부친 몰래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고마쓰제작소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1945년 1월 일본에서의 근무 중 강제 징집되어 만주군 3869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 조치원을 거쳐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부친이 사망하고 기울어가는 가세를 참다 못하여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였다. 1947년 2월 교도관 모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서울 마포형무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1949년 4월, 인천소년형무소로 전근한 이후 홍종식 옹은 학익동에 거주하면서 인천소년교도소에서 정년퇴직을

---

* 인하대 국문과 강사. 계간 『작가들』 편집주간.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논저로 「김동석 문학 연구」 『인천문화를 찾아서』, 편저로 『주안-역사 · 공간 · 일상』(학산문화총서 제1권)이 있음.

할 때까지 평생을 소년 교도행정의 최일선에서 종사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전화를 겪는 가운데 1년이 채 못되는 피난지에서의 경찰 복무를 제외하고 그는 인천소년교도소를 줄곧 지켜왔다. 1953년 7월 인천소년교도소 내에 그가 조직한 충의소년단(보이스카웃)은 소년수들과 교도관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격의 없는 어울림 속에 소년수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고, 그 결과 재범률이 거의 없는 교도행정 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로 기록된다. 그의 탁월한 지도로 인해 가능했던 소년수와 교도관 사이의 인간적 만남은 국내외에 널리 소개되었고 그에게 소파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선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는 등 아름다운 일화로 남게 되었다.

1985년 6월, 61세의 나이에 인천소년교도소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도 홍종식 옹은 1998년까지 13년간 보이스카웃 인천연맹 훈육위원장으로 왕성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 문학산 일대의 문화유적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00년에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제21 문학산분과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해왔다. 슬하에 3남을 두고 있는 홍종식 옹은 그간 모아놓은 자료와 기념품, 사진,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인천소년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들게 된 관사였던 현재의 자택을 기념관으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인천소년교도소의 소년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중심으로 한 회고록을 기록해놓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하의 글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홍종식 옹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출생과 성장, 징병과 해방

홍종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학익동 시절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태어날 때부터의 이야기로 시작해 일대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주시죠.

저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에서 태어났어요. 1924년 3월 5일 오후 5시경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구선, 거기에서 2살 적에, 아버지(홍재응 洪在膺)하고 어머니(이창영 李昌永)하고 저하고 셋이서 온양군 탕직면, 온양군(溫陽郡) 탕정면(湯井面) 매곡리(梅谷里), 그리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전 윤보선 대통령 그 양반 땅이 많아요. 그래서 거 스물닷 마지기 논을 줘서 농사를 짓구, 또 심 주사라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조 말엽에 베슬한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또 밭을 오천 평 주고. 그래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구 나서 거기에서 다시 전의로 이사를 갔어요. 전의면 원성리, 원성리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저는 천안으로 와가지고 작은아버지님네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천안보통학교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죠. 거기서 한 1년 살면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다시 어머니, 아버지 계신 전의로 갔어요. 그래 거기에 가서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전의면 옆에 서면이라고 있어요. 서면 청라리로 갔어요. 청라리. 청라리에서 한 1년 살다가 고 너머 기룡리라고 있어요. 일어날 기, 용용 자, 기룡리(起龍里). 거기서 살면서 천안핵교에서 그리 연기핵교로 전학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연기학교에서 5년간, 천안에서 1년, 연기에서 5년을 다녔어요, 6년

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중핵교를 갈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오셔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일본이 곧 망한다 이거야. 괜히 너 공부해서 일본놈의 앞잡이 노릇 하지 말고, 그만두고, 해방된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하라고. 그래 그 양반 말씀대로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님께서 해방이 되리라는 것을?

아, 그 아버지 친구 오재기라고, 그 양반 아들이 제헌국회의원이야. 그 양반이 독립운동 하던 분인데, 그 양반한테 얘길 들었어요. 그 양반이 아주 저희하고 상당히 친해요. 그 얘기대로 아닌 게 아니라 해방이 됐어요. 그래 중학교를 못 갔어요. 고때가 열여섯 살. 그래가지구선 저 혼자 왜정 말엽에, 왜정 말엽에 그때 내가 스무 살이지, 그때 군인을 갔어요, 군인. 일본놈의 군인. 징병 소집돼 가지고. 그래서 만주 3869부대 관동군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해방이 되기 전에 8월 12일 날, 내가 그때 만주 쏘가톤(蘇可屯)이라고 있어요. 동네이름이 쏘가톤이야. 거기 있다가 함경북도 항구 나진이라고 있어요. 그리 부대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대는 3656부대여, 3656부대. 그래 거기에서 8월 6일 날 소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 거기서 많이들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 거기서 피해가지고 만주 통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관동군이 해산되면서 8월 26일 날 집에 왔어요. 밤새도록 기차 타고 화물차 기차 타고 와가지고선 27일 날 점심 때 조치원에 도착했어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그래 거기 있으면서,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청라리로 다시 이사했어요. 그

래서 제가 거길 찾아서 청라리로 갔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앓아가지고 해방되던 해 돌아가셨어, 해방되던 해. 그런데 이 양반이 있는 땅 다 팔아먹고 돌아가셨어요. (웃음) 그러니, 우리가 땅이 상당히 많았어요. 선조 할아버지들이 이조시대 벼슬을 해가지고, 사패지지(賜牌之地)라고 있거든요, 사패지지. 사패지지가 뭔고 하니 이조시대에 높은 벼슬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양반들이여. 그런 양반들을 왕이 땅을 줘요. 죽으믄, 묻힌 데. 워디 갔다가 그 양반을 묻어가지고서 산소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근처에 보이는 땅을 전부 그 양반 앞으로 해주는 거야. 그게 사패지지라는 겨. 그게 연속극에 나와요 그게.

네, 역사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 집안이 남양홍씨(南陽洪氏) 맞나요?

네, 남양홍씨죠. 저희 7대조 할아버지하고 6대조 할아버지가 부자지간이죠. 그 양반이 7대조 할아버지는 병조참판을 지내고, 그라고 6대조 할아버지는, 그 양반 아들이지, 그 양반은 대사간을 지냈어요, 대사간.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돌아가심에 따라서 그때 영조대왕이 사패지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희 선친께서, 저희 아버지가 다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또 대사간을 지낸 6대조 할아버지 땅을 저희 친족들 그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그래서 내가 재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런데 그걸 산 사람들이 다시 맞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졌어요. 질 수밖에 없지, 등기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내가 이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연금으로 타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할아버지들, 다 팔아먹었으니 위토가 있어야지. 할아버지들 산소 지키는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녀? 그걸 위토(位土)[1]라고 그랬죠. 그게 없어요, 다 팔아먹어서. 그러니 산소를 그냥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안 타고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위토를 사놨어요. 그래 지금 위토가 산이 2천 평 하고 밭이 한 2천 평 되니까 전부가 4천 평 돼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위토를 장만해서 우리 먼 내 친척 동생, 걔 보구선 너 이 토지를 관리하면서 할아버지들 산소 벌초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7대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양반들은 같이 나하고 자란 친구가 있어요. 송씬데. 걔 보구선, 야, 너 이 밭 니가 관리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들 산소 벌초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줄곧 종가셨나요?

예, 제 증조할아버지는 오위도총부 오위랑 벼슬 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처음이는 주사, 통훈대부 벼슬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학교 나와 가지고선 저희 증조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일본놈 앞에서 뭐 해먹지 말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기계 장사를 했어요, 기계. 기계 장사가 뭔고 하니 왜정 때 방아 짓는 발동기라고 있어요. 발동기. 그 장사를 했죠. 그리고 광산일 다니고. 그러다가 해방되고 앓다 돌아가시고.

---

1)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

해방 직후, 교도관 시험에 합격

농사도 지으시면서 장사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사가 잦으셨네요?

예, 예. 그러니 다 토지를 팔아먹고 돌아가셨으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까 얘기한 그 7대조 할아버지 산소를 지킨다던 친구 같이 자라났던 사람, 그 사람 집 사랑방에서 돌아가셨어. 저희 아버지가,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 워트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도 따급해가지고 온양온천에 와가지고선 아버지 친구 류씨가 있는데, 그 양반한테 와가지고 논닷 마지기 소작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껄껄 웃으면서, 너 나이도 어리고 학교도 댕기고 하던 아이가 워트게 니가 농사를 짓것냐고 그래요. 아, 그래도 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너 집에 가 있어라. 그래 가지고선 부탁을 해놓구선 집에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 서울에 공덕동에 저희 이모가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에 언니지. 그리고 이모가 큰이모지. 그 양반한테는 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집안이 이렇게 망해서 이모한테 하소연도 하고 독서를 하고 있을 때, 그 이모가 너 그러지 말고 이 교도관, 그 때는 형무관이라고 했어요. 교도관 괜찮으니까, 남이야 메라고 그러던 말던 교도관, 그 때는 교도관이 괜찮았어요. 이 그 미군들이 원조들 많이 해주고 대우가 좋았어요, 그때. 딴 공무원보다 교도관들 대우가 좋았어요. 거길 들어가라고, 교도관 시험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봤어요. 마침 그때 교도관 모집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시험번호가 39번이야. 39번인데, 그때 지원자가 한 300여 명

됐어요. 그래선 내가 62등인가, 번호가 62번으루다가 내가 합격이 됐지. 시험번호는 39번인데 등수로는 62등으루다가 합격을 했어요.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공부는 난 독학을 했지. 중학은 못 가니까. 그래 독학을 했죠.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배운 게라고는 아는 것도 없고, 뭐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독학했지, 뭐. 맨날 갈 때마다 내가 책을 끼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합격을 해가지고, 47년도 2월 21일, 거길 들어가 가지고선 거기서 다니다가, 김영제(金永濟) 목사라고 그때 마포형무소에 있었어요, 마포형무소. 공덕동에 있는 형무소가 마포형무소예요. 그게 일본 이등박문이 그 놈이 세운 거예요, 그게. 이등박문이가 조선총독으로 있을 적에 초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이등박문이가 그게 미나리꽝인데 거기다가 미꾸고선 그 형무소를 진 거지요. 왜정 땐 경성형무소라고 하고 저 서대문에 있는 건 서대문형무소라고 했거던. 그게 역사가 깊어요. 그게 마포형무소가. 왜정 때는 경성형무소, 해방되고 나서 마포형무소, 그러고 서대문형무소가 경성형무소가 되고, 서울형무소. 지금은 서울형무소라고 그러지. 그래 거기서 근무 나가는데 김영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 교무과장으로 있었거든. 그 양반은 뭐한 양반인고 하니, 왜정 때 하와이, 하와이에서 한국 독립운동 하던 양반들을 도와준 양반이야. 이승만도 도와주고 김구 선생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구선 해방된 해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양반 보고서 뭐 할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아무 것도 귀찮고 형무소에 가서 죄인들 사람이나

되라고 그 사람네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도소 교무과장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좋다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마포형무소에 교무과장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마포형무소 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꼭 서양사람 비슷한 양반이, 아주 멋있는 양반이에요, 잘생겼고. 그래 그 양반이 어느 날 날 또 불러다 데리고 앉아가지고 나를 인천소년형무소로 가라고 그래요. 인천소년형무소, 여기. 너는 나이도 어리고 또 젊고 그러고 하니까 인천소년교도소로 가서 애들 교육시키라고. 그리고 그 양반이 내 실력을 알거든. 그래 그 양반이 서둘러가지고 여기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1949년 4월 10일 날, 이 인천소년교도소로 왔어요. 그 양반이 얘기를 해서 보내줘가지고.

인천소년교도소에 부임하다

어떤 직책으로 오신 거요?

그 당시엔 말딴 직원이지 뭐. 그 당시는 간수라고 그랬지. 지금은 교도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간수라고 그랬지. 왜놈들은 간수라고 그래. 또 순경, 경찰관을 보구선 순사라고 하고. 그래가지구선 여기로 와서 보니까 소년교도손데, 이 건물도 아주 여기는 딴 교도소하고 달러요. 여긴 학교마냥 그런 식으로 졌어요. 운동장도 있구 교실도 있구 전부다 그냥 학교식으로다 졌어요. 그래서 시설은 그냥 교육적으로다 건물을 졌는데 애들 교육시키는 것은 소년교도소, 소

년 다루듯이 다뤄야 하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 소장이 누군고 하니 최규하 대통령 작은아버지 최양옥(崔養玉)[2]씨야. 최양옥씨 그 양반이 여기 소장을 했거든.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선, 아 여기 애덜 이게 소년수들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애들을 다뤄야지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선,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서부터 내가 그만둘 때까지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애들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또 좋아하고. 분위기가 형무소 기분이 안 나고 학교 기분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별것 다했어요. 운동회도 하고 그저, 학예회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또 각종 체육 별거 다했어요, 여기서. 또 그래가지고 쪼금씩 교육을 시키면서 6 · 25사변이 났지. 6 · 25사변. 그래서 6 · 25사변 나가지고 내가 피난을 내려가가지고선 경상북도 경찰학교엘 들어갔어요. 경찰학교 내가 50기생이여. 경찰학교 50기생인데, 거기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구선 그 앞에 칠곡, 칠곡면 한 고을에 가서 전투경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구선 9 · 28수복, 그때가 1950년도 9 · 28수복 당시에 전 공무원이 수복하라고 해서

---

2) 호는 추강(秋岡). 강원도 횡성(橫城)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중동(中東)중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동지들을 규합, 3월 11일 횡성읍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 후 만주로 망명, 이동녕(李東寧) · 박은식(朴殷植)으로부터 군자금모금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잠입하여 신덕영(申德永)과 함께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하이(上海)로 보냈다. 그 해 11월 신덕영 · 노기준(盧基準) 등과 전라남도 담양(潭陽) · 곡성(谷城)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을 계속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1926년 출감 후 다시 만주로 망명, 1927년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太原)에서 안창남(安昌男) · 이용화(李容華) · 김정련(金正連) 등과 북만주에 독립군 비행학교 설립계획을 세우고, 그 기금모금(基金募金)을 위하여 김정련 · 이선구(李善九) 등과 함께 서울로 잠입하였다. 망우리(忘憂里)에서 춘천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수송차를 습격하여 많은 돈을 탈취하였고, 도피 중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였다. 광복 후 서울형무소 서무과장, 인천형무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인천소년교도소 재직 당시의 모습(1960년대)

전투경찰을 그만두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형무소가 인민군 포로수용소가 됐어요. 그 당시에 미 헌병들하고 한국 헌병들이 인민군 포로들을 여기 수용해가지고 문학산 가서 돌 작업을 했어요, 돌 작업. 그러다가 1·4 후퇴, 중공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1·4 후퇴 당시에 그 포로 전부 거제도로 보냈죠. 그래가지구서 우리는 여기서 그 간 다음에 여기 지방 좌익분자, 지방 빨갱이들을 붙들어온 것을 여기서 강제 수용을 했지요. 그래서 군법회의, 군법재판을 하면서 그냥 중공군들은 쳐내려오고 하니까 급하니까 그냥 일사분란하게 재판을 했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그 당시에 876명인데, 그걸 나 혼자 직원 15명 데리고선 저 부두, 부두에 가가지구선 미국 군함 LST라는 화물선 있죠? 거기다 태워가지고 밤새도록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그래 부산 가서 인자 부산형무소에다가 인계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경상북도 김천, 김천형무소 거기에서 집결을 했어요. 인천교도소 직원들이. 그래 거기서 인자 한 1년간 체류, 거기서 대기 근무를 하다가, 그동안에 내가 그 직원들 교육을 시켰어요. 김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구선 1951년? 거기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최규하 대통령 작은아버지 최양옥씨, 그 양반

이 나를 장가들라고. (웃음) 같이 피난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날 장가들여 줬어요. 그래서 지금 내 할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최규하 대통령 작은아버지가 장가 들여 줘가지고, 피난 가서. 그래가지구선 52년 내가 3월 하순에 내가 여길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처는 처갓집에 놔두고. 처갓집이 상준데, 거기서 우선 넌, 인천 가서 내가 자리를 잘 잡을 동안 너 친정에서 잠깐 있어라, 그래 놓구선 난 먼저 올라왔어요, 직원들 데리고. 그래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인민군들이 여긴 전부 망쳐놨어요. 땅굴도 파고 교도소 전부 망쳐놓고 해서. 그걸 직원들 데리구선 전부 내가 다시 복구시켜놨어요. 그래가지구선 저 소년수들이 각 경향각지에서 전부 이리 집결시키래요. 소년범들을. 그래서 여기저기 와가지구선 수용을 시키는데, 그걸 또 나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겨. 최규하 대통령 작은아버지가. 자기가 소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했죠 뭐, 명령이니까. 걔들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다가 1953년, 이듬해지. 1952년 그 이듬해. 1951년 수복을 해가지구선 여름에 8월 달에 여기 직원이 모자라가지구 직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명 직원을 뽑았지. 그걸 또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구선 1953년에, 지금 교육시킨 것 1951년 8월 달이고, 1953년에는 내가 7월 28일 날, 7월 27일 날이 휴전을 했거던. 휴전을 하는 날 그날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날 28일 날, 내가 여기 인천교도소 안에다가 보이스카웃을 내가 맹글었어요. 보이스카웃을 맹글어가지고 그날 7월 28일 그날 발대식을 했죠.[3] 그래가지구서 걔들 교육을 계속 시켜왔죠. 걔들 교육도 시키고 일반 제소자

3) 발족 당시의 정식명칭은 인천소년교도소 충의소년단이다. 그 후 1970년대 들어 보이스카웃으로 개칭하였다.

애들도 교육시키고, 하여간 교육이란 교육은 전부 지가 다 맡았어요.

인천소년교도소에서의 반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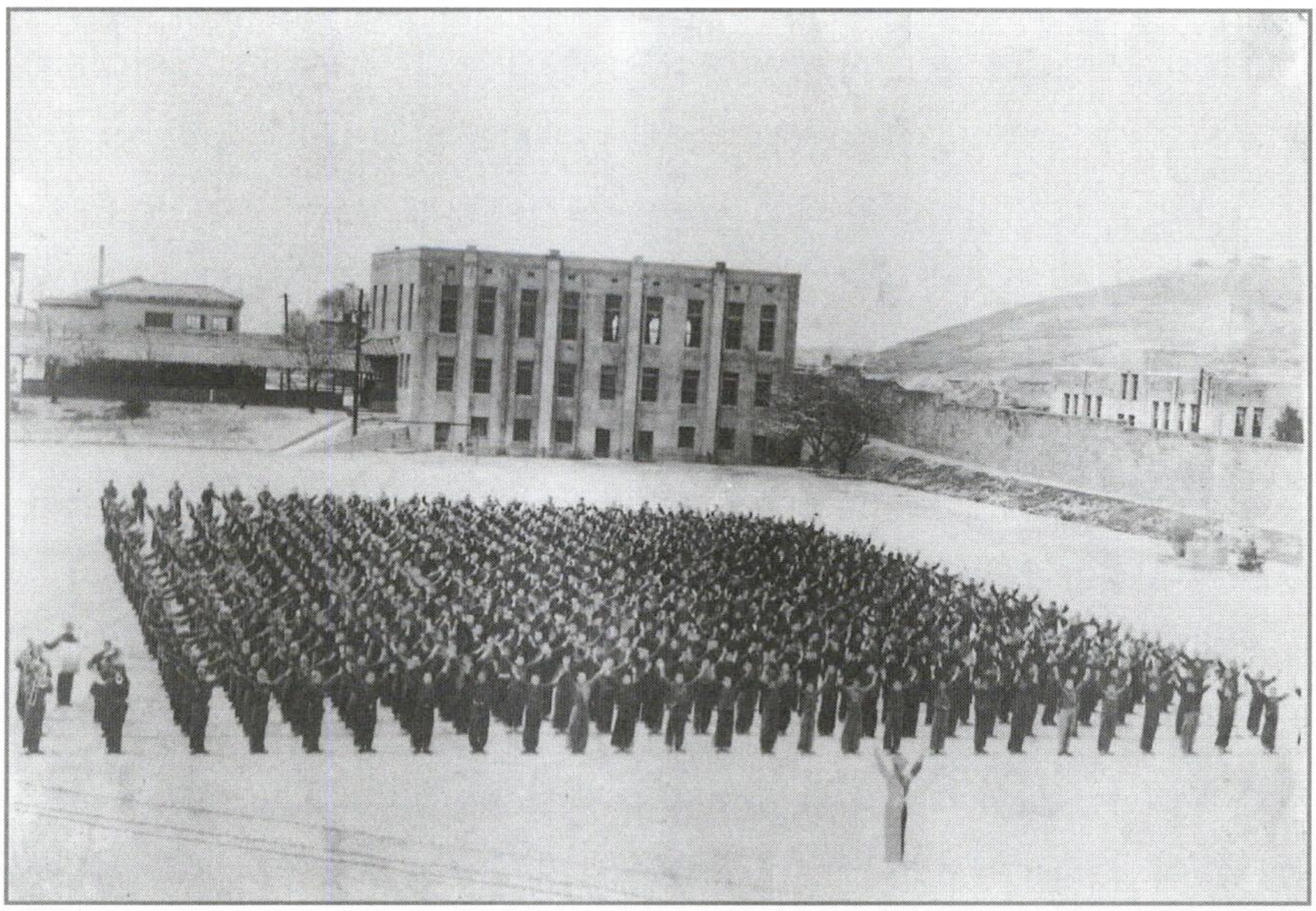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하셨어요?

몰라요, 아니 덮어놓고 그냥 뭐 시키는 거여 전부. 그래서 중요한 이는 전부 내 덕에 살았어요. 그래서 전부다 인근에게 내게로 오니까 이건 홍종식이 교도소라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신문 이런 디 좀 보면은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엊그저께 신문 보셨지. 그걸 다 읽으면 알게 돼요. 그래갖군 내가 교육을 시키곤 하는데, 걔들이 말도 잘 듣고, 또 내가 잘 해줬거든. 딴 죄수들은 전부 다 교도관들은 무장을 해가지고선 여럿이 따라다니잖아요, 도망갈까 봐 무서워서. 근데 얘들은 나 혼자 데리고 다녔어요. 보이스카웃 소집해가지고 2~30명씩 나 혼자 학교 선생이 학생들 데리고 워디 소풍 나가는 식으로다가 내가 막 데리고 다녔어요. 별디 다 다녔어요. 무주구천동으로 그냥 설악산으로 백암온천으로 문경새재로 오대산으로 저기 뭐야, 무주구천동, 별디 다 다녔어요, 하여튼. 계룡산이구 속리산이구 하여간 별디 다 데리구서 야영을 했어요. 그러구 해마다 5월 20일이 미군의 날이었는데 그런 때는 인천 그라운드나 월미도, 송도유원지 이런 디서 행사도 참 많이 하구 그랬지요. 그런 게 다 사진에 남어 있어요.

그때 교도소에 들어온 소년범들은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뭐 별것 다 있지 뭐.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뭐 간통, 강간 뭐 사기, 다 똑같애요,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가정환경이 좋은 아이들도 있고 나쁜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구선 또 이, 저 1952년도에 서울 서삼릉, 육군사관학교 있는데 태릉, 거기서도 1967년도에 야영을 하고, 또 1972년도에는 판문점, 서삼릉 이쪽에서 야영을 하고. 그런데 저희끼리 돌아다니는 겨 막. 그래도 얘들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야, 니들 그러다가 도망가면 어떡할려고 그러냐고. 대장님,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절대 안 도망가요, 우리 도망 안 간다고. 대장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자식 같이 도와주고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세계적으루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징역사는 사람 없을 게라구. 사실 또 없어요. 아주 이 참 역사 이래 참 유례없는 그런 행형을 운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도 나구 다 많이 도와주고, 언론계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하두 참 기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구선 쭉 내가 키워 오다가, 내가 고생을 지지리 많이 했어요, 걔들 때문에. 그래서 저짝 지금 법원 자리 거기 관사가 있는데, 그게 집이 6 · 25때 다 망가진 집이야. 그런데 그것을 교도소에서 고쳐줘가지고 나보고 거기서 임시 살아라 이거야. 그래 거기서 한 9년간 살았어요. 고생 지지리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또 불쌍한 애들 우리 집에서 재워 보내고 내가 취직도 시켜주고, 하여간 별짓 다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하니까, 1963년도에 조병일 법무부 장관, 조병일 법무부 장관이 여기 시찰을 와가지고, 내가 왜 애들 데리구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소장이 권인호 소장이야. 법무부 총무과장 한 양반인데, 그 조병일 법무부 장

관이 권인호 소장 보고서 나에 대해서 뭘 물어보더래요. 아니 저 사람 쪼그만 사람이 어떻게 애들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얘기 대답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병일 법무부 장관이 권 소장 보구, 아 저런 직원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다가 얘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인제 권 소장 하고 나에 대해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여기 관사, 여기 관사가 빈 곳이 몇 개 있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관사는 옛날에 보완과장이 살던 집이에요, 이게. 형무소 보안과장. 그 양반이 살던 집인데 그 양반이 이사를 가면서 이 집이 비어 있었어요.



인천소년교도소 전경.

그래서 그 권인호 소장이 내가 집이 없고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나를 줘야겠다, 너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우린 아무 것도 없고, 또 같은 간부래도 나는 말단이었거든, 그 당시엔. 여긴 전부 다 엘리트 과장급들만 있고 한데, 나는 쫄병이거든, 같은 간부래두. 그러니까 인제, 애들이 기가 죽을 거 아니여. 내 아들이 그때 셋인데, 지금도 셋이지만, 가만 보믄 애들끼리 놀다가 지들끼리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 보면은 지 아버지 자랑도 하구 그러거든. 그러믄 지 아버지들은 전부 다 참 과장급이고 이러는데 얘는 지 아버지가 쫄병이니 같은 간부래두 쫄병이니, 기가 죽지.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왔어요. 여기 전부 그런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여기 관사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관사였어요. 경치가 좋고 여기가 소나무도 많고 또 이 사쿠라나무, 벚나무도 많고 아주 참 경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학생들이 봄, 가을로 소풍을 오잖아요. 그걸 여기로 왔어요, 소풍을. 여기가 하두 경기가 좋구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 날보구 이 집 와서 살라구. 그래서 밤에 나는 이사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부끄러워서 밤에 양은솥 하나 하구 식기 몇 개 하구 형무소에서 준 이불, 그거 가지고 밤에 왔어요, 밤에 이사를. 그래 밤에 이사를 와가지구서, 우리 안식구가 새벽에 나와가지구 집을 빙 돌으니까 그 위에서, 그 소장네 집이 우리 집 윗집이거든. 지금은 그 집이 없지만서두. 거기에서 소장 사모님이 우리 식구를 내려다 본 모양이여. 우리 집이 아래니까. 그래 우리 식구가 돌아다니니까, 자기 남편 보고, 권인호 소장 보고, 아, 우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걔 이름이 일자예요, 일자. 걔는 시집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 우리 일자네 여기 이사왔다구. 얘길 했어요, 자기 남편 보구. 그러니까 남편이 아, 그러냐구, 하면서 교도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저 홍주임이 이사

를 왔으니까 빨리 와서 집 고치라구. 그래가지구선 그 집이, 내가 이사를 안 오고 비워놓으니까 뭐 유리창이니 뭐 문짝이니 이런 걸 전부 떼갔뻔졌어요. 그래서 인젠 집이 허술하지 뭐야. 그래 소장이 교도소에 전화를 해가지구 별안간에 죄수들이구 직원들이구 와서 집을 고쳤죠. 그래가지구선 내가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은 겨. 꼭 그 집에서. 그러니까 1964년에, 1964년도에 왔어요. 그래 그 후루 직원들이구 애들이 여기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 내 기념관을 쓴다구 그러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기념관을 쓴다고 놔두고 있는데, 내가 유물이 또 많거든요. 그걸 기념관을 써서 애들 와서 보구 교육상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재개발한다고 그래요, 재개발.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애요. 앞으로 워트게 될 지 모르는 세상, 이걸 없애면 또 욕 얻어먹거든요. 내가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여기 붙어 있는 것도, 내가 애들 데리고 고생한다고 집을 장만해줬는데, 잘 살라고 고생하고 하니 뭐 집 장만해주니까 팔아쳐먹었다구,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겨.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구 고생하는데 불쌍하다구 집 마련해주니까 팔아쳐먹었다고 그럴 거 아녜요? 뻔하지. 그래서 내가 안 팔아먹고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겨, 내가 이집을 안 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구 여기 애들 교육시키면서 근무하면서 하니까, 나는 승진 하나도 시험 봐서 승진 안 했어요. 자꾸 특진을 시켜줘서, 특진을 시켜줘가지구, 내가 사무관급, 사회로는 서기관급이죠. 거기서는 사무관급이지만 일반 사회로 나가면 서기관급이죠. 그래서 거기 사무관급으로 분류심사관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구선 1985년 6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 근무하면서 1970년서부터, 보이스카웃은 1953년 7월 28일 날

해가지구 키워왔지만, 인천연맹, 지방 인천연맹 훈육위원장이라고 있어요. 훈육위원장은 뭔고 하니 보이스카웃 교육을 총 망라해서 맡은 사람이야. 그리니까 직원들, 선생님들, 지도자를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걸 훈육위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훈육위원장을 1970년서부터 1998년까지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 13년인가 십 몇 년간을 했어요. 훈육을 내가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인저 인천 권역 보이스카웃 협회 전국 관할 지도회장으로, 또 선생님들 지도 소장으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구서 내가 직책이 뭔고하니, 훈육교수요. 보이스카웃 훈육교수. 그래서 그냥 교수라고 그래요. 그 교수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도 그 교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가고. 또 원로스카웃 지도자들,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원로보이스카웃라고, 거기도 나가고. 지금은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딴 교수들이 몰려다니고 그렇게 하구 있어요. 그렇게 쭉 해왔어요. 살기는 여기서 살고.

네, 여기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계신 인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내가 지금 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대충만 말씀드렸어요, 대충. 그저 요점만 대충 말씀드렸어요.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뭐 그 뒤부터는 할 게 있어야지. 그냥 애들 데리고 뭐, 활동한 얘긴데.

기억나는 일들

네, 그런 얘기도 생생한 이야기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 형제분은 없으셨어요?

형제라구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홍종융 洪鍾戎)은 지금 원당에서 살지요. 원당에서 살구, 그리구 내게는 아들이 지금 셋이구. 큰 애가 인하대 나왔어요. 인하대 건축과. 그때는 인하대핵교가 아니고 인하공과대학이지. 그땐 인하공과대학 전국에서 알아줬어요. 인하공과대학하고 한양공대, 서울공대, 이 세 학교가 아주 대단했죠. 우리 아들이 월미공원 전망대 설계했어요. 지하전철 하고. 지하전철 7개 하고, 약사회관, 지하철본부, 지금 원통이고개 8층짜리 있잖아요. 네, 지하철공사 본부 건물, 그것도 얘가 다 설계하고. 또 여기 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거기도 같이 하고. 또 서울 무역센타 있잖아요. 서울, 잠실 가는데, 그것도 얘 같이 설계하고. 네, 건축사죠. 그래가지구선 박정희 대통령 때 충청남도에다가 서울을 웸긴다 그랬어요, 행정도시 만든다고. 그걸 얘가 다 설계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옆에 연기군 신의리라고 거기다가 지금 하구 있어요. 그래서 걔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걔는 이런 일들은 안 해요. 큰 거, 예술적인 거, 이런 것만 하지요. 그래서 걔는 일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전에는 직원 한 십여 명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도 먹구 뭐 하니까 일두 잘 안 할라구 하구. 또 그런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일 하구 있지요. 지금도 사무실이라구 가지고 있죠. 홍대원, 홍대원이라구 하면 대개 다 알아요. 건축사에서 그 지금 그래두 명성 있는 건축사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구 있어요. 그 교수, 그 교수가 인하대 교수유. 그 양반이 졸업 때 주례서구 그랬죠. 여기 저 성당, 성당을 그 양반이 설계를 했지요. 인하대학교 교수, 이름은 내가 잃어버렸네(잊어버리다). 부부가 다 설계산데. 이름을 잃어버렸네. 둘째는 홍순효, 셋째는 막내 홍순창, 걔는 단대 대학원 나오고, 큰 애



학익동 관사에서 찍은 홍종식 가족사진(왼쪽부터 장남 대원, 차남 순효, 장녀 일자, 3남 순창, 맨 오른쪽이 모친 고 이창영 여사)

걔는 인하대 나오고 연세대 대학원 도시계획과 거기 나오고 그랬어요. 둘째 애는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지금 인하대핵교 경비, 경비로 있어요. 딴디 다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고 인하대 지금 거기 경비로 있어요. 홍순효,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을 안 갔어요. 그 당시는 대학 나오면 노는 사람이 많았거든. 노느니 안 간다구 해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왔지.

어렸을 때 고향에 사실 때 특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신가요?

고향에 살 때, 그런데 그런, 애들하고 놀고 하는 그런 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구태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다만 우리 어머니 외가가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는 현충사 바로 거기야. 이순신 장군 직계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7~8세 때쯤인데 현충사 앞에 가서 놀구 그랬어요. 거기에 옛날에는 연못이 있고 그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더라구.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저 징집 당해서 만주에 가실 때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만주 가기 전에 내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 공부하러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네, 공부하러 갔거든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못했어요. 가자마자 그냥 소집을 당해가지구. 그게 내가 1944년도 9월 달에 거길 갔거든. 일본 고마쓰(小松)라는 데. 고마쓰라는 데를 가가지구선 거기 있다가 경도나 동경으로 학

교를 들어갈려구 이젠 새벽에 나가구 그러는데. 고마쓰제작소라고, 군수품 만드는 데에요.[4] 탱크, 탱크 만드는 데에요. 거기 창고, 창고 내가 물건 대주는 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소오꼬 가가리' 라고 창고 계원이죠, 창고 계원. 그래 거기 있다가 1945년 1월 4일 날 소집을 당했어요. 징집, 징집이지. 군인. 그래가지구선 거기서 환송을 해주는데 군인 간다고. 그래 센타에서 환송을 받고 조치원으로 왔어요. 고향으로 조치원, 연기군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1월 8일 날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워디로 한고 하니 용산 기마부대 27연대, 27연대루다가, 거기가 기마대예요, 기마부대.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만주 관동군으로 갔어요. 만주 관동군, 아까 얘기한 쏘가톤, 쏘가톤으로 갔죠. 동네 이름이여 그게, 중국말로. 그게 봉천 옆에 있었어요. 조그만 도시야. 그래 거기 있다가 5월 달에 함경북도 나진으로 갔어요. 3256부대루. 그래 거기서 8월 달에 소련군 출전으루다가 거기 일본군들 많이 죽였죠. 그래 우리는 거기서 피해가지구 아까 얘기한 통하, 통하로 가가지고 통하에서 26일 날 관동군 해산이 돼 가지구 그날 집이 왔지요.

일본 가시게 된 건, 가서 무슨 공부하실려구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거죠?

아, 집에서는 부모덜이 일본사람 공부하면 안 되니까, 얼마 있으면 해방될 낀데 공부해서 뭐하냐 하니까, 내가 부모 몰래 일본 간 겨. (웃음) 거기 가서 공부헐려구. 고마쓰라는 조그만 시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군수 탱크 맨드는 공장 거기 있다가 만주로 소집당했죠.

---

4) 일본 이시가와(石川)현 고마쓰(小松)시 데라우찌(寺內)정 소재

그러고 나서 해방돼서, 미군정이 서고, 마포형무소에 근무할 때 그때까지도 미군정이 있을 땐데요. 그 시대가 아주 좌우익 갈등도 심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인데요?

미군정시대지, 아주 시끄러웠지. 그땐 뭐 무슨 단체가 하두 많구 저희들끼리 싸우구 뭐 별짓 다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무소 분위기를 조용하게 했죠. 바깥에 있으면 휘 넘어가고 뭐할 텐데, 교도소 안은 조용하고 누가 뭐 교도소 뭐 하는 사람도 없구.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 하느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런 디 왔구나 싶어 가지구. 별 생각 다 했어요, 아주. 그러고 또 저 김영제 목사님이 도와줘서 이리 온 거고. 또 어렸을 땐 작은아버지가 도와주고, 다 그런 양반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깐 내가 여기서 뭘 했지. 그러지 않으면 저두 일반 공무원마냥 지지리 고생만 했겠지.

그러니까 교도소에 근무하시면서 바깥은 복잡했지만 바깥일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교도소 일만 열심히 하셨군요?

인천소년교도소 보이스카웃

그렇죠, 애들 교육에만 집중한 게여. 한 가지 일만. 그러니까 여기 성공시켰죠. 하여튼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 재범이 없어요, 내가 가르킨 애덜은. 거기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보이스카웃 출신자들은 재범자가 없다고. 그래 하두 그러니까 1982년 3월 달에 그 당시에 소장이 목사가 여기 소장을 했

어요. 이병창 목사라고. 그 양반이 전국적으루다가 전부 운영하는 사람들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보이스카웃 출신자는 재범이 없다는데, 그 전과자 명단 조사해서 1970년도 이래 재범이 없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루다가 재판소, 경찰서, 치안국,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지, 중앙 경창청. 또 검찰청, 또 법원, 각 교도소 이런 디다가 전부 조회를 했어요. 여기 소년수들 재범자 명단이 있나 없나. 했더니, 보이스카웃 조성 이래 재범자라는 게, 만천 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범자가 80명밖에 없어요. 80명인데, 그것도 보이스카웃 중앙연맹에 등록한 사람덜은 하나도 없어요, 재범자가. 하나도 없구, 이 80명 재범자가 그냥 보이스카웃 연맹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



인천소년교도소 보이스카웃 단원들과 함께(맨가운데가 홍종식 옹)

육시킨 애들, 그 중에서 80명이야. 원래 중앙에 등록한 애덜은 성적이 좋고 특이한 애들 같은 경우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재범률이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아이들만 등록하니까. 그런데 이 80명은 재범이라는 건 만천 명 중에서 일반 재소자 중 보이스카웃 교육시킨 아이덜, 걔들 중에서 80명이야. 원 등록한 아이들은 하나도 없구. 그래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가지구, 그 세계보이스카웃 총책임자 디스 스프라이라는 장군이 여기 왔었어요. 그 얘기를, 교도소 안에 보이스카웃 교육이 있다는 게 참 기적이라고, 이 양반이 실제 답사를 왔었어요, 여기를. 그 양반이 가서 뭘 한고 하니 재범자가 없고 하니까, 세계연맹에서 발간하는 보이스카웃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다가 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일본 신문, 그거 그게 그거야. 일본사람들이 번역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세계 각국으로다가 전부 보냈어요. 세계적으로 각국 나라에 전파시켰지. 그래가지구선 세계 각국 나라에서 다 찾아왔어요, 여기. 그래 남들은 돈 없애가면서 외국 가서 국위를 선양시키는데, 나는 일반 국내도 아니고 교도소 안에다가 그것도, 나는 차단된 교도소 안에서 국위를 선양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각국 사람들이 와가지구선 그걸 쳐다보구 전부 눈물 흘리구 갔어요, 하두 감탄해서. 애덜 활동하는 걸 보구. 또 저 쿠웨이트 거기서는 보이스카웃 아이들 한 40명을 데리고 와가지구 여기 와가지구 여기 아이들 교도소 안에서 4시간 동안 활동하고 교육 받고 그러구 갔어요. 그 사람들이 싸인도 했어요. 내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애구 싸인북 몇 권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요 담에 내가 뵈드릴게요. 그래가지구선 내가 1995년도에 내가 구라파에 갔거든요. 구라파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속초, 거기에서 잼버리 했죠? 그런데 고 다음에는 구라파 스위

스에서 했거든요. 그때 내가 거길 갔어요. 거길 가는 바람에 내가 스위스를 들렀어요. 그래 스위스를 갔더니, 당신 같은 사람 여기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자고. 그래 누군가 했더니, 페스탈로찌, 페스탈로찌 동상이 서 있더라구. 똑같이 당신하고 똑같이 활동했다고 사진 찍자구.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웃음) 그래서 인제 그 관리자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스위스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었데요. 그래서 페스탈로찌가 교육잔데,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데요. 그런데 그 때는 고아원이구 이런 디 가서 교육시키구 하는 사람이 벼랑 없었데요. 그래 페스탈로찌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당신은 형무소 죄수 속으로 들어가서 걔들 하구 같이 그냥 잠 자는 거, 밥 먹는 것까지 걔들하고 활동을 그냥 몇 십 년간, 38년 동안을 하니 말이야, 그런 사람은 참 봐두 몇 백 년, 몇 천 년 가두 그런 사람 없다구 하면서, 사실은 당신이 여기 와서, 페스탈로찌보다도 당신이 여기 와서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다 이거야. 그래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태어났으면 아주 진짜 훌륭한 뭣이나 할 낀데,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사람들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벌써 그 사람들 한국사람 실정을 알아요. 한국은 경제 발전에만 위해가지구서 밀수입 발달시켜 나가지 인간문화에 대해서는 제로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그런 사회 속에서 당신을 누가 알아주냐 이거야. 여기 와 일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했으면 당신을 진짜로 알고 참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알아줄텐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한스럽다 이거야. 거기 그 분이 역사선생이야,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거기 지도자거든. 그래 나도 지도자고 하니까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가 부다 하면서 그저 우리나라로 그냥 왔어요. 그래 한국에선 아닌게 아

니라 그렇지 좀. 그래 우리나라 사람 누가 그런 거 알아줘요. 그저 먹는 데 돈 버는 데, 이런 데만 신경쓰고, 지금 뭐 의리가 있어요 공중도덕을 지키길 해요. 지금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른, 애들 몰라보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한국하면 알기를, 여기 있을 때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지만, 가서는 다 손가락질 하고 욕해요.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들 돈이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애들이 뭐 사라오고 오서 까불고 그러면, 니들 까불고 그러지 말고 정신차리라고 내가 애덜 모라고 하고 그러지. 아까 전도 얘기 했어. 아까 어떤 아이가 왔길래, 테레비에 나오는 일본, 아베 총리 그걸 뵈주면서, 니덜 정신차려라 이거야. 니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멕힌다 이거야. 내가 아까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한국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데.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요새 방송에 나오더구만. 그런, 뭣보다도 그걸 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나고 물욕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지랄 같아가지곤선 무슨 교육


新亞日報
少年囚에 바친 20年 情熱
스스로 囚衣입고 함께 참식

언론에 크게 보도된 홍종식 옹의 활동 ("소년수에 바친 20년 정열" 『신아일보』 1973. 3. 30)

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돼야 하는데. 이 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지 실수 한 게 있어요. 딴 건 다 잘했는데, 인문계열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인문교육. 그래 그때서부터 사람들을 버렸어요. 전부 그냥 돈 벌구 먹구 사는 데만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이상하지. 그러구 지금 40대 50대 된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자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네가 지금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후세들이 잘 될 게 뭐여. 제 자신들이 몰르니까. 이 지금 참 큰 걱정입니다. 내가 저 소위 친구들, 교수들 만나면 맨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엊그제 내가 명지대학 강 교수 만나가지구선 내가 그 양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당신네들 말이야, 딴 교육보다두 사람 되는 교육부터 시키라구,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선생님, 1953년부터 교도소에서 교육해오신 게 자연스럽게 몸에 맞고 좋으셨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왔을 텐데요?

그렇지, 네. 저는요 교육을 해두 막말을 막 합니다. 아주 그냥 솔찍하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점잔 떨구 뭐 체면 차리구, 뭐 권위의식 갖고 뭐 어쩌구 해 갖구선 교육해서는 안 돼요. 걔들 속에서 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걔들 하구 같이 농담도 장난도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뭐 애들 갖다 앉혀 놓구선 내가 선생이다 라고 말이야. 내가 뻔데기네 하구 말이야. 그래가지구선 교육이 안 되는 겨. 애들 하구 같이 그냥 놀며 싸우며 그저 같이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시방 뭐 그냥 칠판으루다 백묵 가지구 얘기나 하구 책이나 보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지. 같이 활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잘 따르구 잘하구 그 성과가 참 좋았어요. 전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딱 놀래요, 놀래. 아주 저런 양반이 다 있다구 말이야. 저는 애들 하구 막 욕도 하구 그래요. 여기 저, 소년 아이들이구 젊은 애들이니까 별놈들이 다 있을 거 아녜요? 이 성적인 관계며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니들 애들 계간하지 말구, 니들 변소칸에 가가지구 손장난 하라구. 그렇게 해서 너희 욕구를 해소시키고 그래야지, 남의 아이들 계간하구 그러면 되느냐구. 병 생기면 어떡하냐구.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의무과가 가선 의무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이 애들 이거 보라구. 항문은 전부 다 헐구 망가지구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이거 조심해야지 안 된다구. 난 아주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침에 애들 모아놓고 조회 때에, 너희 이놈의 새끼들, 너희끼리 자다가 계간하구 지랄하구 하면은 너희 죽는 걸로 생각하라구 말이야. 그러지 말구 너희 변소칸에 가가지고 너희 손 가지고 장난하라 말이야. 그러면 깨끗하구 너희 스트레스 해소되고 다 할 텐데, 왜 남의 아이들 버려두느냐구. 막 그냥 내가 숨김없이 그런 얘기를 다 해줘요. 그렇게 해놓구 교육시켜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점잔 떨구 그렇게 교육시켜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다 애들하구 같이 활동하구 놀구 이러면서, 놀아가두 뭐 잘못하는 게 있거든. 아이구 고렇게 하면 안 된다구, 요렇게 하라구, 그 자리에서 지적하구 그랬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따르고 잘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애들 교육시켜 왔어요.

네, 소년형무소에는 재소자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는 거죠?

14살서부터 18세까지 있었는데, 해방되구 소년 범죄가 증가됨에 따라서 20세까지 수용을 했어요. 참 재밌었어요, 애들 데리구 교육하는데. 딴 놈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이한 사람이 돼 가지구는 인정을 받았죠.

동양에서 유일무이한 인천소년교도소의 역사

인천 근대 역사에서 이 소년형무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소년형무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그전에는 이조 때는 문학동에 그 지방관서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제주의 국가기 때문에, 그때는 사벌로 다뤘죠. 보면 죄인들을 볼기 때리구 그랬잖아요. 자기집 광에다가 가둬두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일본놈들이 들어오면서 감옥이라고 해가지구선, 문학동은 거기다 그대로 놔두구. 여기 신흥동에 거기가 무슨 절이더라. 거기다가 재판소 겸해서 거기다가 감옥을 만들었어요, 신흥동에. 지금 무슨 복지관인가 뭔가가 들어섰는데, 그 자리가. 신흥동에. 거기 해광사 밑에. 옛날 도립병원 뒤에. 거기 있어요. 지금은 무슨 회관이 들어섰는데. 거기다 재판소 감옥을 그리 웸겨 가지고 거기 있다가, 김구 선생이 거기서 도망쳤죠. 김구 선생 도망친 자리여 거기가. 엊그저께 내가 신흥초등학교에 갔었어요. 그게 거기가 그 자리야. 이 자리에서 도망쳤다구 내가 손가락질 한 걸 기자가 사진 찍은 겨. 그러다가 인저 거기서 있으면서 1937년에 그 당시에 2차대전 발발 직전이죠. 그때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하구 3국동맹을 맺었

어요. 그래가지구 저희끼리 맺어가지구 2차세계대전을 발발시킨 거 아니여. 저쪽에서 영국, 미국 등을 상대해가지구. 그때에 일본 친선도모하는 데 일본 법조계 사람들이 이태리를 갔어요, 이태리. 그때 거기 수상이 뭇솔리니거든. 그래가지구 일본 법조계 사람들이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태리 법조계 시찰을 갔어요. 거기 시찰을 갔는데, 거기 그 소년형무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상적으로다 졌어요. 여느 그냥 형무소가 아니고 특이하게 형무소를 졌는데, 그 형무소가 자연, 야산인데, 야산에다가 그 산을 뭉개고 뭐 이렇게 망쳐가지고 판판하게 해서 형무소를 진 게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다가 건물을 져서 자연스럽게 애들 거기서 활동하게 이렇게 교도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가 보니까 아주 참 그런 형무소는 처음 보고 멋지거든. 아주 형무소가 아니고 무슨 학교, 무슨 요양소 같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일본놈들이 돌아와서, 일본에서 법조계 사람들 행형에 대해서 형무행정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형무회의라고 그래요. 지금은 교정회의라구 그러죠.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년형무소를 다시 지야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두 일본에 소년형무소가 없었어요. 그저 여느 형무소에다가 소년수, 여자 따루따루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루 분류를 해서 수용했지 수년형무소가 따루 없었어요. 그것을 저 이태리에서 그걸 보고 와서, 일본놈들이지. 우리나라에두 그런 뭐를 지야겠는데, 이걸 워따가 짓느냐, 이제 그 장소 문제를 가지구 의논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놈들은, 한편은 저 일본 사부, 시코꾸, 사부 거기는 일기도 좋구 따뜻하구 거기 자리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짓자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각 파들이 있을 거 아녀. 이 신파들은 그러지 말고 한국에 짓자. 2차대전이 나가지구 그놈들이 한창 전쟁에서 이길 때거든. 그래가지구선 한국에서

짓자. 왜 한국에다 짓느냐? 앞으로 그때 부여, 우리나라 충청도 부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본 아이들 서울을 맨들라구 그랬어요. 일본 서울. 시방 동경에 있잖아요, 서울이. 천황폐하가 동경에 있잖아요. 이리 엠길라구 그랬거든. 그러니 일본 천황폐하 궁성을 부여루다 옮길려구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부여를 갔다가 일본 서울로 옮길려고 우리나라 각 학생들, 중핵교, 고등핵교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거기 저 장소를 맨들었어요. 보국단이지 그러니께. 그래가지구 우리 어려서 거기 가서 일하다가 죽은 애들 많어요, 중핵교 애들. 그때는 고등학교가 없었지, 중핵교지. 그게 지금 저기가 들어섰잖아요. 그게 뭐지? 박물관 옆에 무슨 현충사 비슷하게 거기 있는데. 거기 저 계백장군도 모시구, 또 뭐 충신 누구도 모시구 다 잊어버렸네. 거기 세 분 모셨어. 백제 때 충신 세분을 모셨거든. 그래 거기가 바로 일본 궁성이 들어설 자리야. 그때 참 한국 학생들이 동원돼서 일 참 많이 했어요. 해방되는 바람에 그냥 없어졌지. 그래서 인자 앞으로 일본이 동남아를 우리가 지배할라면은 서울이 저 부여로 가야 한다, 거기가 중심지거든. 이 중국, 일본, 저 필리핀, 저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 부여가 중심지야, 지도를 놓고 보면은. 거기다가 서울을 맨들려구 그랬어요, 걔들이. 이제 앞으로는 서울이 한국으로 갈테니까 조선총독부에 얘기를 해가지구 소년교도소를 총독부에 의뢰해 가지구 한국에다 짓자. 그래가지구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 그 당시 총독이 누군고 하니, 미나미 지로, 남차랑(南次郎)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간 1937년도니까. 그래가지구선 한국에다가 이젠 짓는데, 그래서 총독부에 그걸 의뢰했단 말이야. 그래 조선총독부에서 이것을 자리를, 우리 한국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를 소년형무소 세울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안양, 안양하고 인천을



소년교도소 군악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안양은 교통이 좋고 하니까 거기 또 서울서도 가깝고 위치가 좋으니까 공기 좋고 하니까 안양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인천으로 오게 하자. 그래가지구 인천 사람들이 그런 새 시설은 인천으로 오는게 좋다. 그래가지구선 여기다 짓자, 학익동 여기. 그래가지구 그 당시, 아이구 이름이 뭐더라? 변 뭐, 우리나라 말루다가 변도라는 사람인데, 스기하라던가? 총무과장, 총무과장이라구 있어요. 그래 그 양반이 보고 여기가 좋다구 해가지구 여기다 진데요, 여기다가. 그래 이 자리가 무슨 자린고 하니, 학에 날개 품안에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이거야. 이 교도소 자리가. 학이,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지리풍수설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원제부터 나온 이야긴고 하니 고려시대부터 나온 이야기야. 풍수지리설이 고려시대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래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여기 와보구선, 여기 참 자리가 좋다 이거야. 명당자리다 이거야. 그 당시는 왜정때는 이 근처가 전부 소나무밭이야 소나무밭. 소나무밭이구. 요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저 뒤에도 그렇고, 전부 다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구선 인제 여기다 형무소를 짓기로 해가지구, 1938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구선 이태리 가본, 그 이태리식 형무소를 여기다 진 게야. 그래 여기 산두 전부 그냥 그대루, 여기 산두 그래루 있었어요. 그래 그 지표만 판판히 해가지구 집을 짓구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구 그 감방, 애들 자는 사방이 기차 열차 같이 아주 지었어요. 그래서 밤이 저 배깥에서 보면은 기차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잘 지었어요, 아주. 애들 화장실 이런 것도 따루 있구. 통풍이 잘 되구. 차가운 날 햇볕이 잘 들구. 아주 이상적으로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짓구 멋있는 교도소를 갖다가 한국사람이 그걸 관리를 못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한국에는 소년 행형자가 없다. 소년 애들 다루는 교도관이 없어요. 전부 성인수들 다루듯 다루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와가지구선 이걸 뜯어 고쳤어요. 내가 여기 와선 개척자예요, 내가. 내가 안 한 게 없어요. 애들 체육으로부터 또 이 연예활동이래든지, 뭐 별 거 다했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연극반, 뭐 축구부, 배구부 이런 각종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애들 두 교육시키구, 봄, 가을루다가 운동회, 체육대회도 하구, 별 것 다했어요, 제가. 그러구 강당에 가서 연극, 연극 같은 것도 하구. 애들도 잘해요, 그런 거. 하여튼 교육에 관한 것은 전부 내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 내가 여기 개척자예요. 여기. 그래가지구 애들 교육을 쭉 시켜왔어요. 누가 하는 사람두 없구, 할

중을 알아야지, 또.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구, 내가 출근을 두 번 합니다. 가가지구선 애들 깨워가지구 전부 운동장에 내보내가지구 아침 조회를 내가 해요. 그래서 조회하구, 식 끝나구서 운동, 체조시키구. 그러구 구령 해가지구 공장에 들여보내구. 그러구 나는 집에 와요. 그래 집에 와선, 여기 가까우니까, 이게 관사니까. 그래가지구 또 다시 와서 아침 먹구 그대는 내가 정복을 입구, 정시 출근을 하구. 또 거기가서는 오전에 내가 죄수복을 입었어요, 내가. 죄수복두 입구 보이스카웃 유니폼도 입구. 나 별짓 다 한 사람이여. 내가 그 죄수 애들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이름 대신 여기 번호 붙이는 게 있거든. 내가 만 번이요, 만 번. 내 수형자 번호가 만 번이여. 그것도 애들이 져준 겨. 왜 만 번으로 하느냐? 대장님은 앞으로 애들 교육을 시켜나가는 데 만 명 이상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만 번으로 합시다. 저희가 맨들어 준 겨. 그래서 내가 만 번 패가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구선 애들과 같이 옷도 그냥 죄수복 입고 같이 다닐 때도 있구, 그렇게 그냥 죄수복 같이 입고 배깥에 나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얘들은 뭔 애들이 지도자가 없다구. 내가 키가 적잖아요. 애들과 키가 똑같으면은 유니폼을 똑같이 입으면은 똑같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도자가 없구 워트게 저희끼리 댕기느냐 이거여.

아까, 왜 만 번이라고 하셨지요?

아이들이 져준 겨. 만 명을 다스리라 이거여. 걔들이 번호를 져준 겨, 만 번이라구.

네, 아까 기차가 가는 것 같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사방, 걔들 자는 숙소. 숙소가 꼭 기차열차 객차 같이 연결시키듯 그렇게 졌어요, 집을. 객차 있잖아요? 똑 그 식으로 졌어요, 그 식으로.

네, 그리고 이 형무소가 일본하고 조선에서도 최초라구요?

서양에서는 이태리가 하나 있구, 동양에서는 여기가 하나 있구. 그래선 내가 노상 글 쓰면은, "동양에서 유일무이한 인천소년교도소"라구, 글 쓰면 내가 꼭 그걸 거기다 기재하구 그래요. 지금도 글 쓴 거 보면 "동양에서 유일무이한 교도소"라고 했죠. 서양에는 이태리 하나, 동양에서는 여기 하나. 그리구 또 저 서양에서는 페스탈로찌가 있고 동양에서는 홍종식이가 있다, (웃음) 걔들은 노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또 교육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음)

인천, 그리고 문학산 일대에 대한 기억

네, 다음으로 인천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49년에 인천에 오셨는데요, 인천에 처음 오실 때 인천에 대한 느낌이나 기억나는 일들을 좀 말씀해주시죠?

그때는 내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 가지구, 내 여동생이 인천으루 시집을 왔

어요. 걔가 지금 도화동이라구, 주안 밑에 도화역이라구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어 가지구. 나는 1947년 5월 달에 왔어요. 그래가지구선 그 당시는 지금 저 경인전철 주안 밑에 도화역이라구 있어요.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 거기서 인저 여기 그 당시에 인천소년교도소, 거기를 주안에서 출퇴근을 했지요. 거기서 아주 고생 되게 했었어요. 거기서 집을 하나 얻었는데, 하꼬방 집이야. 그 방에서 그냥 물이 나가지구 축축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구 뭐 한다구 그래가지구, 춥구 뭐해 가지구 축농증이 생겨가지구, 그때서부터 코가 지금까지 잘 낫지 않고, 지금도 코가 나빠요.

거기서 살다가 6 · 25 때 피난을 갔죠. 피난 갔다 와 가지구선 고 옆에, 그 동네죠. 거기서 살다가 1 · 4후퇴 때 피난을 가서 내가 김천 가서 장가를 들구, 그래가지구선 올라 와가지구 최규하 대통령 작은아버지 최양옥씨가 관사를 마련해줘서 살게 됐지. 그래가지구는 그 당시에는, 여기를 학골이라고 불렀어요. 6 · 25 때에도 여기에 학이 많았어. 그리고 여기에 한양조씨네 산이 많았는데, 거기 이조판사를 지낸 양반의 산소도 있었어요. 그리구 지금 동사무소 옆이루다 학정(鶴井)이라구 부르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은 워딘지 찾을 수가 없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학산 이 근처에는 아주 유물이 많었어요. 이성계가 홍건적 2차 침입 때 물리쳐서 홍건적이 끌고 온 말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인주초등핵교 자리여. 그리구 고려시대 문종의 작은부인이 낳은 대각국사의 탄생지도 요 근처지. 그것도 내가 찾았어. 내가 그걸 워트게 알게 됐냐하면, 1949년에 인천에 와서 조선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구 교도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조그만 일서를 하나

봤거든. 그거 지금 내가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동쪽 골짜기에 의천 탄생지가 있다고 쓰여 있거든. 그래서 내가 동국대 총장하던 황수영 박사하고 이형석씨 하고 같이 가가지고 찾아서 비석을 세워놨지. 그것 말구두 문학산 여기 또 애기 업고 있는 모양의 애기바위도 있었고, 그 길 옆이루다 방울바위도 있었고, 사모지고개 근처에는 물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물 마시던 우물자리가 있었어요. 봉화대도 물론 있었지. 그리고 고인돌도 내가 교도소에서 징으로 쪼는 걸 막아서 복지회관 옆 공원에다 갖다 놨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또 하나는 시에서 수봉공원으로 옮겨놨더구만. 그리고 연학초등학교 자리에는 남방식 고인돌이 있었는데 그걸 주민들이 없애려는 걸 하씨라는 사람에게 관리를 부탁해서는 운동장 옆에 비치해놓게 했지.

학산서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없으세요?

학산서원 자리도 아이들 데리고 견학을 가고 했죠. 거기 이단상이라는 학자를 모셨잖아요? 내가 피난가서 경찰학교 50기생으로 다닐 때, 경북대 무슨 교수에게 들은 이야긴데, 이단상이란 분이 아주 결백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서원을 만들고 그랬는데 언젠가 강화도 도사로 영전되어서 부임을 했다구 그래요. 그때 제주도 도사가 가는 이마다 부정을 일삼아서 아주 나라에게 골치가 아펐는데, 이단이 제주도 도사를 지원해서 제주도 가서 아주 일을 잘 했대요. 국가에서는 또 이단을 영전을 시켜서 돌아오게 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울면서 못 떠나게 말리고 난리가 났었데요. 그러나 나라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제주도를 떠나왔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어느날은 기념품을 보내왔는데,

이단상이 그걸 뜯어보니까 하나는 갓이 들었는데, 글쎄 그게 우황(牛黃)으로 만든 갓이더래요. 그래 이단상 이 양반이 깜짝 놀래서 갓만 쓰고 우황은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이단상 이 양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지. 그리고 또 지금 학익초등학교 뒤에 지금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절이 있던 자리예요. 『경기일보』에 김인호 기자가 잘 아는데, 거기 절 종탑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의 종이 임진왜란 때 일본놈들이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데요. 그 종이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종이래지 아마. 이거 꼭 되찾아야 합니다.

네, 그런 종이 있었어요? 네, 자세히 알아봐서 꼭 찾아야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문학산에 미사일 부대가 있잖습니까? 그거 들어올 당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말씀해주세요?

문학산 미사일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 산 위에 봉화대가 있었어요. 그건 아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산을 배꼽산이라고 했죠. 1966년인가 67년도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사일부대를 만들면서 봉화대로 없애버리고 정상을 한 40미터를 삭토했어요. 그때 산이 망가졌지, 뭐.

그게 신태범 박사의 책[5]에 보면, 195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1959년이 아닌가요?

아녀, 그게 미군부대가 5 · 16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1959년은 절대 아니지.

---

5) 신태범, 『인천 한 세기, 몸소 겪은 이야기들』, 홍성사, 1982.

그리구 내가 미군부대 들어왔을 때 우리 보이스카웃 애들 데리구 거기 올라 철망두 치구 행사두 갖고, 마스게임두 하구 그랬는걸. 그런데 문학산 그 바로 밑에도 절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의 구조가 지금 수원에 있는 용주사,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학익산 절, 그리고 이 문학산 절이 모두 구조가 똑같다구 그래요. 그걸 그 당시에 서예가로 유명했던 박세림 선생하고 문화원장 하던 김기봉, 이 두 양반밖에 몰러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모지고개 밑에 물 나오는 바위에 대해서도 전해오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막걸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워치게 안 나오게 됐냐 하면, 막걸리가 더 많이 나오라고 해서 막대기로 쑤셨더니 그 후론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하여간 일 문학산 일대는 문화유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 지금 정자 있는 연경산 있죠? 거기는 독립운동가인 홍진(洪震, 1877~1946)[6] 선생 가문의 선산이었어요. 홍진 선생의 6대조 할아버지가 이조시대 중엽 이조참의를 지냈는데, 그분의 묘를 세우고 비석을 크게 세웠는데, 그게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땅 속에 묻혀버렸어. 내가 지금 답사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산소는 후손들이 나중에 이장했지. 후손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묘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스팔트에 깔려서 그렇지 비석의 위치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비석이 당시에 마을에서는 아주 보물

---

6) 한말의 독립운동가. 본관은 풍산(豊山). 초명 면희(冕熹). 호 만오(晩悟). 충청북도 영동에서 출생하였다. 한말 한성평리원(漢城平理院) 판사 · 충청검찰청 검사를 역임하고 1919년 3 · 1운동 후 상하이(上海)로 망명, 임시정부 법무총장 · 내무총장 · 의정원의장(議政院議長) · 국무령(國務領)을 역임하였다. 1928년 김구(金九) · 이동녕(李東寧) 등과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설하였으며, 1938년 독립운동단체가 통합하여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이 결성되자 운영 간부에 선임되었다. 8 · 15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과 함께 귀국하여 비상국민회의 의장에 피선되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로 취급했던 큰 비석이었어. 당시 법원 인천지법 원장을 했던 김정렬 시장도 인천 보물로 취급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전혀 돌보지 않았지, 뭐야. 그리고 그 연경산에는 홍진 선생의 6대조 할아버지의 부하인 이재원이라는 사람도 묻혀 있었어요. 이재원이라는 사람이 이 산이 묘자리가 좋고 하니까 홍 참의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산소자리를 상납을 한 거지. 자기는 그 명당자리 밑에 묻히고. 그래서 한때는 그 동네를 재원리라고 불렀어요, 재원리. 그리고 거기 물터도 재원정, 재원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말씀 하시느라구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전 뭐, 강의를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한 사람입니다. 점심 12시부터 한두 시간 동안 점심 시간 쉬고, 그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강의를 했어요. 교도소 애들도 깜짝 놀라요, 그때. 직원들도 놀래구.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강의를 한다구. (웃음) 나 별짓 다했어요, 해여튼. 그래서 난 음성이 애들 목소리 같으데유. 엊그제 방송국에서 조사 나왔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 선생님 몇이시길래 애들 같애요 그래. 나 여든 셋이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애들 같으다구. 난 늘 애들 데리고 있었으니 애들 같으다구. 웃겨 하여튼. 나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하여튼.

망실된 문학산의 유산과 자연

문화유적 보존하는 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남구의제21 문학산 분과에도 참여하셔서 문화재 보존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사람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너무 돌보지 않구 그저 때려부수니 큰일입니다. 제가 워트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여기 저 지금 인천도서관 고인돌 두 개 있는 거. 그것두 내가 거기 갖다 놓은 겨, 그게. 네, 아 지금 박물관. 그게 어떻게 된 건고 하니, 거기 큰 거 북방식 고인돌 하나 있어요. 그게 요 교도소 옆에 법원자리, 고게 조그만 야산이 있었어요, 산. 그 꼭대기에 그게 있던 겨. 그래 인천에서 학생들이 오면은 그길 와가지구 교육시키구 그랬어요. 그거 구경시키구 그랬어요. 그래 그것을 1967~68년도에, 그걸 다 때려 부수잖아. 하여간 내가 이 문학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아는고 하니, 내가 아이들을 데리구선 혼자 데리구 다니면서 문학산이구 뭐 어디구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학산에 가서 그 미추홀산성, 또 사모지고개, 또 거기 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답사하구, 인제 또 동네 어른들한테 이 지방에 대한 역사도 물어보고, 이래가지구선 그 당시에 쪼금 좀 알게 돼가지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각국사 탄생지, 그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워딘고 하니 지금 여기 인주초등학교 자리가 대각국사가 난 자리여, 그 자리가. 여기 인주초등핵교. 거기다가 저 동국대학 총장하던 황수영 박사하고 같이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러구선 또 이 밑에 고인돌, 고인돌을 발견해가지구 지금 몇 개가 여

기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 갖다 놨데요. 거기 놓고, 인천박물관, 송도, 박물관에 한 둬 개 있고. 송도박물관에 있는 큰 북방식 고인돌은 지금 이 법원자리에 건물자리예요. 그래 그것을 그 당시 이 교도소에서 그것을 망치로다가 때려 부술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하구, 이 역사에 아주 유명한 전통 있는 돌인데 이걸 부수면 어떻게 하냐구. 그래 못 부수게 하고 옆에다 잘 보관을 했죠. 그래가지구선 인천시 그 당시에 성한옥씨라고, 무슨 직책이더라 그게.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해가지구선 그걸 자유공원, 자유공원에다 갖다 놨어요. 박물관 전에,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있는데, 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 송도박물관을 지면서 그리 웬겼지. 그래 지금 송도박물관에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지소 안에 청동으로 된 북방식 고인돌이 하나 있었는데, 구치소 길을 짓고 그걸 개통하는 바람에 그것을 딴 데다가 버릴려구 그래요. 그래 제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구 그것도 송도박물관에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 지금 그것두 송도박물관에 있어요. 그라구 지금 여기 연학초등학교라구 바로 요기 있어요. 그 자리가 홍건적 2차 침입 당시에 거기서 물리친 곳이여, 그곳이. 이성계하구 황무슨 장군인데, 그 두 분이 거기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말무덤이라구



소년교도소 추계대운동회 장면

홍건적들이 타고 온 말 죽은 거 거기다 묻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세우기 전에 거기 말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놀기도 하구 거기서 야영도 하구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무덤을 이 학교 짓는 바람에 없앴어요, 그냥. 두 개가 있었는데, 모양이 뚱그렀죠. 그러고 문학 넘어가는 그 옆에 방울바위라고 있었어요, 방울바위. 방울바위라고 아주 유명한 바윈데, 그걸 아파트 세운다고 해가지구 다 때려부수고 없앴잖아. 신동아아파트 짓는다구. 그래서 한국사람들 말이야 참 이상해요. 그런 걸 때려부수면 어떡해요, 문화재를.

그러고 여기는, 이 동네가 그 전에는 별장지대였어요. 현재 행정구역은 학익동이죠. 그 일본놈들이 교도소를 여기다 져 놓구선 이 관사를 갖다가 아주 잘 졌어요. 이게 그 관산데, 별장처럼 졌죠. 그때는 뜨문뜨문 있었죠. 그리고 이 근처가 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골이요, 학골. 이 동네 이름이 학골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학들이 많이 모여 살구 그랬어요. 이 6·25때도 여기 학이 돌아댕겼어요, 6·25때두. 그래 가지군 그 후로 없어지구 말았죠. 그래서 인천에서 학생들이 소풍을 오면 여기로 왔어요. 여기 꽃두 많구 소나무 많구 아주 경치가 참 좋았어요. 또 이 집들도 아주 잘 짓구 보기도 좋구, 그래가지구 인천시내서 학생들 소풍 오면 여기로 오구 그랬어요. 그러구 그전에는 바닷물이 이 뒤까지 들어왔어요. 저기까지 들어왔는데, 1938년에 교도소 짓느라구 여길 미꿨죠. 그러고 또 이 앞에, 그 전에 홍한방직이라구, 방직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 공장을 짓느라구 또 미꿨어죠. 그래가지구선 그 물이 송도 가는 도로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구선 우리 거기서 낚시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인하대에서

송도 가는 삼거리죠. 그래가지구선 그 후에 인하대가 1954년돈가 아마 그때 졌죠. 아마. 내가 가서 일도 봤어요. 지금 인하대 들어가는 데 양쪽에 뚫어놓은 도로 있잖아요? 옛날에 져논 거. 그거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이 충의단 아이들 데리구 가서 지가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인하대 정문 앞에, 도서관 앞에, 그게 지가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구 나서 동양화학이 들어서면서 거길 또 미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구, 모두 그랬죠. 그래가지구선 저 동양화학이 들어오면서 그 앞을 미꾸고, 그것도 제가 가서 일을 했어요, 애들 데리구. 그걸 미꾸고, 또 여기 지금 기계공고 앞에, 그때는 거기가 복숭아밭이구 논이유 전부. 그것두 전부 미꾸구, 그것도 전부 제가 애들 데리구 가서 일했죠. 소년교도소 아이들이 참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아주 인천소년교도소 충의소년단이라면 참 유명했어요. 사진도 참 많이 있는데, 오래 되구 많이 낡었어요. 신문도 많은데, 신문도 여기 일부 여기 있어요. 이게 소년 죄수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동양화학 앞에 바다를 메꾼 데 거기서 야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인천 아이들 거기서 야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파상(小波賞)도 타셨네요. 『주간중앙』에도 크게 실리셨구요. 『인천신문』 하고 여기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에는 글도 연재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난번 『소금밭』의 조명희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자서전도 쓰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건 거진 썼는데. 내가 글을 쓸 줄 몰라서 1947년 무렵부터 해가지고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홍종식 교도관

가는 대로 막 썼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걸 보고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내가 써놓긴 써 놨어요. 그런디 그거 알아볼까 몰라. 내가 글을 쓸 줄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막 썼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많어요. 너무 많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 나. 그러고 애들이 써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학익동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죠? 인하대 옆 언덕에요?

네, 그 전에 많았었죠. 그때 이 학익동이, 이 법원자리, 교도소자리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래요.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그러고 저 인하대 부속고등학교 저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가 학의 머리, 학의 대가리구요. 저 병원 앞에는 소금가마가 있었구. 그러구 여기 미군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미군들 때문에 여기에 양공주들도 많이 있었지. 양공주들은 여기 있다가 미군들이 다 나가니까 없어지구, 그 대신에 저 신흥동에 신마찌(新町)라구, 신흥동에 있던 그게 이리 왔지요. 그래서 인하대 앞에 있잖아요.

인천소년교도소 몇 년사 식으로 된 역사를 기록한 책은 있나요?

그게 여기 지금 없어요. 그게 있었는데, 6 · 25때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근처에 화장장도 큰 게 있었나요?

화장장은 여기가 없구, 조 너머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인천광성고등핵교 그 밑에 옛날 인천그라운드[7] 있는 소방서 자리, 거기가 화장턴데, 거기 있다가 이리루 신기촌으로 웬겼어요, 그걸. 거기있다가 지금은 부평, 공동묘지로 옮겼죠.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교도소 보이스카웃 소년들

신문자료를 보니까 선생님 이야기로 연속극도 만들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건 방송국에서 5부작 연속극으로 만든 거예요. 연속극뿐만 아니라 영화도 나오구요, 별것 다했어요. 안 해본 것 없어요, 저.[8]

---

7) 도원공설운동장의 옛날 명칭.

8) 이순재가 홍종식 선생 역을 맡고 김희라가 소년수 역할을 맡았던 영화〈십대의 영혼〉(1976년 제작). 그 후 이 영화는 법무부에서 홍보용으로 필름을 구입하려다가 영화사에서 너무 값을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구입을 포기하였고, 그 대신 법무부 자제 제작으로 〈생일〉이라는 영화로 완성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는 소년교도소가 포로수용소로 사용되었던 거죠?

예, 포로수용소는 해방 되구서. 해방되구 미군들이 잠깐 한 1945년도부터 1948년까지 4년간 포로수용소로 있었어요. 그리고 6 · 25때, 인민군 포로수용소가 여기 있다가, 거제도로 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소년운동사』 같은 책에는 기록이 들어가 있나요?

네, 다 있어요. 『보이스카웃60년사』, 그건 우리나라 보이스카웃연맹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내가 교도소 안에 보이스카웃을 맨드니까 이걸 기록한 거지. 거기도 나오고, 교정, 교도소 역사 그거도 나오고. 그라고 또 저 행형학 책 거기도 나오고. 청소년 책에도 나오고. 『객석』 『샘터』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에도 나오구. 이런 자료를 한국보이스카웃에서 60년사 만든다구 해가지구 다 망쳐놨어요. 이건 내가 법무부 기관지 『교정』 1981년 8월호에다 냈어요. 「교도의 승리」라고 내가 자서전을 줄여 썼어요. 이건 스카웃 기관지고. 이건 소설가 임옥인이가 와가지구 애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이건 일본 보이스카웃 신문인데, 소년형무소 보이스카웃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크게 쓴 거예요. 이건 보이스카웃 국제신문에 나온 건데 일본 놈들이 번역한 거야. 많아요, 자료가.

네, 그렇군요. 이제 인천소년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교도소를 제대로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 전체 부지가 대략 1만3천 평 돼요. 일본눔들이 물러간 뒤로 관리가 잘 안 돼서 먼저 허물어진 축대를 쌓기 위해서 문학산에서 돌을 주워 오고 그랬어요. 그걸 문학산에서 주어 와가지고 일일이 어깨에다 메고 여기까지 왔어요. 노상 그냥,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맨날. 근데 한번은 직원들이 모자르고, 그래 가지구선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소장 보구선, 나 혼자 애들을 데려가겠다, 도망가면 가고 말면 말고, 도망 가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신 징역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다짐을 하구. 136명을 걔들을 데리구 갔어요. 왜 그런고 하니, 36명이 보이스카웃 대원들이요, 100명은 일반 죄수들이구. 그래서 그 36명 아이들을 이용한 겨 내가. 그래서 내가 걔들 보고서 너희 스카웃 정신과 화랑정신을 발휘해서, 너희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너희들이 잘 보호해 가지구 이 작업을 하자. 너희들도 그 월마나 재미있냐? 선생님들이 총대 들고 너희들 감시하는 거보다, 너희끼리 여기 와서 자유롭게 나 혼자 데리구 와가지구, 학교 선생이 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유니폼 똑같이 입고 말이야. 너희들 죄수복 입으면 나도 죄수복 입고, 너희들 보이스카웃 유니폼 입으면 나도 입구, 똑같이 너희들과 행동을 같이 하니까, 너희들 도망 갈려면 가고 말면 말라 말이야. 너희 양심에 맡기겠다. 그래 가지고 걔들을 일주일간을 데리구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해, 애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서, 그 당시에 보안계장 김경모씨라고, 나하고 같이 마포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승진을 해가지고 여기 보안계장으로 왔어요. 그래 보안계장으로 와 가지선 보니까, 나 혼자 136명을 데리고 막 그냥 산으로 돌아댕기거든. 그래 놀랠 일이지. 아, 죄수를 갖다 글쎄 혼자서 무장도 않고 그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루다가, 그 가운데는 별놈이 다 있거든. 강도, 살인, 뭐 절도, 사기 별별 범인이 다 있단 말야, 폭력 뭐. 그런데 그 가운데는 징역 많은 애도 있어요. 15년짜리도 있어요, 15년짜리. 15년짜리가 넷 있고, 10년짜리가 20명 있구, 7년, 8년짜리가 그냥 수두룩하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나 혼자 136명을 데리구 다녔다니까. 놀랠 일이여, 그런 일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아 거짓말이지. 누가 그걸 곧이 듣겠어. 거짓말이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김경모 그 보안계장이 그걸 보구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여.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마포서 같이 근무하고 했으니까 내 성질을 잘 알거든. 마포에 있을 때도 도망간 죄수들을 내가 붙들고, 마포 있을 때도 여기 이 부평 미군부대 일하는데, 거기서 도망간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걸 붙들기 위해서 딴 직원들은 전부 붙들러 나갔는데, 나 보구선 나머지 199명을, 200명 중에서 199명을 나 혼자 보고 지키라는 겨. 그 또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거든. 그러니 그걸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저 본부장 체포하러 나갔는데, 너희들 그거 틀림없이 붙들고 온다. 그러면은, 나는 실패하든 하여튼 성공을 하든간에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 갔다 오너라. 전부 다 붙들어 오면은 상 타고 그러거든. 성적이 오르고. 그걸 붙들러 가지 누가 여기 있는 아이들 지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그 대신 나 혼자서, 온통 광장에다 모아 놓구서 나 혼자 지켰어요. 199명을, 인원점검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앉혀놓고서 뭐한고 하니, 그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뭐한고 하니, 거기서 내가 강의를 했어요, 계속해서. 강의를 한 둬 시간 했어요. 하는데, 하두 겁이 나서 그런가, 힘 드는 줄도 모르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막 지껄여버린 겨 그냥, 만담가모냥. 그런데 애들이 수형자들이 우습기도 하고 조그만 젊은 놈이 얘기 하니까 낯간지럽기도

하고 재미도 나고 그러거든. 그래 가지고 도망도 안 가. (웃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김경모씨가 내 얘기를 하더라구. 나 보구 홍간수장, 그때는 간수장이라고 했거든, 교감이라고 안 하고. 홍간수 성격을 내가 잘 안다고. 마포 있을 때 그렇게 죄수들 도망갈 때 한 200명 모아 놓구선 혼자서 지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혼자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어른하고 애들하고 다르다, 어른들은 뭘 할라면 계획을 세우고 이래 가지구서 하는데, 아이들은 있다가도 저희 성격에 안 맞으면 순식간에 도망가는 게 애들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니까, 혼간수장 혼자서 데리고 다녀선 안 된다, 거기 지도자를 배치하라 이거야, 붙여라 이거야. 그래서 우습지 정말, 놀랠 일이지. 혼자서 진짜 136명 데리고 다닌 건 역사 이래로 없거든요. 어딜 가든 말이야. 그래가지구선 하루는 마지막 날인데, 직원을 하나 붙였어요. 그래 아이들을 데리구 다니는데, 그래 마지막 날 아이 한 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직원은 기관단총이라구 그걸 하나 들구선 직원이 하나. 근데 딴 직원들이 홍 교감 혼자 데리고 다니는 게 괜찮은데, 거기다가 직원들 배치하면 역효과 나가지고 외려 애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갈 기라고.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낫다고. 홍 교감 혼자 데리구 다니는 게 낫겠다고, 설득을 했거든. 그런데 이 양반 안 된다고 하면서 둘이나 붙이라고 해가지고 직원 하나가 기관단총을 가지구서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구선 그 사람은 저 산골짜기에 배치돼서 총을 대구 애들 돌아댕기는 걸 겨누고 있잖아요. 도망가면 쏠라고. 그런데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한 놈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 도망을 가가지구선 여기 그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묘에 숨어 있었어요. 그걸 애들이 가서 붙들어 왔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보이스카웃 애들이 두 눔이 가서 붙들어 가지구 왔어요.

참, 웃을 일이지. 그래가지구선 붙들어다 취조를 할 거 아네요. 왜 도망 갔냐구 조사를 하는데. 걔가 뭐라 하는고 하니, 우리 홍 대장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여기구, 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식으루다가 우리를 데리구 다니구 자유롭게 다녔는데, 급작스리 선생님들이 총을 들구서 우리를 겨누구 이렇게 감시하니 아무서워서 워디 하느냐구.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안 붙인 것만 못하지. 하두 그러니까. 그러니 주임들 딴 직원들이 그러지. 보라구, 걔들은 전부 다 홍 교감 혼자 해야 하는데, 직원을 붙여가지구서 도망갔다구. 그래가지구 한창 저희들끼리 중얼거리구 싸우고 그러데. 그래가지구선 일을 마쳤지. 그래서 여기 연못 하나 맨들어논겨. 지금은 없어졌지. 없어지구, 구치소 들어섰잖아요. 그거 그냥 놔둬야 하는데, 그냥 없앴버렸죠. 아, 한국 사람들은 막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데 명수가 아네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다 망가지고, 옛날의 그냥 좋은 책도 다 태워버리고. 연속극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우리도 역대 할아버지들 벼슬 한 유물이 많은데, 다 그냥 없애고 뭐해 가지고, 지금 둘인가 셋인가만 지금 걸어놨어요, 교지, 교지. 그런게 우리나라는요, 오래 견디지 못해요. 오죽해야 중국놈들이 동이(東夷) 8국이라고 그랬을까. 중국 중앙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쪽의 8국이라 해서 8도를 말하는 겨. 8도라고 하면 모욕적이라고 할테니까 나라국자를 써서 8국이라고 했거든. 동쪽의 오랑캐, 팔도에 사는 사람들이 동쪽의 오랭캐다 이거지, 동이8국. 옛날에 동이라는 '이' 자를, 교수들이 말하기를, 그게 하두 기쭉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니 동쪽에 한국사람들은 옛날에 활을 잘 쏘구 그래서, 그래서 사람 이자를 활 궁자를 해가지구서, 오랑캐 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양반을 뜻이라구.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치잖

아. 그래 내가 욕을 했지요. 에이, 여보쇼, 솔직히 가르치구 해서 정신차리구 자라나게 해야지, 그렇게 거짓말 교육시키지 말아라 말이야. 내가 막 욕했지, 내가.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뭐 한 거 아니냐 말이야. 아 솔직히 얘기해가지구 선 정신 차리구 살게 해야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구 그게 제대루 되느냐 말이야. 지금 그 양반이 워디 총장이지 아마. 예전 총장, 교수 하던 동국대학 교수인데, 사학과, 똑 두꺼비 같이 생긴 뚱뚱한 양반 있지? 복스럽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 양반이 가끔 법무연수원에 와서 강의를 하거든. 그래 쉬는 시간에 그 양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옛날에 의거국(義渠國)이라고 있었다는데 의거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냐구. 자기두 그 얘길 잠깐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확실한 뭣이는 모르겄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구파, 신파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구파 양반들은 그런 걸 잘 아는데, 신파 양반들은 그런 걸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다라구 반대하구 아니라구 그런다.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한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나라에도 신파, 구파 야당, 여당이 있었어요, 학자간에. 그래서 의거국 얘기가 당나라 야파 교수 박사인 장경린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학잔데, 그양반은 거짓말을 않고 옳은 말을 하는 학자예요. 의거국이 그 양반 입에서 나온 얘긴데, 의거국이 옛날에 우리나라랍니다. 의거국이 옛날에 우리나라래요. 한국, 한국이었데요. 그게 뭔고 하니, 단군 전, 단군 때서부터나 알지 단군 이전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의거국이여. 우리 의거국이 한 천 년 이상 유지해왔데요. 그래서 그 의거국 시절에 그 서울이 중국에 가면 태원(太原)이라고 있어요, 태원. 그게 옛날 우리나라 서울이유 그게. 그게 저 일제 사변 때 김석원 장군이 제일 먼저 함락시켰지. 태원이 우리 옛날 서울이여.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살아서 그 당시 옛날이기 때문에 야채 뜯어먹구 살았지. 쑴바귀, 냉이, 뭐 무슨 식물, 또 산짐승 이런 거 막 잡아먹구 나물 뜯어 먹구, 그 때서부터 나물 먹구 살았지. 그 역사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은 아니야, 틀림없는 얘기지. 그래가지구서 의거국 때에, 지금 몽고 가면 천막 있거든. 그 몽고 천막이 의거국 시대 쓰던 거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수 장군이 있었는데, 높을 고자, 할아비 수자, 고수 장군. 그 양반이 황하가 맨날 비가 오면 장마가 져서 거기가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고수 장군이 제방을 쌓다는 겨. 그건 중국 역사서에도 나와요.

한국전쟁기의 인천소년교도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난번에 소년형무소가 미군정 때 포로수용소로 사용됐다고 하셨죠?

네, 미군정 때는 미군 범인들, 미군들이 잘못한 거 여기다가 수용했어요. 미육군교도소로 잠깐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1948년 8월 달에 인계했어요. 그래가지구 그걸 우리가 썼어요. 마포형무소 작업장으로. 마포형무소 작업장으로 있으면서 미군부대 청소 같은 거 하고, 물건 정리시키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인천, 지금 수인역전, 지금 거기 신광국민학교가 있어요. 그 자리야 바로. 그게 바로 포로수용소 자리야 그게. 거기서 있으면서 미군들 작업하고 그랬죠. 왜정 때는 미군포로소용소로 사용했지. 왜정 때 일본놈들이. 여기 소년형무소

하고는 다른 데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미군 걔들을 이리 이동시킨 거지. 여기다 하고 우리는 그걸 마포형무소에서 인수받아가지고 거기다 애들 수용하고, 거기다 저 자유당 때 정치깡패, 이정재가 거기서 있었어요.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마포형무소 작업장. 분소지, 그러니까 작업장. 거기서 있다가 나와가지구서 걔가 무슨 서울서 장사를 했지. 여기 〈야인시대〉인가 뭔가에 나오데. 무슨 장사를 하기 전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나오지 않데. 〈야인시대〉에는 여기 뺐어요. 여기 있다가 장사한 거지. 그러다가 1948년 독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아, 정부수립이지 정부수립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운영을 내놓고 여기 인천소년교도소도 미군들이 빨갱이들을 부평으로 옮기구 여기는 우리나라 소년교도소가 됐지. 그래서 여기 소년수 수용하고, 저기도 철수하고 마포로 가고, 거기는 인천소년형무소 작업장이 된 거죠, 저거. 마포로 철수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국전쟁 때 인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6월 25일 전쟁이 나자마자 금방 서울이 함락되었잖아요? 6 · 25가 나자마자 소년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아, 6 · 25 때. 소년수들을 여기다 가둬놓고, 내가 가둬놨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다 데리구 갈 수도 없구. 내가 소년수들을 최양옥 소장 보구선 다 데리구 가자구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 애들을 어떻게 다 데리구 가냐구. 그래서 내가 최후까지 여기를 지켰어요. 직원 15명하고. 내가, 나 하구 마음이 맞는 직원을 15명을 선발해서, 걔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구. 딴 사람들은 벌써

도망갔는데 뭐. 소장이구 뭐구 다 소용없어요. 도망가서 거기 소래, 소래 지금 포구 있잖아요, 저 생선 파는데. 거기 가 있더라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꼼짝없이 시키는데 11시쯤 되니까 그냥 총, 대포소리, 뭐 탱크 굴러오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날이 27일 날이지. 6월 27일 날. 그러니 어떡해. 그래서 직원들보구 그냥 할 수 없다구 말이야, 가자구. 그래가지구서 애들 다 그냥 잠궈 놓구, 전기불 켜놓고. 한창 애들 자지, 11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나머지 15명을, 지금 여기 검찰청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있지, 요기. 들어가는 문. 거기다 집결시켰어, 그 당시에. 거기는 옛날에 밭이었어요, 밭. 그래 거기다 집결시켜 놓구선, 야, 할 수 없다, 하구선, 나머지 갖고 있던 총, 그때는 왜정 때 쓰던 미군놈덜 99식 하고 그런 총이여. 그래 그것 하나씩 들고선 그래 갖고 피난을 갔어요. 그래 가다가 저 소래 뒷산에 산꼭대기 가서 여길 내려다보니까 그냥 뭐 인민군덜이 총 쏘는 불덩어리가 막 날라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래다리 있는데, 포구 있는데, 구름다리 있는데, 거기들 다 있잖아요. 피난민덜도 다 거기있고 여기 직원들도 다 거기있고. 그래서 소장이 날 보더니 아이구,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지. 아, 걔들 도망가고 그러면 어떡하냐, 가둬두고 우리도 도망왔다고, 그랬더니 잘 했다 이거야. 아이고, 잘 했고 고생 많고 수고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걸어서 수원으로 갔거든. 그래 수원 가서 있으니까, 서울 함락해서 괜찮으니까 다시 복구하라고 또 헌병들이 방송을 하데. 그러니 우리는 또 거기서 있는데, 여기 애덜, 우리가 여기다 가둬 두고 왔거든. 애들은 나와 가지고 전부 수원으로 오더라구. 그런데 전부 다 애들이 경상도, 전라도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수원으로 오지. 저희끼리 온 거지. 문 잠근 거 다 때려 부수고 저희끼리

온 거지. 그래 걔들이 수원으로 온 것을 헌병들이 붙들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난 헌병, 경찰 모두 다 합동해가지고 애들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760명을 붙들어놨어요. 그때 거기 수용한 애들이 한 700명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서 760명이 됐지.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 수원역전 파출소 앞에, 광장, 거기다 모아놓고, 헌병들이 수원에서 인천으로 오는 차가 있잖아요? 수인선, 그걸 막아놔가지고 거기서 태워가지고 인천으로 가라고 그러데. 걔들이 그걸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데. 나 고생 지지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헌병들이 다시 수복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인선 차를 붙들어 가지구서, 그걸 다시 태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그냥 7백 몇 명을 데리고서 직원 15명을 데리고 그래 가지고 그 차를 타고선 여기로 왔어요. 그때는 여기 용일역이라고 역이 하나 있었거든. 지금 여기 동양화학 앞에. 그래 거기서 내렸지. 거기서 여기 가까우니까. 용일역,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여기 가까우니까. 거기서 고기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래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그때 사실 애들이 전부 그냥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반항하면 당하고 불안하거든. 뭐 묶은 거도 없고, 그냥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농담하면서 데리고 왔지. 내가 우스운 소리 하면서, 그래 애들 안심시키느라고. 그래서 그냥 여길 데리고 왔어요, 무사하게. 참 그것도, 그때 한창 싸우고 그럴 때거든, 무법천지거든. 그래 도망가도 그걸 누가 붙들지도 않아, 그때는. 그래 무사히 데리고 왔어요. 그래 여기 와가지구서, 법무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뭔고 하니, 좌익수하고 일반 죄수하고 분리시키라 이거야. 그때 여기 좌익수가 많았어요. 그 좌익수들이 뭔고 하니 여수 · 순천반란사건, 걔들이여, 그게. 걔들하고 일반 재소자하고 분리시키라 이거야. 근데 직원들이 누가 그걸 할라고 하지 않애요. 애들 다 운동

장에 내놓고 분리시키면은 폭동이나 일으키면 어떡하냐고선 겁이 나가지고 할라고 하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내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걸 했죠. 그러니까 깜짝들 놀라데. 아이 이거 참, 홍 교감 참 용감하다고. 또 칭찬을 하더구먼. 그래갖구 인제 좌익수는 이쪽으로 서고 일반수는 이쪽에 서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서. 또 애들이 제 얘기라면 잘 들어요. 내가 걔들 참 잘 뭐 하니까. 애들이 참 말 잘 듣죠. 애들이 지랄 같았어봐,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좌익수 애들은 3444라고 거 사방에 좀, 좌익방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방에 한 10명 13명 수용을 해요. 그리고 이쪽 방은 그저 대여섯 명 이렇게 하고, 방이 적어요 그건. 그래 분리를 해가지고 좌익수들은 3444에 수용을 하고 일반 재소자들은 얼마 안 되니까 1동, 2동에다가 분리 수용을 했지. 그러고 나니까 이 소장, 간부들 모두들 그냥 좋아들 하잖아, 그냥. 안심이라구 말이야. 내가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 남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다 했어요. 뭐 그것뿐 아니라 딴 것도 그래 하여간. 그래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지. 하여간 특이한 일은 내가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요즘 나이가 먹고 뭐 하니까 가만히 내가 한 일을 반성해보거든. 아닌 게 아니라 남이 하지 못하는 일, 특이한 일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할 수도 없는 많이 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돈보덤두 참 용하게 그걸 해냈다구, 지금 그런 용기가 어디서나. 그때는 젊은 혈기로 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 가지고 1989년도, 십여 년 전이지. 그때 12월 달에 이 소년교도소를 천안, 천안으로 웬겼어요. 거기다 소년교도소를 다시 신축해가지고 그리 웬겼어요. 지금 천안에다 수용하고 있어요. 천안소년교도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구치소가 됐지. 법원이 들어서고 검찰청이 들어서고, 이게 다 소년교도소 한 자리거든, 옛날에. 그 사진 지도가

내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글 쓰고 그러면 내가 책에다가 할라고, 그건 아주 중요한 사진이야. 값어치가 있는 사진이야. 중앙대학 교수가 그걸 달라고 그래. 그 양반이 한 번 오더니 안 오네. 문학박사던데. 그 양반이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구. 그 귀한 걸 왜줘.

네, 이렇게 좌익수하고 일반수를 갈라놓은 다음에 금방 또 피난을 가셨겠네요?

네, 1 · 4후퇴 때 갔죠.

아니, 그때 인천은 곧 점령되고 인민군이 아래로 다 내려갔잖아요? 6월 27일, 28일 그 무렵 말입니다?

그 당시는 9 · 28수복을 해가지구서, 그 후루 1 · 4 때 갈 적이, 그때도 그냥 놔두고 갔죠, 뭐. 그냥 놔두고 갔는데, 그 아이들은 인민군으루다 갔어요, 그 아이들은. 인민군들이 끌구 갔어요. 그러구 저 우리는 저 여기 작업장, 아까 마포작업장이라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6 · 25 전에 무슨 좌익분자들, 그 무슨 단체 뭐라고 그러더라. 그 단체 예, 보도연맹이요. 걔들 경찰관들이 붙들어 온 거 한 200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모두 시켰어요, 사형. 그래가지구서 그 전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걔들을, 미 LST 화물선, 거기다 태워가지고 부산에 가서 인계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헌병들이 마산에 연행해가고 가가지구 전부 다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리구,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김천으로 왔지. 김천에 와서 우리는 피난생활하

다가 거기서 내가 장가 들고. 그렇게 되죠, 뭐.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네.

네, 아까 좌익수하고 일반수를 따로따로 나눠 가지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끊어졌네요.

네, 그렇게 했죠. 네. 그 후로 또 왔을 때. 그때 인제 걔들을 인민군들이 데리고 갔지. 오래 피난 있다 돌아왔을 때, 인민군들이 데려갔어요. 1·4 후퇴 때도 인민군들이 데려가고. 그리고 1·4 때 여기 작업장 보도연맹 애들 붙들어 온 거, 전부 군법회의에서 사형시킨 거 부산으로 데려가구. 이제 많이 했죠?

덧붙이는 기억과 이야기들

네,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미처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네, 여기 학익동 지역 얘기 했고, 여기 바닷물 들어온 거, 학동 얘기. 학들이 살았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옛날에 이 근처 소나무밭,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범도 있었어요, 범. 문학산에 호랭이도 있었어요, 왜정 때. 그건 저 여기 사람들한테, 옛날 양반들한테 얘기들었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며 교육시키면서 옛날 노인네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몇 해 전까지도 꿩 있고 노루 있고 뭐 여우가 돌아다니구 그랬어요. 여기 교도소 앞이두 여우가 돌아다니구 그랬는데.

네, 그 뒤로 1950년대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 문학산에 기름탱크 들어오고 한 이야기도 좀?

아, 그건 6 · 25 후, 여기 수복해가지구 미군들이 여기 휘발유 땅크를 그 자리가 많아요. 휘발유 땅크를 맨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휘발유 땅크 그 파이프에서 세거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훔쳐오고 그 야단을 피우고 들키고, 뭐 그런 짓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가지구서 나중에 저기 햇골에 있는 휘발유 땅크가 불이 나가지고 뭐 아주 전부 탔번졌지. 햇골이 저기 인하대 앞에 산골짜기 동네 있잖아요? 거기가 햇골이여. 고 위에 그전에 휘발유 땅크가 있었어요. 그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홀랑 타버렸어요. 그게 1963년? 11월 달인가?

네, 어르신 기억력이 상당히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나봐요, 여기 사창가도 생기고?

네,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라구 저 거기에서, 부두 있는 쪽에서 휘발유 파이프로 부평까지, 에스캄, 부평 에스캄까지 그 통로 옆으로다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부평 에스캄에서 거기 휘발유 땅크에다가 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사람, 철도경찰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철도경찰들이 그걸, 파이프를 지키고 있었죠.

해방 직후에 미군들이 있을 때 월미도에는 흑인부대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항만사령부. 흑인부대가 그게, 항만사령부 비슷한 거여. 항만가령부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보이스카웃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호물자도 얻어오고 그랬어요. 그게 흑인부대가 아냐, 흑인들이 많았지.

이 학익동에 사창가가 생긴 건 언제인가요? 인하대 정문 앞에 속칭 "끽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게 여기 저 신흥동에 있던 거여. 거기가 화평동, 신흥동이 아니고, 그 옆에, 그게 지금 신흥동 독갑다리라고. 그게 일본 때 하나마찌(花町)라고 그랬는데, 꽃정이라고 화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화평동이지 아마. 그걸 일루 웬긴 거지. 그거 웬긴 제가 6 · 25 후니까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 인하대하고 학익초등핵교서 딴 데로 옮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웬긴다고 그러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때는 이걸 인주골, 여기 초등학교 있는데 그 쪽에 옮긴다고 그러더니 안 옮기고, 또 재 너머 연수동 어디로 옮긴다고 그러더니 안 옮기고. 지금 그대로 있을 걸요? 그걸 빨리 치워야 돼요.

네, 선생님, 그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지가 참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인천소년교도소에 와서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 작은아버지가 최양옥씨라구 여기 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또 저를 잘 봐가지구, 저를 많이 도와주데요. 그래가지구선 직원들 교육도

시키구, 또 소년수 어린 애들 교육두 시키구,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구선 6·25사변을 당해가지구 피난 대구, 부산 갔다 와가지구, 그래가지구선 저는 이 교도소에다가 보이스카웃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구선 그 보이스카웃 과정을 통해서 애덜 교화시켜가지구. 그 성과가 좋았어요. 재범자도 없구 사고 나는 것도 없구, 또 걔들을, 딴 교도관들이 깡다구로 다루거든, 총대 메구서. 그런데 저는 2-30명을 혼자, 학교 선생이 학생들 데리구 다니는 식으루다가, 혼자서 애들을 끌구 다녔죠. 그런데 애들이 도망도 안 가고 잘 따라 댕겨야 아주,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말도 잘 듣고 또 잘 해요, 수양생활도 잘하구. 그래서 결과가 좋아가지구 재범자가 없어요. 나간 애들이 전부 다 훌륭한 애들이 되구. 그래서 아주 모두 대단히 그 결과가 좋다구 해가지구선 메스콤에서는 와가지구선 많이 PR도 해주고, 또 영화도 찍어주구, 또 테레비 방송에 보도도 해주구, 그렇게 많이들 도와주데요. 그래가지구선 그 결과로서 애들도 잘 하구,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쭉 해오다가. 1985년도 6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쭉 보이스카웃 인천지방연맹, 거기 일을 봤죠. 거기 훈육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 제가 훈육위원장을 맡아 가지구선 계속 애들 교육도 시키고 선생님들 지도자 교육도 시키구. 그렇게 쭉 해왔죠. 그런데 요새는 나이가 많아가지구 놀구 있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선생님의 구술자서전 채록 작업을 일단락 하겠습니다. 여러 날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



지금 살고 계신 집 대문 앞에서

용현동서 48년, 온갖 행상으로 일곱 자식 키워낸 조경희씨

■ ■ ■

구술자 조경희 · 채록자 홍명진*

칠 남매의 어머니, 올해 일흔일곱인 조경희씨는 용현고개 아래 웃메길에서 48년을 살아온 인천 토박이다. 1930년 화수동에서 태어나 열아홉에 강화 사람인 남편 윤만학씨를 만나 꽃가마 대신 인력거를 타고 시집을 왔다. 신접살림을 차린 만수동의 단칸방에서 시어머니, 시동생과 함께 살며 그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끼니 이을 양식조차 변변치 못하던 시절, 남편은 아침 일찍 자전거를 끌고 나가 아이스께끼 장사를 했다. 육이오 전쟁을 겪고 남편이 공설운동장에 취직이 되어 일을 했지만 해수병으로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조경희씨는 행상을 시작했다. 식전에 집을 나가 생선을 팔고 들어와 아침 한 술 뜨고는 다시 소금다라를 이고 나가 소금을 팔았다. 깡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하루 종일 동네를 누비며 다녔고 여름에는 과일 행상을 했다. 나이 마흔넷에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술장사와 도둑질 빼놓고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팔아봤다는 조경희씨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행상이라도 하지

---

* 1967년 경북 영덕 생. 2000년 전태일문학상 수상. 2002년 『작가들』로 작품 활동 시작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왔겠느냐고 말한다. 일곱이나 되는 자식을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다. 자식들이 하나둘 커가면서 집안 살림을 돕겠다고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열심히 살아주어서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고달픈 삶은 늘 끔찍했었다. 처녀 시절을 보냈던 숭의동과 도원동, 용현동 일대, 한 번도 인천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조경희씨는 지금도 둘째딸, 막내아들과 함께 용현동 그 동네 고 골목에서 삼대가 함께 살고 있다. 3차례의 인터뷰 방문은 조경희씨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품인 조경희씨의 구술에 인터뷰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48년 전에 하꼬방 집을 사서 왔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통장 집이라고 문패 옆에 팻말이 붙어 있네요.

이게 통장을, 우리 막내아들이 [했지]. 그랬는데도 애가 원체 잘했으니까는 저렇게 딴 사람을 대줘서 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허구 지금 그런다고. 그래 저걸 못 띠(떼)고 그냥 있잖아.

막내아드님이 저번에 구의원에 출마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응, 민주노동당으로 나왔지. [선거에] 나오면 통장을 못헌대요. 그래갖고 [통장을] 나왔잖아(그만뒀잖아). 나와갖꼬 지금도 뭐 활동허긴 허는데도. 아유

---

* 매끄러운 연결을 위하여 생략된 말은 [ ]로 묶어 표기했습니다.
*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나 입말, 지문은 ( )로 처리했습니다.

뭐…….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 바라보고 해야지요.

글쎄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몰르지 뭐. 남이 다 해주는 건데, 외레 이 동네에 살면서락도 이 애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동네가] 쪼끄만 데다가 전부들 그 전에는 한 집안 식구겉이 남이락도 그렇게 살았는데 다들 뿔뿔이 히지고(헤어지고) 딴 데로 이사 가고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애 얼굴을 몰르는 거야.

이 동네에 어머님처럼 오래 사셨던 토박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요. 없어. 아이구 뭐 내가 그 전 같앴으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더라고. 자꾸 이사 가고 죽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그래갖꼬 이번에 구의원 나오는데 외레 우리 동에서는 표를 쪼금 얻었어요. 딴 동에서들 그렇게 많이들 해준 거야. 이번에 그랬다고 얘길 허더라고.

여기 처음 용현동 요 자리에 이 집 지으신 거예요?

아니야. 하꼬방 집을 지어놓은 걸 사(사서) 왔지.

그럼 그 집 사서 늘린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구 그거야 골치 아프죠. 사람이 사는 게 하하하. 우리가 도원동 공설운동장 안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우리 영감이 토목과에 반장했더랬어. 그러니까는 관리를 허고, 토목과는 이런데 댕기면서 일허고 그러잖아요. 가로수도 비고 그러니까는 누가 말해줘서 거길 들어가서 거길 댕겼다고. 거기 댕기다가는 공설운동장에서 원체 사람이 똑똑허고 얌전허다고 인제 공설운동장에서 채용을 헌 거야. 우리는 이 사람을 써야지 [되겠다구요]. 운동 경기하고 그럴 때 라인 그리잖아요. 하얀 걸루다. 그런 거 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허니까는 그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인제 일허기로 돼 있었어. 근데 그 야구장에서는 거기서 일허는 이 하고 또 저기 자전거 선수하고 그렇게 두 집만 살았더랬고 우리는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육상장에서, 육상허는 데서만 거기다 하꼬방을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서 관리를 해가면서 살았어요. 살다가는 아이도 거기서 한둘 낳고, 거기서 내 길러가주고, 그러고 났는데 근데 쟤네(애들) 아버지가 아픈 거야. 아파갖고, 우연찮게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이 들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돈이 쪼금 있으니까 인제 약을 쓰고 뭐 별 짓을 다아 해도 안 듣더라고. 병이 그렇게 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돈도 무척 없앴어. 그 전에는 택시 타는 사람이 없었더랬어요. 웬만하면 못 탔다고. 못 타고 그냥저냥 그렇게 하면서 아프면석도(아프면서라도) 댕기면서 라인 그리는 거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인제 시청이니까 돈이, 월급이 한 달에 얼마씩 나와가지고 쌀 사먹고 그러고 살면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했다고.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거기 아이들, 학상들 오니까 먹는장사. 빵 같은 거 도나스 같은 거, 이런 걸 창녕동 가서 그걸 바구니에 한가득 [받아 가지고 와요]. 빵 가지러 갈라면 새벽 다섯 시에 가야 돼요. 새벽 다섯 시에 가서 대서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 아홉 시 된다고. 그러면 학상들이 전부 겨울이나 여름이나 연습하고 그러니까는 삘(비는) 날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쬐끄맣게 내가 하꼬방을 요렇게 우풀이를(위를) 해놓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살림해가면서 그러커고 살아왔지 뭐. 그러다가 영감이 병드니까 뭐 어떡해. 시청 사람들이 아이 그냥 슬슬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으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

러니까, 아이고 고지식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공짜는 절대 싫어허는 사람이니까.



하꼬방 집에 살 때… 김칫거리를 앞에 두고

할아버지가요?

예. 아주 뭐, 지(자기) 털 빼서 지 구녁에 박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참 피곤하더라고. 첨에는 그 걸 몰르고 살아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윤씨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저냥 있으라고. 여기서 집 지고(짓고) 그랬으니 아이들 데리고 그냥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 얼굴 들고는 도대체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고 자꾸 맨날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돈 해다가 계를 쪼끄만 걸 창녕동에다가 하나 들었더랬는데, 그거이 탈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타 가지고, 그때가 2만 원인지 얼마짜린지를 들었나봐. 계를 타가지고설랑은 에이, 그러면은 저기 계를 얼마짜리 타니까 쪼끄만 하꼬방이락도 하나 사게 그러면 가서 돌보쇼(돌아보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게 도원동서 여기를 그때 온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와 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얘기해서 오니까는 하꼬방이야. 근데 가게를 허드라고요.

하꼬방 자리가 가게였어요?

예. 고 자리가. 근데 이 동네가, 용현동 이 큰 동네가 가게가 하나도 없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태기가 인제 거기 가면 장사하면 밥은 먹갔다, 그러고설랑 그걸 기약(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나도 몰르는 새에 그걸 기약을 허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쫓아서 덜렁덜렁 오니까 아이구, 세상에, 어디 살갔어요. 하꼬방 같은 데서 그냥 방 쪼끄만 거 두 개에다 부엌 있고 그렇게 있는 데다가 샀으니 글쎄 그걸 어떡허냐고. 그러니 그 전에는 돈을 물를 줄을 알아요, 무슨 어떻게 헐 줄을 알아요. 몰르니까 그걸 그냥 날짜 잡아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아유, 저기 지금 48년? 48년 됐어. 우리 아이 지금 마흔여덟 살 먹은 아이 태서(임신해서) 왔으니까. 태서 와서 겨울에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설랑 거기서 사는데 장사를 헌다고 허는데 물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깡(깡시장)[1]에 가서 띠(떼)오기도 하고 하루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죽갔냐구요, 사람이. 그러카고 살다보니까는 겨울이 닥쳐왔는데 애를 섣달에 낳은 거예요. 섣달에 낳는데 아이구, 장사는 섣달에 대목을 봐야 할 텐데 아이를 낳았으니 어떡해. 새벽 4시에 낳구설랑은 그냥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깡에를 간 거예요. 큰 다라를 이고설랑 가서 거기서 세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 도원동 있잖아요. 저 너머 도원동 거기 깡 있을 때게. 거기 깡시장 있을 때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기진맥진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저냥 밥도 뭐 식구가 많고 쌀도 그러니까는 인제 보리쌀을 많이 섞어서 해먹는데 아이구, 미역국에다 보리밥은 못 먹갔더

1) 농산물이나 온갖 물건들을 도매로 펼쳐놓고 파는 재래시장을 이름

라고 으응. 차라리 수제비에다가 먹으면 먹었지 못 먹갔더라고요. 게도 그래 억지로 먹고 그러고 장사를 하고 인제 일주일 동안은 있는데, 내일이면 초하룬데 오늘 저녁겉이 밤새도록 장사허고 그러고 나서 인제 자러 들어가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룻날 지사(제사)도 못 지냈지. 작은집에들도 오지들도 못허지 그러니까 그냥 지사를 못 지낸 거야, 포기허고. 보통 앓아야지. 아이 어머니가 막 떨고 그냥 땀이 나고 또 떨고 이러니까 이우제(이웃에) 할머니가 기셨더래는데, 야 아무래도 아이 엄마 죽겄다고 야단을 치고 방에다 불을 떼고 이렇게 해서 지지고 있는데, 닷새 만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장사를 허는 거지 뭐. 그니 방은 요거만한 데다가 몇 식구야. 여덟 식구가 사니 글쎄 얼마나 진짜 힘들어. 그러게 한 사람 이렇게 자고 한 사람은 저렇게 자고 (손바닥을 바닥에 펴놓고 엇갈리는 흉내를 내신다) 한 사람 머리 이렇게 자고 엇갈려서 자는 거야. 아이구, 그러커고 자고 나오먼은 요기 있는 할머니가 기셨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뭐 사러 오시믄은 문을 열어본다고. 아유! 야 얼마나 대견허냐. 이렇게 대견헐 수가 없다. 너희들 돈 없고 먹을 거 없어도 배불른 집이다, 배불른 집이다 자꾸 그래. 그래서 내가 할머니, 입에 들어갈 게 없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 그러면 얘 너 쪼끔만 참어라, 쪼끔만 참어라 맨날 오시면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님 딸이 무당인데, 만신했더랬어. 게 거기서 밥이고 떡이고 나오먼은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너무 고마우니까 또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게 되더라구요. 우리 아이들 다 멕여살리는데 어떡해. 게 가서 여기는 그 전에는 수도가 없고 우물인데 저 아래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꼭 퍼서 지고설랑 인제 갖다 붜(부어) 주고. 그 집은 물을 많이 쓰니까. 그러커고 살았는데 세상에에(한숨을 길게 쉬신다) 이 영감님(남편)이 하루 이틀, 하루 이틀

그게 시들시들(미간을 좁히시고 말을 길게 늘이시며) 허는 거야. 병이 들어서.

장사를 갔다가 [또] 집이서 장사를 했는데 너무 먹는 게 많으니까 금방 동해 번쩍 허는 거야. 애들이 몰래몰래 먹어가지고. 그러니 천 원어치 팔면 오천 원어치를 먹으니 어떡케 당하냐구요. 못 당하더라고. 그걸 떠 엎어버리고설랑은 내가 이제 밥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을 해서 부뚜막에다 그 전엔 뭐 뜨뜻헌 거이 어딨어요. 부뚜막에다 쭈욱 일고여덟 그릇 퍼서 덮어놓고는 생선장사 나가는 거야. 다라이 이고. 다라이 이고설랑 생선장사 나가먼은 저기 저 제물포 있잖아요. 그 꼭대기 거기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 올라가는데, 거길 그 꼭대기로 해서 올라가서 공원 있는데 그쪽으로 집들 있는데 거길 막 더듬는 거야. 게서 생선을 받아가지고 다 팔고 집이 들어오먼은 아홉시 열시 고 정도 되면 그저 밥 한 숟갈 후딱 떠먹고 또 치고(치우고) 뭐 빨 거 빨고 그러고 또 인제 소금 장사를 나가는 거야, 곤소금(고운 소금) 장사를.

생선을 팔고 들어오셔서 또 장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 아래 가서 소금을 다라이에다가 한 다락 사갖고설랑 이고 돌아댕긴다고. 그 전에는 소금 이런 장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갖다 다오 어쩌다오 그런 게 없더랬거든요. 이고 댕기면서 파는 거밖에 없었어. 그때만 해도 한 양재기에 백 원씩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걸 팔면은, 한 다락을 팔면은 밥은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해서 허구헌 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러카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타령하듯이 느리게) 살다보니까는 인제 우리 큰딸도 나이 좀 먹고, 저이 아버지 인제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 걸 아니까는 핵교를 댕기다가, 고등과를 서울로 댕겼는데 야간 고등과 댕기면서 시청에서 일보고 그렇게 댕겼는데 그냥 헐 수 없이 그만 둔 거예요. 돈을 댈 수

가 없으니까. 저는 목표가 공부해가지고 선상 노릇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글쎄 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못했잖아. 그러니까 인제 시청에 도로과장이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는 걔를 날 다오. 그러면 내가 가리켜서 선상(선생)을 보내든지 저 원하는 대로 보내주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는데도 영감이 막 펄펄 뛰는 거야. 못허게.

딸을 못 보내시겠다구요?

예.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이 여지끈(여지껏) 살아 있잖아요. 데려간다던 이가. 그래갖구서 아이만 망쳤다고요, 글쎄.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그냥 어서(어디서) 팔난봉 그런 놈을 얻어가지고. 그냥 중매를 했는데 속아서 해갖꼬 지금 혼자 살잖아요. 아들 둘 낳고설랑. 걔는 그냥 그 타입이야 [공부할], 타입이. 전부다 주라고 주라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 죽기 전에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깐 헐 수 없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부평 전자 맨드는 공단에 거길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한 푼씩 두 푼씩 타 오는 거를 천 원 타 오면 3백원 쓰고 7백원은 저금을 헌 거예요. 저금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락도 시집가면 내(엄마)가 목돈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렇게락도 헌다고. 어렵게 사는 놈 그거 그냥 벌어오지 않은 셈 친다고 그러컨다고 고걸 7백원씩 그걸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냥 몇 년을 들었더라구요. 들어가지고설랑 그걸 고운고운(고분고분) 한 삼사 년 있으면 탈 텐데, 쟤 아버지가 병이 아주 꼼빡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헐 수가 없으니까는 성모병원에다가 시청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얼마 살지 못하니까는 잘 살아야 한 달 살기나 말기나 헌다고, 나가라고 허더라고요. 그리고 안 받아줘.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모시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구요

할아버지는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괜히 숨이 차가지고. 해수병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기냥 우리 딸이 울면서 그러면은 어떡하면 좋으냐니까는 더 이상은 손 쓸 수도 없다고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와가지고설랑은 딱 한 달 되는 날 아침에 돌아가더라고요. 인제 죽으니까는 뭐 아이들도 전부 핵교, 중핵교 그냥 겨우 댕기고 그저 중학교 딜여보냈더니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벌어먹는다고 또 지들이 나와서 공장에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아이들이 둘, 셋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딸은 내가 아버지도 이렇고 엄마 혼자서 벌어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장사락도 헌다고 동인천 나가서 신문, 왜 구녁구녁(구역구역) 신문 팔잖았어요? 그거를 팔았단 말이야. 구녕(구역)을 맡아갖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열 개를 팔면 얘는 백 개씩 팔았어요. 작은딸이 그렇게 손이 걸어. 장사도 잘해 아주. 게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쥔이, 물건 가져오는 이가 어쩌면 장사도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머리에 삔(핀)을 어떻게 사서 꽂아요. 머리가 내려와도 그냥 매기만 하지. 색색이 삔을 사다가 꽂아주고 그러니까 얘는 신이 난거야. 장사를 더 잘할라고 그러고 노는 날도 장사만 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유 시상에 얘 같은 아이가 어딨냐고 이랬다고요. 너무 착하고 아이가 고지식하고 얌전하다고. 그래갖고 그거이 쪼금 벌어서 보태고 우리 큰딸이 그거 3백원씩 쓰고 남은 거 고거 보태고. 또 저기 그러고 나서 인제는 버는 놈이 없지. 고 아래로 중핵교 보냈더니 운산인가 운범인가 지금 선인재단 거기 갔지 뭐. 공부도 못허지 뭐 그냥 안 보낼래도 우신(위신)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보냈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걸 보태서 좀 먹으니까 영감이 점점점, 점점 더 허니까 내가 집이 있으면서, 그래도 으응, 남들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저 할아버지 저러다 혼자 죽게 생겼으니깐 할매가 그래도 며칠 집에 있어야지 안 되갔다고 오기만들 허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사람 목심 그렇게 금방 끊어지갔냐고 그랬더니 아이 아니라고, 저 할아범 오래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메칠 놀면서 인제 그냥 양말짝도 아이고, 양말도 당헐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 언니네가 부자로 사니까 거기서 한 번씩 신었던 거 얻어다가 그걸 빨아서 기워서 신기면 그냥 아침에 신기면 저녁때 들어오면 뻥뻥 다 뚫어지는 거야. 아이구 속상허고.

옛날엔 양말도 잘 떨어졌잖아요.

아유, 말도 못해요 아주. 그러커고 살다가는 할아버이가 어느 날 저녁에, 저녁때 됐는데 이상헌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내가 언니네 보고설랑은 조카가 왔길래 야, 아무래도 이모부가 돌아갈래나부다야 그랬더니 그럼 나 집이 가서 엄마보고 얘기허께요 그래요. 저희도 여기 사는데, 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언니가 오더니 야 오늘 저녁 냉기기(넘기기) 힘들갔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죽을 사람은 어서 죽어야지 했다구. 아주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만, 죽을 때까지 앉아서만 있었어요. 드러눕질 못허고. 숨차서 그냥 이러커고 (허리를 꼿꼿이 펴서 앉은 자세를 해보이며), 이러커고 있었는데 못 보갔더라니깐. 그러면은 옷을 다른 걸 갈아입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설랑은 우리 작은딸이 돈 쪼금씩 [모아서] 옷을 사다가 걸어놨는데(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입고 어딜 갈라고 그러는데(그랬는데) 인제 못 입어봤으니까 그걸 입혀주니까 그러케 좋아하더라구요. 너 왜 나를 이걸 입혀주냐, 왜 입혀주냐 [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한번 입어봐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저(작은딸)허고 나허고 같이 입혔더니 아주 그렇게 좋아하더라구요. 장갑도 사다놓고 그런 걸. 옷을 싹 갈아입히고 났는데, 그 전에 이 동네 할아버지도 많고 그랬어. 그 할아버지들이 다 와서 들여다보더니 아이구 오늘 냉기기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긴게(그러니까 이제) 작은집 식구들도 다 와서 아이들서껀 작은아버지서껀 와서 지키고 앉았는데 그냥 그렇게 애만 쓰고 얼른 눈을 못 감는 거야 응. 거 아이들 보면 눈이 감기갔어요 안 감기지. 그런 걸 두고 죽으래니 생각을 허니까. 그러니까 인저 작은아버지서껀 밤새도록 앉아서 꼬박이 새는 거야. 그러더니 새벽녘에, 차갑잖아. 그때 아이들 겨울방학 했는데 여섯 시 넘었는데 드러눕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만히 드러누웠을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드러뉘여 달래요. 그래서 가만히 드러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만지지도 못허고(못하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상허다 이상허다 그러고 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가서, 그 전에는 낭구(나무)를 땠으니까는 군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많이 때세요. 저기니 저 웃묵도 뜨뜻하게 때라고 그랬더니 한 아궁이씩 지펴놨는데 아 고새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는 딸꾹질을 딱 한마디(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벌써 숨진 거야. 아유(한숨을 길게 쉬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이 건넌방에서 자는데, 야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건너와서 부르니까 눈이나 떠요? 벌써 감았지.

그때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요? 그때가 쉰둘이던가 그랬어. 아이고, 정신도 없어. 그러커고 났는데 큰딸이 가서 그냥 안고 막 그래도 가만있는 거야. 그러니깐 작은아버지가 뛰어 들어오더니 야, 아버지 운명했다야. 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펄펄 뛰고 울고 난리났지 뭐. 그때 보니까 여덟 시 조금 못 됐더라고.

그때가 저녁이었어요?

아니 아침에. 그러니 돈이 있나 무슨 뭐 쌀이 있나 고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그러는데 쌀도 그렇고 그랬는데, 항아리에 보니까는 [쌀이] 조금 있어서 납작보리 섞어서 밥을 해서 먹고 그러고 났는데, 여기저기서 그 전에는 알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는 당신님들이 오면가면 다 알아서 얘기하더라고. 장사를 3일장을 지냈는데 요기, 요기가 공장이 있더랬어요. 시계 저런 거, 시계 케이스 맨드는 공장이 있는데 또 우리 작은딸은 거기 들어가서 댕기고 우리 큰아들은 거기서 사무를 보고 그랬는데 그때 인제 월급을 처음 한 번 타왔는데 시상에 그 돈을 보니까 너무 아주 가슴이 뿌듯한 거야. 그래가지고설랑은 그렇게 거기서 공장에서들 돈들 거둬서 가져와서 장사를 치뤘어요. 화장을 했지. 그 전에 신기촌에 화장터 있을 띠게.

아, 신기촌에 화장터 있을 때요?

예. 그때 돌아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화장허고 그러고 났는데. 아이고 그래도 집이서 장사 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문 열고 인제 오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장사 갔다가 와도 누가 그러는 사람도 없고. 고거이 메칠은 좀 쓸쓸허더라고. 그러커고 그냥 그래 살다가 자기 운명대로 죽고. 아유 불쌍하죠 뭐. 고상(고생)만 허다가 정말 새끼들 많이 낳아놓고 고상만 하다가 죽었으니까 불쌍허죠. 그래서 인제 내가 그때부터 나가 댕기면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냥저냥 먹갔더라고요. 남한테 꾸러 안 가고 돈 빌리러 안 가고.

남편 죽고 한 3년 있다가 큰딸이 시집을 갔지

그러고[남편 죽고] 한 3년 있으니깐 우리 큰딸을 누가 시집을 보내라고 그래서 지가 안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 옆엣집이 있는 에미가 그럼 내가 중매 저기 하니까 보내라고. 거기는 식구도 없고 시어머이 하나 신랑 하나니까 보내라고. 강환데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아직은 뭐 우리는 준비도 안 되고 돈도 없구 애아버지 돌아간 지도 얼마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 집은 뭐 해갖꼬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신랑만 참하면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을 봤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질 않더라고요.



큰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예. 그래서 나 생각해봐야갔다고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맨발벗고 막 나선거야 전적으로. 근데 이건(큰딸) 안 간다고 그냥 막 펄펄 뛰지 나도 그렇지. 그런데 밤낮으로 문간에 와서 섰어요 가지도 않고. 그러니 사람이 겨울겐데(겨울인데) 시상에 어떻게 정말 거지도 뭐 줘서 보내면 가는데 가지도 않고 밤 열두시가 돼도 안 가고, 그니 문을 잠가놓고 있으니 그냥(인상을 쓰며 길게) 좀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아주 못 열

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야 어떡하냐 저 사람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는 내일 오라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일 니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엄마도 나서지 말고 내가 해결질 테니까는 엄마 절대 나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가서 그 소리 허니까 가더라고. 기 인제 요기다 방을 얻어놓고 지네 엄마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몰랐잖아, 우리는. 깜빡 속았지.

이 동네에다가 그 사람이 집을 얻어놓고 있었다구요?

예. 그래 가니까는 갔나보다 하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몇 시야? 열두 시 쪼금 넘어서 또 왔더라고요 글쎄.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열두 시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따님이 남잘 만나러 나갔다구요?

예. 아이구 이거 큰일났다고, 큰일났다고 누가 납치해갔나부다고 막 큰일났다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그 집이 사우(사위) 엄마가 우리 집엘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길래 내가 몰르갔다고, 글쎄 지가 그러커고 나갔는데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떡허면 좋으냐고 막 울고불고 밤을 꼬박이 샌 거야. 샜더니 그 이튿날 왔는데 보니까는 문산을, 저희 누나네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글쎄. 이러언. 그러니 어떡허냐고. 남의 남자를 쫓아가서 밤을 새고 왔으니 어떡허냐고 으응. 그러니까 그때 어떡해, 허락을 해야지 허떡허냐고요. 나는 정말 여지끈 이래 살면서 이런 꼴은 난생 처음이니까 그냥 해야지 어떡허갔냐고. 그래갖꼬 날 잡아서 정월달에 [결혼]했는데. 근데 정월달에 헌 게 좋지 않데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대요. 정월에, 정월 보름 지나서 한다고 했는데 지가 인제 돈 타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던 거를 다 지(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적금 들고 뭐 한 거꺼정 다 인쇄를 해주더라고. 자네가 이거 갖고 있다가 얘 시집가면 뭐 해주라고. 그걸 타 가지고설랑은 허니까는 꽤 많이 여퉜더라구요(모았더라구요) 그때는. 그래서 장(장롱) 사고 뭐뭐 별거 다 했지. 허다못해 빗자루까지 내가 다 했다구요. 다 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니깐 여기서 차에다 싣고 연안부두 가서 배에다 실어야 된대요. 그래서 배에다 싣고 그러고 강화도 아주 끝이야. 주문이라고 아주 끝인데 거길로(거기로) 가는 거야.

따님이 시집을 가는 데가 강화도 주문이라는 곳이에요?

예. 시집을 가는 데가. 아이고 시상에 우리네 생전 그런 델 가봤어요? 첩첩산골이고 세상에 길만 옆에 뚫렸는데 맨 산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우냐고. 그러니 저도 이런 데서만 살다가 그런 데 가서 살래니까 얼마나 무섭갔냐고. 그래서 인제 내일이 잔치니까 오늘들 다들 여기서들 한 이십 명이 내려갔어. 저(큰딸) 친구들서껀 내려가가주고 그 이튿날 신랑집이서 예식을 하구설랑은 바로 와야지 하는데 배가 없어요. 배가 자야지만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자냐구.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설랑 거기 뭐야, 배터에 나와가지구 거기서 배 갖고 허는 사람들한테 의논을 했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러케 잔치가 돼서 와서 이러커고 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이십 명이니까는 우리들 좀 태다(태워다) 달라고. 그러면은 돈을 섭섭지 않게 디릴 테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사정을 허니까는 그 동네서들 전부 나와가지구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허니까는 태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월미도 거기다 내려줘서는 거기서는 전부들 뿔뿔이 히져(헤어져)갖구설랑 인제 집이를 왔는데, 아유, 나는 참 생전

그런 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오면서 내가 그랬어. 저렇게 첩첩산중에서 저걸 어떻게 살갔냐고. 이런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살아야지 어떡허겄냐고 그냥 울면서 오니까는, 그 사우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응, 걱정허시지 말라고. 내가 다 있으니까 걱정허지 말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우리 온 지 이틀 만에 글쎄 색시 혼자 띠버리고설랑 저는 배를 나간 거야. 새우젓 잡으러 간다고. 아유(한숨을 깊게 쉬다) 세상에 그러니 하늘이 노랗지 뭐. 거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밤이면 무서우니깐 거기 시골이락도 아무리(아무렴) 무섭지요. 뭐 생전 이런 데서 살다. 유리를 요렇게 창문에다 붙여놨는데 밤새두룩 그냥 바람 불고 그러면은 그 나무에서 와작와작 소리 나니까는 인제 사람 들어오는 줄 알고 밤새도록 고 문, 고기만 내다보고 그냥 이러커고 하루 이틀 사는 놈의 거, 거기서 3년을 살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이가 있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해산구완 해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병원에 가서 낳고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보낸다고 그랬더니 보름 쪼끔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오더니 아이구 내가 데리고 가서 몸조리 시킬 테니까 데리고 간다고. 그냥 끌고 가더니 내비리고, 갖다놓고설랑 당신님은 그냥 인천으로 와가지고 돌아보지 않아서 아이 어마이가 막 산해바람이 나고 그래갖꼬 그 동네에서 오삼촌댁(딸의 시외삼촌댁)이 사는데 그이들이 와서 불때주고 국 끓여서 밥해주고 이렇게해설랑 먹고설랑 하루이틀 살다보니까는 3년을 산 거예요. 돌 때, 그 아이가 돌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인제 간다고 반지 한 돈 허고 아이 타는 거 그런 거, 또 옷 한 벌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갔더니 정말 못 살갔더라고요. 그래서 얘 웬만하면 인천 가서 살아야지 안 되갔다, 안 되갔다 그러니까는, 엄마 내가 못 나가게 해도 나 혼자 나갈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 그러기에, 그래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 어른들허고 의논해서 해라 그랬더니 할마이는 못 나가게 야단이죠 뭐.

따님 시어머니가요?

예. 시어머니가. 그러니 이게 강제로 나온 거야. 자기 몸만 나온 거야. 옷도 별로 싸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래갖꼬 어떠커고 왔냐 그랬더니 나 혼자 아주 나왔다고 그러기에 그러커면 되냐 안 되지 그랬더니 아이 지가, 신랑이 살고 싶으면 오는 거고, 살기 싫으면 마는 거니까 엄마 나 혼자 그냥 나왔어 그러길래 아유 그러냐, 그러고 만석동에다가 사글셋방을 한 달에 천오백 원인가 그렇게 내고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방을 얻어줬더니 남자, 이 놈의 사위가 나온 거야. 나와갖고설랑은 저도 배를 타니까 뭐 고상만 하지 돈도 그냥 잘 벌지도 못하고 오삼촌네 배를 탔대는데 고상만 직살나게 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나와 보니까는 그렇게 고상 안 하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머는 어디 공장엘 들어가게 그랬더니 지가 톺아서 들어간다고, 대한제분이래나 밀가루 공장 있는 데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저냥 댕기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댕기다가는 쪼금 댕겼으니까 딴 데로 좀 윙겨봐야갔다고. 아이도 커지고 식구도 또 늘 텐데 안 되갔다고 그래갖꼬 지가 나와가지고 딴 데 좀 댕기다가는 도로 생선배를 탄 거야 이제. 그때는(그 전에는) 새우젓 배를 탔는데 생선배를 탄 거야. 한 달에 두 번씩 조금이면 꼭 들어오더라고요. 초여드렛날 들어오고 스무사흗 날 들어오고 고렇게 딱딱 들어오는데 이게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관장 노릇을 헌 거야. 그러니까 기관장은 인제 생선을 가져와도 한 짝을 먹고 거기 일꾼들은 반 짝을 먹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는 걸 뭐 한 짝씩 다 먹갔어요. 먹으면 먹갔지만 해도. 긴게 내가 이제 좋은 것만 골라서 팔아주는 거야. 내가 이고 댕기면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양념 사먹고 아이허고 돈 쓰고 그러면

충분히 허니까는 그렇게 해라 그러고. 찌꺼기 요만씩 허고 버리지 않을 정도 고런 거는 다 주서서(주워서) 집이 노놔 먹고 이러카고, 하루 이틀 살아온 거예요. 하하하. 그러고 걔 시집보내고 나서 3년 있다가 딸(둘째딸) 시집보내고 지 오빠는 군인 갔다와서 3년 만에 또 장개(장가)보내고 또 고 담(다음)에 2년 만에 아들 또 장개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일곱을 그렇게 쭈욱 보낸 거야 이제. 아이구 그렇게 살면서 고상만 직살나게 허고 그랬는데. 이 막내가 지 성들허고 층하가 많이 져요. 안 날라고(낳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늦게 생긴 거야. 지 형들하고도 한 10년 차이 지죠. 큰성허고는 뭐 10년도 넘어 [차이가] 지고. 지금 우리 큰아이가 쉰셋인데, 얘가(막내) 서른여덟이니까 많이 지잖아요. 고아래서는 좀 난데(나은데). 그거(막내) 인제 군인 갔다와가지고 지 성(형)이, 싯째 놈이 저기다가 제분소[2] 차려놓고 하니까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휴가 나오면은 거 가서 일을 허는 거야. 일을 해서 지 성이 용돈 주면은 나 얼마 갖다 주고 지가 가주고 가고 이러고 그냥 고걸 약빠르게 밴(배운) 거예요. 배(배워) 가지고 지가 인제 허는 거예요. 지 성은 지금 러시아로 애들 데리고 공부시킨다고 다 갔어요. 가족이 다.

제본소 하던 아드님은 이민 갔어요?

어, 러시아로 갔어요. 고 기집애(손녀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는데 영어만 한대요. 조선말을 못헌대. 접때 전화 왔는데 얘기허는데 조선말을 몰른대요. 아들(손자)은 걔는 대학교 거기서 댕기는데 핵교서 조선말도 밴데요(배운데요). 그래가지고설랑은 이제 조금 통화 그걸 허는데 여자아이는 몰른데요. 허허허. 근데 나온다고 허더니 올해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러커고 사는

2) 할머니의 오류-제본소를 말함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아유 징그러워.

아이들 다 키웠던 하꼬방 집은 헐려서 없어졌지

하꼬방 집에서 이쪽 집으로 오셔가지고 장사하시면서 요 동네 변화된 모습이나 집 늘릴 때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집 늘리는 것도 없었죠 뭐.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헐라고 그런 거예요. 요기 길난 데서. 그러니깐 하꼬방에서 사니까는 식구는 많고 죽겠지 뭐. 그러니까는 거 우리 집 하꼬방 우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돈이 쪼끔 모아 있으니까 야 안 되갔다, 우리 양회 좀 사고 땅을 조금 사서 고기 위에다가 슬라브를 치구 설랑은 방을 쪼끄맣게 하나 들이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다 그러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양회를 허고(사고) 모래를 사고 이렇게 해서 사람 한 사람 얻고 슬라브를 치는 거야. 밤에만. 일들 갔다 오고 밤에 여덟 시섬부터 슬라브를 치면 시(세) 시꺼정 친다구요. 한 대여섯 명이서. 그러는데 하루에 못허더라구요. 그걸 삼일에 쳐서 다 해놨어. 그러고 공구리를 해놓고 거기서 자기도 허고 여름에는 그런다고 그렇게 해놓구설랑은, 여름에는 거기서 자고 겨울게는 못 자고 거기다가 많이 필요한 것들 그릇이고 뭐고 갖다 올려놓고 살다가, 사는데 거기가 인제 헐린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헐 텐데 어떡허나 그랬더니 이거 무허가 돼서 돈도 못 받는데요.

아, 양회 공구리 다 쳐놓고 사는데요?

다 쳐놓구선 거기서 살만 허니까는. 방도 쪼끔 파서 늘려서 넓게 해놓고 그

때는 살만 허게 해놨다고. 그러커고설랑은 거기서 아이들 잔치, 거기서 다 여의었잖아. 막내만 이 집에 와서 여의었는데, 아이 여섯을 다 거서 장개들였어요. 장개들이고 시집보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살만 허다고 그러고설랑 살았는데 헐려갖구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는 우리 딸(둘째딸)이 이걸 사놓구선 비워 놨더랬어요. 엄마 어디로 가지 말고 막내하고 여기서 그냥 사세요. 저희는 숭의동에다 집을 사놨으니까 거기서 사는데 엄마가 살면 내가 차차 집을 팔든지 우리가 와서 살든지 헌다고 살라고 허더라구요. 고맙지 뭐예요. 사위서껀, 그렇게 사위가 잘허니까는.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지가 그러니까 지끔 여기서 얼마 있댔어. 20년이 넘었어요.

이 집에서도 오래 사셨네요.

예. 여기서도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오면서부텀 거기도 헐리고 노인네들도 이사 가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 오고 그래서 우리 대에서는 인제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여기 노인네들이 한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늦게들 이사 와가주고 그저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정도지 그러케 아기자기허게 뭐 내 속에 있는 말 다 헐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냥 하루 이틀 사는 게, 나도 여기 와서 죽을 때가 됐잖아. 아이, 너무 억울하고 가마이 어떨 때 생각허먼 내가 나도 열아홉 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는가 그 생각만 들어가요. 나도 열아홉 살도 먹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러니 어떡허냐고. 지금은 외려 나이 먹은 게 챙피하더래니까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나이 먹은 게 창피한 게 아니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애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사위서껀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사세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사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유, 더 살

아도 그렇죠 뭐. 나는 그거야 막내아들서껀 지들만 잘 살머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잘 살다가 그저 의리 있시 잘 살았으면 좋갔다고 그것만 바라지 뭐. 바랄 것도 없어 인젠.

첨에 이 동네로 왔을 때 저기 길 건너 용현시장이 있었어요?

그럼요. 거기가 극장[3]이 있었더랬어. 우리가 도원동서 여기 올 적에 여기가 전부 논이야. 논이고 산이야.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겨우 리어카 하나 들락날락하게끔 되어 있어서 리어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밭으로 구를 적도 있고 그랬더랬어요. 여기 전부 밭이고 논이고 그냥 산이고 이랬더랬어. 그러는데다가 용현시장이 거기 극장도 있고. 그 전에는 시장이 쬐끄맣더랬지. 쬐끄맣더랬는데 극장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조끔씩 조금씩 늘려져서 저렇게 됐더랬지 그 전에는 형편없었더랬지요 뭐. 거기서 나도, 우리 동서를 거기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시장(가게)을 냈더니 극장 생긴다고 그걸 허물었잖아요. 허물구설랑 저 꼭대기 사거리 거기다가 그냥 집을 샀대니까. 거(거기) 가서 살았다고. 이제 삼성연립으로 이사왔지만 해도 그랬더랬어요. 거기 극장도 사람 많았더랬어. 요기 장안극장허고 그거 허고 두 개가 있더랬어.

지금은 없는데 그전엔 용현시장에도 극장이 있었군요.

그럼요. 거기 건너갈래면은 논으로다 이렇게 건너가는데 잘못하면 빠져서 발 다 버린다고요. 극장에 가는데 발이 빠져서. 우리 이사 올 띠게도(때에도) 전부 산이고 밭이고 그랬더랬어. 중국 사람들이 요기 용현 고개, 거기하고 용일핵교있잖아요. 거기 중국 놈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다고. 거기서 잡채공장도

3) 한일극장

하고 그래갖고 거기 잡채공장이 있어서 부스레기 사다가 부스레긴 싸니까 그걸 사다가 김치 지져먹고 그걸루다가 다 해먹고 이랬더랬는데 차츰차츰 [없어지고], 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어떻게 헐 수가 없더랬다고. 그런 걸 무조건 밀어서 기냥 해갖꼬 신기촌에 화장터 있을 적에는 거기다가 다 화장들을 했지. 화장을 허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나간 거야. 그래갖고 잡채공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핵교 들어서고 거기 집들 들어서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전에 산이 있으니까 나무를 하러 그 쪽으로들 많이 갔더랬지. 뻘건 진흙 밭에 거기 가면 냉이도 많고 소리제이(소리쟁이)도 있고 나물해다가들 먹고 그랬어요.

지금 산이란 건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졌지. 산이 다 그렇게 되고 아이고 말도 못해. 여기 인하대학교 거기도 그냥 전부 중국 놈들이 밭해갖구설랑 똥이고 뭐고 지들이 다 사간 거야. 우리들이 모아노면 자기네가 와서 사갔어요. 거름이 없으니까는. 지이(저희도)도 그렇게 해서 농사짓고 그냥 그러먼은 가을되면 배추 자르고 나면 우거지 그거 주서러 댕기고 그랬다고. 핵교 들어서고 좀 지끔 저기 해요. 아이고.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아주 어마어마허죠. 말도 못허죠. 아이구 송도 유원진가 거기도 뭐 조개가 얼마나 많았는데 말도 못했어. 가면 그냥 부대기로 하나씩 잡아오는 거야. 상합, 무슨 동죽, 가무락(껍질이 까만 조개), 고동, 소라 이런 거 그냥 잡아다가 가니까 가면서 팔구들 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 조개 너무 많은 것 메워갖꼬 아까워 죽갔다니까. 거기 조개가 그렇게 많았어요. 상합 비싼

거, 그런 거. 오죽하면 거기가 조개고개 아니에요. 조개고개. 송도 넘어가는 거기. 아유 너무 아까워 그냥. 하이튼 물때 쫓아서 가면 한 부대씩 잡아오니까.

여기 이 동네에서도 조개 잡으러 송도까지 많이 다녔나 봐요.

그럼요. 조개 잡으러 가고 걸루(거기로) 나무하러 가고 전부 그랬더랬는데 지금은 뭐 시내가 됐잖아. 지금은 정말이야 거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시상에 어쩌면 그 많은 놈의 조개 함박조개라고 큰 거, 이렇게 뚱그런 거, 그냥 그거 잡아다가들 국수들 삶아먹고 이랬더랬는데. 아유, 지금은 멀리 가야만 있고 거기 굴도 많았더랬고. 월미도도 굴이 얼마나 많았어요. 게도 많고 굴도 많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해가꼬 뭐 없잖아. 그리고 독쟁이는 거기 독 맨드는 데라. 그래서 그게 독쟁이고개야, 거기가. 거기 한 번씩 가면은 우리는 옷이고 뭐 이런 저기고 그런 욕심이 없는데 그릇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독쟁이 가면은 항아리들 요만씩한 거 사다가 차곡차곡 올려놓으면 쓰기도 아깝고 그랬다고. 지금은 항아리 뭐 합니까. 다 버리고 없어. 소금 항아리만 있어. 다 버렸어.

그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지

어머님이 결혼하신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열아홉 살. 열아홉 살에 했는데 칠촌 시누가 소개를 헌 거야. 나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칠촌 시누님허고 우리 친정엄마허고 얘기를 해갖구설랑은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결혼을 허냐

고 그러니까 신랑감이 얌전허고 아주 새까만허고 생활력이 강허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간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이가 열아홉 살이면 적으냐고. 그때는 또 많았죠. 그랬는데 글쎄 [내]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헌 거야. 난 그냥 그러려니 허고설랑 결혼을 했죠. 우리 집서 예를 지내고 신랑네로 가는 거야. 살림집으로 가는데 그 전에는 택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었지. 걸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인력거를 빌려서 그걸 타고 갔다고.

가마가 아니라 인력거를 타고 가셨어요?

그때는 인력거가 있었더랬지. 인력거를 타고서는 가가주구 아무도 몰르는데 가서 있으니까는 막 눈물만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는. [시어머니가] 말을 못허게 해요. 그래서 그냥 무서우니까는 말을 못허고 울기만 허고 있더랬는데 외삼촌이(시외삼촌) 오셔서 야 니들 그냥 여기서 살아라, 고몬, 엄마는 내가 모셔다가 알아서 헐 테니깐 그러시더라고. 그러려니 하구설랑 있으니까는 저녁에 우리 외삼촌이 오셔서 우리 시어머님을 모셔 가더라구요. 우리끼리 있는데 생전 말을 해봤어요, 뭐 얼굴을 알어요. 신랑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신랑이다 그러구설랑 방에다 넣으니까 신랑인 줄 알았지 뭐. 그런데 거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이튿날은 글쎄 집이로 오시는 거야.

시외삼촌댁에 가서 시어머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거(거기)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우리가 있는 데로 도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 외삼촌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저놈의 노인네 망령났다고. 아니 저들 끼리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넓고 좋은 데서 왜 가냐고. 그래도 막무가내요. 하룻밤만 신랑하고 잤지 그때부텀은 시어머니허고 쭈욱 같이 자는 거

야. 시동상도 있고. 시동상도 그냥 나이가 많으니깐, 장개들을 늦게 갔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는 그냥 어렵기만 허고 처음에는 누가 신랑인지 누가 시동상인지 몰르겄더래니까요. 무서워서 고개만 수그리고 있다가 그랬으니까. 첨에 시집을 갔을 직에는 한 방에서 잠을 자먼은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허고 누워 있고 그랬더랬어요. 누워서 오줌이 마려워도 참고 그냥 드러누웠어야 돼. 밝을 때까지 아주. 일어났다간 혼나는 거야. 옛날엔 이불을 풀을 먹여서 빨아서 빳빳허니까는 이렇게 움직이면 이불 소리가 사각사각하잖아요. 그러면 왜 잠 안 자고 지랄을 허는 거냐고 막 그러기 땜에 일어나다가도 도로 눕든지 해야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시집간 지 사 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더래니까요. 날 보고 아이 못 낳는다고 보내라고, 보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외삼촌들(시외삼촌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누님이 우리 집 와서 기시래도 안 기시고 왜 걔네들 자는 방에서 끼어서 자는 거야. 그래도 안 가셔. 생전 안 가셔. 그냥 우리허고 같이 있고 시동상도 나이나 적어요. 나이도 많은 사람허고 같이 한 방에서 살았어 그냥. 아유 아유 지겨워.

시집살이를 독하게 하셨네요?

그랬지, 그럼. 방에서 잔다고 가을인데도 생전 옷을 못 벗고 살은 거야. 그냥 입으면 입은 채 우리 할머니는(시어머니는) 적삼을 꼭 여기 닿게 입으셨어요(손으로 팔목 있는 데를 가리키신다). 팔뚝 여길 내놓으면요 빨가벗었다고 막 숭을 봤어요. 그러고 바지도 이렇게 긴 거 입고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 빨개벗고 댕기냐 그래갖꼬 바지에 그 전에는 고쟁이 그런 것만 입고 살았죠. 팬티가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말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팔도 조금만 나온 거 있으면 젊은 년이 팔뚝 내놓고 누구를 홀릴라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허시는 거

야. 친정에서는 짧은 것도 입고 긴 것도 입고 그랬는데 생전 짧은 걸 못 입었어요. 그래 여기가 해지면 여기를 기워서 입더락도 이렇게 짧은 걸 못 입었대니까(손으로 팔꿈치를 또 가리키신다). 아유 말도 말래구요. 그래가지고 낭중에는 외삼촌이 야단을 치고, 우리는 외삼촌이 살림을 허시다시피해서 왜 그러고 있냐고 노인네가. 아 조카딸네도 있고 조카아들네도 있고 그냥 동상네들도 많은데 왜 거기 가서만 그렇게 붙어서 사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거 가서 주무시고, 만약에 거 가서 주무신다면 새벽 4시면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문을 못 걸게 해요. 열어놓고 자라고. 우리는 모르니깐 문 열어놓고 자고 그러면 벌써 언제 들어오셔가지구설랑 쌀을 퍼서 주는 거야. 요만한 바가지에 하나 쌀을 퍼 주시면은 고거 밥허면 딱 네 그릇 나오는 거야. 내 밥은 반 그릇이니깐 딱 시 그릇 반 나오는 거지. 시 그릇 반 나오면 우리 시어머니거, 신랑 거, 시동상 거, 내 거 반 그릇, 이렇게 해서 먹고설랑 살았다고요. 먹을 거는 없지, 그냥 벌이들은 안 허지. 세 식구가 방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야. 겨울게도 불도 못 때고. 내가 돌아댕기면서 나무 주서다가 이러커구설랑은 아궁이에다가 쪼금 때구설랑은 자고, 그냥 냉방에서 자고 그랬어요.

시집갔을 때 시댁에 사는 형편이 많이 안 좋았나봐요?

그럼. 그러니깐 우리 칠촌 시누가 저 집으로 가면 아주 잘 먹고 호강헌다고 그냥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서 잔치를 해가지고 가니까 뭐가 있어요. 남의 셋방을 살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냥 괜찮은 집이서 허나부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세상에 가보니까 남의 셋방이지, 먹을 것도 없지, 강화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갖구설랑 왔더니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는 그냥들 거기서 쌀 한 가마 갖고와서 그것들만 끓여먹고 있더라구요. 그러는 걸 글쎄 속여서 나를 시집을

가라 그래서 와가지고는.

시집오시기 전에 강화에서 사셨어요?

강화서 살았대요 영감님이.

아 네, 할아버지가 강화에서 사시다가 나오셨군요?

그랬지. 만수동, 인천으로 와가지고 사촌들 팔촌들 외삼촌들 있는 데서 같이 산다고 왔는데 뭐 꿈지적거려야 살지. 아무 것도 안 하면 살갔어요. 못허지(살지). 그러니까 헐 거이 없어. 그해 나 시집가던 해, 4월 달에 잔치를 했는데 쪼금 더 있으니까 날씨가 더워오니까는 그 전에 아스께끼 장사 있잖아요. 통에다 미고(메고) 댕기는 거. 그 장사를 허더래니깐요, 나 시집가니까는. 그 통은 못 미고 대니고 이만허게 하꼬짝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팔더라고요. 첨엔 몰랐지 뭐.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면 나가나보다 그러고 아마 자전거 가지고 돈 버나보다 [생각했지]. 뭐 허냐고 물으면 뭐 허긴 뭐 허냐고, 저기 가서 일헌다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잖아요. 하루 이틀 사니까는 그게 인제 내 귀에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아무개 신랑은 얼음장사헌대, 얼음장사헌대 그래요. 여기 애관극장 있잖아요, 동인천. 거기 하드 장사들 집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다가 파는 거예요. 우리 시동상은 그 집이서 일하고 우리 신랑은 거기서 받아다가 팔고 그러는데 그때 일 원씩 이 원씩 했을 적에 종이돈 나왔을 때 있잖아요. 빨간 거 일 원짜리 [종이돈] 나왔을 적에 한 거야. 이렇게 여기 (허리에 전대차는 시늉을 해보이시며) 차는 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땐 걸로(거기로) 하나 갖고 와요.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나보다 했는데 꾸깃꾸깃 넣고 그래서는 그걸 접어서(접힌 걸) 펴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밤새도록 11시, 12시에 들어오면 밥 한 숟갈 먹고는 그 돈을

전부 손질을 해서 빤들빤들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묶어 가지고설랑은 아침에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하드집에 계산하고 거서 몇 푼 떨어지는 거 갖다가 지네 엄마 주고. 나는 돈 구경 허지도 못했어요. 우리 친정이 쪼끔 가깝게 사니까는 내가 가끔씩 가서 뭐 먹을 것도 얻어오고 그랬지.

친정이 어디였어요?

친정도 여기죠 뭐. 요기 용현동 오기 전에, 숭의동 거기서 살았어요. 친정이 가까우니까 가끔 몰래 가서 엄마 그러면, 응 너 벌써 뭐 없나부다 쌀도 퍼주고 보리쌀도 주고 국수도 주고, 친정이 괜찮게 살았으니까 돈도 좀 주고 반찬도 다 거기서 해서 주고 해서 갖다 먹고 이랬더랬어요.

친정아버님은 뭘 하셨어요?

저기 거시기루다 짚을 엮었잖아요. 쌀가마를. 테레비에도 나오는 거 그거 엮으러 댕기셨어요. 그거 맨들라. 그거 맨들라 댕긴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 두고 그걸 맨든 거야. 하인천 거기서. 그 전에는 사장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지. 쪼끄맣게 사람 데리고 그거 허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굶는 것도 몰르고 살았는데 시집와가지고 굶고 그러니까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가심이 아프다고, 너 제대로 밥 먹고 사는 것 보고 죽어야할 텐데, 할 텐데 그러시더니 그냥 돌아가셨어.

친정에서는 몇 째 딸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셋째 딸이야. 오빠 닛에다가 내가 막내딸[4]. 그래갖고 그렇게 고상을 직살나게 허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할머니 요기서 살지만 그 할머니가 오

4) 구술의 오류-오빠 둘에 언니 하나, 딸로는 막내이시다. 조경희씨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다. 조경희씨 자제분들이 나중에 정정해서 대답해주셨다.

면 그래. 아무개 엄마야 너같이 고상한 게 어딨냐 그냥 울면서 그런다고. 지금도 가끔 저녁때 와서 말허믄은 내 얘기만 허먼 울어요, 그 할매가. [내가]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남의 집 가서 또 일해 달라면 일해주면 돈 줘서 그걸 갖다가 생활도 허고. 아이구 별 지랄 다 했죠 뭐. 하하하. 내가 도둑질만 안 했어. 술장사하고 도둑질만 안 하고 내가 다 했다고. 그래 우리는 누가 저기허먼 그런 거 싫어. 뭐든지 누가 옹색하고 좀 뭐 이렇게 있는 것도 갖다가 감추고 이러는 걸 싫다구 지금두.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카니까 못 쓰갔더라고요. 나는 생전, 같이들 댕기다가도 뭐 허면 그래. 아유, 저 여편네는 그런 거 누가 그냥 줘도 잘 안 가져가는 여편네라고 그래서(그랬어). 시방 아이들도요 뭐 어디가 떨어지먼 주서서 누구 거냐고 그러면은 없으먼은 파출소에 갖다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접때도 요기 아까 왔던 우리 애(손녀)가 핸드폰을 주서서 왔어요. 암만 찾아도 [주인을] 못 찾갔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야단치고 그러니깐 지 엄마가 와서 왜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어떡허냐니깐 그걸 보고 [연락을] 쳐 줬더니 찾으러 왔더라고. 남의 걸 그러면 못 쓴다고. 임자 찾아



19살 무렵 친정어머니(가운데), 친언니(오른쪽)와 함께

줘야 헌다고 내가 막 그러지. 내 거 잃어버릴망정 남의 거 그러는 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사람은 바르게 양심껏 살아야 헌다고. 그러기 우리 영감이 죽을 때도 그러는 거야. 그저 남한테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탐내지도 말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게 허라고. 아이들 보고 그거 당부허다가 죽더래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아홉에 시집을 가봤더니 세상에 당신 옷도 명주저고리 해 입었는데 그것도 외상으로다가 해 입고 다 외상으로 헌 거야. 그 전에 비로도 호박단 그런 게 좀 비쌌어요. 나는 시집갈 때 우리 사촌언니들이 서울서 포목장사를 하니까 옷을 몇 벌씩 해준 거야. 갖고 왔더니 3일 되던 날, [신랑] 명주 바지저고리값 내놔라, 뭐 값 내놔라, 뭐뭐 하는데 돈 빚진 것 내놔라, 하도들 와서 그러니까는 내가 그 옷을, 내 옷을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양심껏들 가져가라고. 값어치 쳐서 가져가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걸 다 가져가고 놋대야고 뭐고 하나 없이 다 가져간 거야 아주. 게 내가 처녀 적에 입던 옷 그것만 입었지 시집갈 때 우리 언니들이 해준 건 하나 입어 보지도 않고 그거 다 팔았대니까. 팔아서 그 집이 신랑 빚 갚아줬다고요. 시어머니도 뭐 헐 줄을 알아요. 시골서 올라왔으니 뭘 헐 줄 알아. 아무것도 못허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쌀값 내놔라 무슨 뭐 내놔라 자꾸 이러니까는 나는 그런 걸 겪으지 않다가 겪으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옷을 한 보따리 있는 거 다 내놓고 양심껏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양심껏 다 가져가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값어치 쳐서 빚 갚어 버리고 말았대니까. 아유, 아유 징그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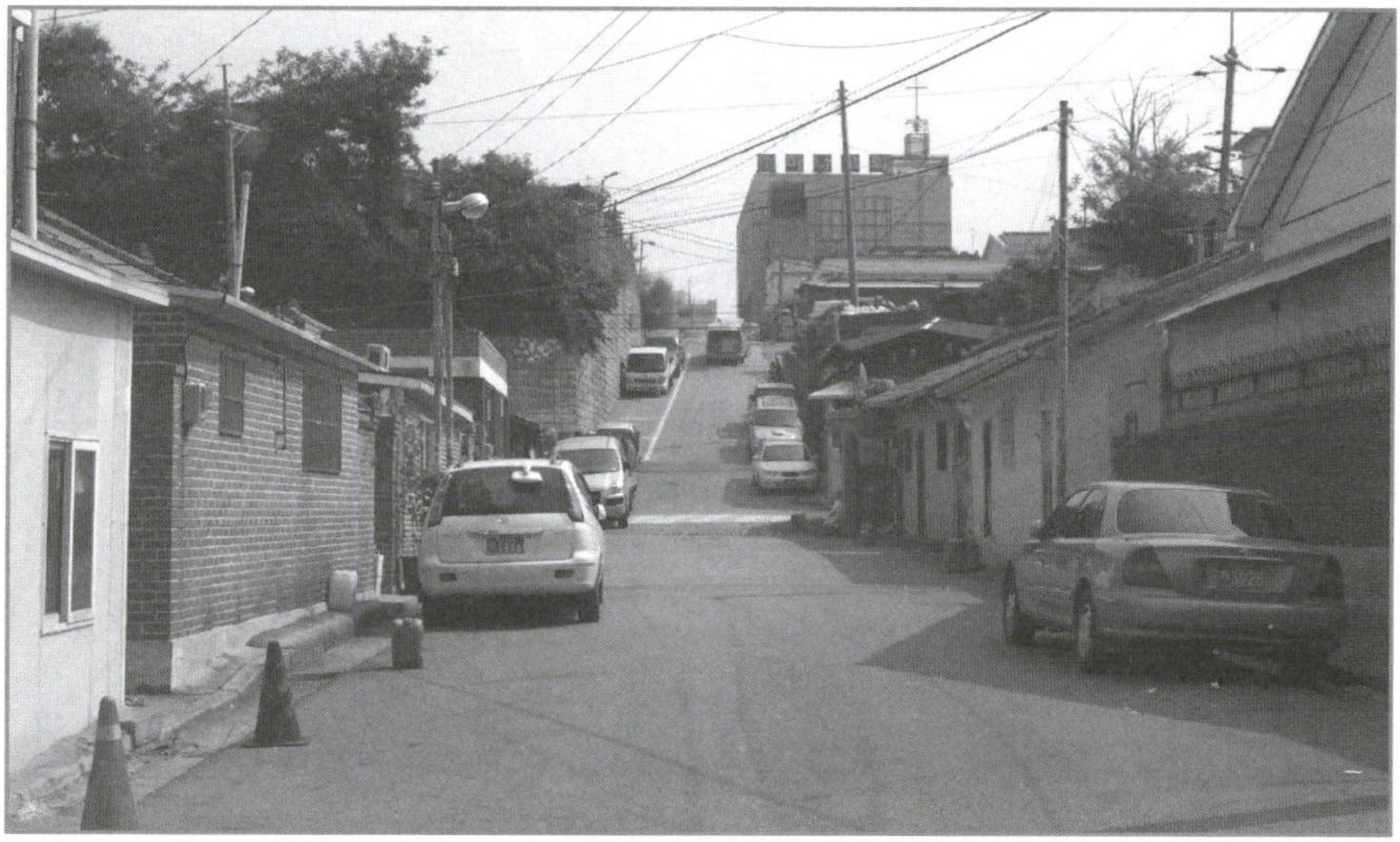
지끔도 나도 열아홉 살, 스물일곱 여덟 살도 되었을 때 있었을 텐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으고 어떤 땐 이상허더라구요. 아이들도 이담에 아버지

만날 거냐고 하면 만나서 뭐해냐, 살 때게도 한 이십년 같이 살면서도 지긋지긋허게 고상을 했는데 거 만나서 뭐 허냐고. 아이 안 만난다고, 징그럽다고 그래. 그러커구 결혼해가지구설랑 내가 집을 쪼끄만 거 그거 하나 사긴 샀지만 해도 그렇게 고상하고 살었다고 그냥. 징그러워. 그런데다가 우리 시동상이 또 군인가가지고설랑은 여자를 보지도 않고 덜꺽 데려왔잖아. 어디 여자냐니까 전라도 여자래요. 그러니 어떡해. 여자도 지 언니네 와서 기냥 해주는 밥 먹고 있으니까 지 언니가 싫어하고 그래서 신랑 얌전하다고 그냥 보내왔으니 내가 혼자서 벌어갖꼬 아이구 여섯 식구가 사는데 죽을 뻔했다니까.

이 동네서 장사하실 때, 생선이니 소금이니 깡시장에 가서 떼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여(여기) 깡에 가면 이 무데기로 쌓아놓은 걸 다 판단 말이에요. 다 사야 싸지 그걸 노놔서 사든지 하면 비싸다고. 근께 그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인제 리어카에다 잔뜩 싣고 거기 바쿠위에가 이렇게 올라서서 거꺼지 넘어꺼정 싣구설랑은 보재기를 큰 거 해다 톡 덮구 묶어가지고설랑은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고요. 적십자병원, 그전에 있던 데, 로타리 있는 데 그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우리 큰아들이 열 몇 살 적에야, 날 마중을 나온다고. 지가 청소 다허고 그러고는 마중 나오먼 같이 끌고 와서는 부려놓고 팔먼은 그전에는 장사들이 이렇게 댕기지를 않으니까는 와서들 사고 그러니까는 그날 그날 가져오는 물건을 다 팔아요. 하나도 안 냉기고. 그냥 우거지겉은 거나 쪼금 냉기고 그러먼은 그건 주서서 또 삶아서 된장국 끓여먹고 이러커고 그랬죠. 가을이면 또 짠지 무이(무) 이런 거 들어오면 그거 사다가 팔고 이러커면 하루 팔면 삼 일은 그래도 먹갔더라구요. 식구가 그때 아홉 식군데.

여기 이 근처를 사택입구라고도 부르던데 사택입구라고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일명 사택입구라고 불렸던 용현동 일대

여기가 사택입구야.

여기, 지금 사시는 용현동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용현고개 조기 있고, 여기가 사택입구, 일본사람들이 살았더랜거야 이게.

일본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사택입구라고 하나요?

예. 이것도 일본놈들이 살았던 집인데 일본놈들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 조선 사람들이 싸게 사가지고설랑 밑에 다시 헐어서 지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택을 짓고 살았던 동네라고 해서 사택입구라고 그랬군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여기 용현동 요 동네로 이사 올 때도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

었나요?

없었죠. 그때 막 나갔어. 나가자마자 우리가 들어온 거니까. 일본놈들이 그 때는 아주 무섭게 [했었지]. 여기는 다 나갔는데 저기 저 거시끼니 동인천 거 위이 홍예문 있는 데 거기는 나가지를 않았더랬어요. 여기만 일차루다가 먼점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들 났더랬지. 그 일본사람들 있을 적에는. 막 내쫓고 그럴 적에 정말 불쌍하더라고, 울고불고 그러고 나가는 거 보니까는. 쯧, 우리가 그 전에는 뭐 압박을 받아서 그러커고 살았지만 해도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갈 때 보니까. 그냥 울고 [나가는데] 또 이렇게 한국 사람허고 왔다갔다 허고 그래서 정도 들고 없던(없이 산 일본) 사람들도 있어갖고 갈 적에 그냥 끼안고(껴안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 인제 간다고 갔으니까.

처음에 제가 어머님 뵈러 왔을 때 장사하시고 그러면서 미군부대에서도 일하셨다고, 그건 언제쯤이에요?

그거는 어, 우리, 그러니까는 큰놈 낳고, 그러니까는 지금 쉰한 살, 아니 쉰 셋이구나. 쉰 셋 됐어. [큰애 낳고] 미군부대 여기 월미도 미군들 들어왔을 적에 그때 거기 장사를 다녔지.

거기로 장사를 다녔다구요? 그럼 뭘 팔아요?

거기서 그놈들이 담배, 쪼코레또, 이런 거 갖고나오면 내가 사가지고 갖다 저기 양키시장 있잖아요. 저기 송림시장 있는 데 거기 양키시장이라고 있어. 거기 갖다 파는 거야. 물건 갖다 팔고 거기 가서 저기니 뭐야 빨래도 또 맡아서 갖다가 집에서도 허고.

무슨 빨래를요?

미군들 옷, 군복 같은 거. 그러고 옷도 이놈들이 돈 없고 그러니까는 저들 새 것 타가지고 또 팔아먹는 놈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가지고 양키시장 거기 가서 파는 거야. 딸라로다가 그렇게 해서 팔고. 그러니깐 오십 원이면 쟤네들이[팔면], 오십 원씩 주고 우리가 사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70원이나 65원이나 요렇게 받고 팔고 이렇게 했어요. 달라돈[으로]. 그때는 그냥 그렇게 허니까는 그저 먹고 사는 거는 그냥저냥 살았어요. 그렇게 고상을 해가면서락도. 그러커고 만년에 인제 나가 가지고설랑 그놈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어, 많이. 전부 들어가니까 헐 거 없으니까 또 도로 장사허고 그냥 뭐 야채 장사도 허구.

육이오 겪었지, 일사후퇴 겪었지, 일본놈들 겪었지, 세 개를 다 겪은 거야.

어머님 시집오시기 전에, 1930년생이시면 태어나셔서 한창 철들었을 때 일제치하 보내고 육이오도 겪었잖아요.

아 그래 육이오 겪었지, 일사[일사후퇴] 겪었지, 일본놈들 겪었지, 시(세) 개를 다 겪은 거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본놈들 들어왔을 적에는 그때 내가 아홉 살인가 여덟 살인가 고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고렇게 되니까는 인제 이놈들이, 일본놈들이 열다섯 살만 먹으면 무조건 끌어갔어. 그냥 무조건 막 강제로 끌어가서, 나는 아홉 살이고 우리 언

닌 열여섯 살인데, 끌어간다고 그냥들 처녀들이 하나도 없었더랬어 그때는. 웬만하면 다 끌어갔어. 그러니까 시집간 사람들은 안 끌어가고 시집 안 간 사람들만 끌어간 거야. 그러니까 인제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거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 가서 죽게 될래는지 살게 될래는지 모르니까는 여기서 시집이나 보낸다고 영종으로다가 [언니를] 시집을 보냈어요. 어린 거를. 어린 걸 보냈는데도 우리 언니는 그냥 어려서부텀 일만, 집에서도 우리는 엄마가 일만 몹시 시켜서 이렇게 시집와도 무슨 뭐가 어쩌고저쩌고 허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살아왔다고. 집이서 그렇게 해버릇을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언니를 시집보내니깐 그 집이는 시동생 하나, 신랑, 시어머니, 자기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데 어려웠어. 시골 영종에. 영종이(영종도가) 그 전에는 아주 말도 못했어. 그래서 거기로 시집가서 사는데 여름에는 감자 숭궈갖고(심어서) 그거 캐서 먹고 살고. 농사는 안 지니깐, 밭농사만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해먹고 살고. 또 우리 언니가 극성맞으니까 거기서 조개들 캐다 팔면 그걸 받아다가 큰 통 다라로다 하나씩 받아다 여갖다(여기 가져와서) 팔고 또 가고 이랬더랬죠.

열아홉 살에 결혼하실 때가 전쟁나기 전이었죠?

전이죠. 그 전에 미군들 저기할 적에는 결혼허고 그러커고 그 전에는 아홉 살 먹어서 일본놈들 저기니 헌 거고. 그러니까 일본놈들 헌 거는 그렇게 기억이 난다해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우리 오빠가 그때 일본으로다가 끌려 나가게 됐다고.

징병을 간다고요?

예. 징병으로 끌려간다고. 안 내보낼라고 그러는데 안 내보내면 쥑인다고 그래갖구설랑은 우리 오빠가 낼모레 가기로 그랬는데 오늘밤 여기서 자고 낼

갈 텐데 오늘 저녁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가질 못했지. 저기, 저기 어디야 기독병원 가면 굴다리 있어요. 굴을 파논 거 있어. 지금도 있어. 거기를 파고설랑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안이 굴이 지금도 크다고. 그래갖구설랑은 우리 오빠는 그렇게 아마 하늘에서 낸나보다고들 전부 그랬다고. 어쩌면 그렇게 운 탰다고. 그러다가 육이오 때가 난 거야. 그러고저러고 허다가. 이제 육이오 때가 났는데 그때부텀은 또 미국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또 아이구, 말도 못했어. 이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똥고개라고 있어요. 도원동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거 무슨 교회예요 거기가 전도관. 전도관 밑이 다 똥고개야. 똥고개라고 이름을 지어갖고. 거기 그냥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설랑,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다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설랑 거기들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러고 이 월미도는 인제 월미도도 전부 굴을 파구설랑 이렇게 쭉쭉 파고설랑은(손으로 굴 파는 시늉을 한다) 그건 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고설랑은 거기서 대비하고 있더랜거야. 그러니깐 저녁, 여기서 저녁 네 시만 되면 월미도로 건너가요. 해 있을 때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서는 거기서들 전부 사람들이 한 동에서 멧 명씩 나와가지고 거(거기) 가서 구역구역 일을 맡아서 일을 허는 거야. 밤새도록 구뎅이를 파고 인제 그냥 이러커고 허면 그래도 몇 개씩 파놓는다고. 그러먼 아침에도 밝기 전에 여길 월미도 다리, 그 전에 있었어요. 그기 아니면 못 댕겼어. 전부 양쪽엔 갯벌이니까는. 이렇게 다리를 내고설랑 가운데로만 댕겼는데 벌써 니(네) 시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다 건너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은 동회에서 거가서 일했다고 패딱지들을 하나씩 주면 그거 갖구 가서 쌀 한 닥꾸씩(한 되씩) 얻어다 먹는 거야. 그러케해서 쌀을 받아오면 쌀을 느뤄(늘려) 먹느라고 물을

두 배로 붓고 쌀을 갈아서 풀때기를 쒀서 그렇게 해먹구선 살았다구요. 거(거기) 가서 굴 파고 그러고 또 건너와가지구는 우거지 주수러 가잖아. 가서 우거지 주서다가 [동회] 가서 쌀 타다가 보리쌀 그런 거 주면은 갈아가지구 풀떼기 쒀 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뭐 조금 버리면 아깝더라고. 게 영감은 뭐 할아버지 아니더락도 남자들은 나가지 못허니까는 방에 가서 숨어 있고 여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야. 굴 파러. 남자들은 못해요. 뻔쩍허면 잡아가서. 그래가지고 혼자 댕기면서 네 식구 먹고 사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굴 파러 다니던 때가 육이오 전쟁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덜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밥을 일찍, 3시만 되면 해서 먹고설랑은 마당에다가 여름이니까는 돗자리를 깔구설랑은 나하고 우리 언니서껀 우리 동상 둘이 있고 그랬는데 고것들만 데리고설랑은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는 그냥 어서(어디서) 뭐가 펑 허면 뭐가 터지는 거야. 폭발이 터진다고. 그래도 다행히 인천에는 그렇게 터뜨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커다가 인제 무사히 정말 살아났는데. 그러는데 인제 우리 오빠서껀 그냥 한데들 다 모여서 살면서 결혼허고 뭐 어쩌고 그러다보니까는 살다가 우리들도 언니도 그렇게 시집가가지구설랑 어렵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한날은 여기를 우리 언니가 왔는데 이상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는 놈이 빨갱이더래요.

영종도로 시집간 언니 남편이 빨갱이었다는 거예요?

응. 빨갱이야. 알고 보니까. 빨개이가 돼서 무서워서 못 살갔다고 여길 몰래 도망을 온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언니가 무서우니까는 그냥 어디가 숨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설랑은 우리가 크은 항아리가 있더랬어. 쌀 두 가마 들어

가는 항아리가.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숨겨놓구설랑 밥이구 뭐고 거다 해주고 있는데 이놈이 와서 지켜 있는 거야. [언니를] 찾아간다고. 찾으면 쥑이고 내가 이북으로 간다고. 그런 거를 못 찾게 허고 항아리 속에다, 그 전에는 항아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전부 항아리에다가 다 해먹으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감춰 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놈이 메칠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언니를]. 그러니까 이놈이 헐 수 없이 저는 영종으로 지 엄마 있는 데로 가고 인제 우리 언니는 그때에 나와가지고설랑 조금 있다가는 요기 창녕 핵교 있는데 거기 교회 있어요. 거기서들 교인들이 그냥 너 오너라 나하고 같이 있다가 죽어도 죽고 그래야지 어떻게 거기를 가갔냐. 빨갱이들헌테 가면 너는 아주 고만이니까, 끝나는 거니까 가지 말고 너 오나라, 오나라 그래가지고 창녕동 교회 있는 데 거기서 있다가는 얼마 있으니까 일사가 그냥 해제되더라고요.

일사가 해제되었다는 얘기는 일제 해방이 되었다는 건가요?

응. 그렇지. 그때 해방이 된 거지. 그래서 그놈은 인제 여기서 전부들 거기 영종서도 이놈의 새끼를 다 무서워하고 다 피해가고 무슨 공무원들 이런 거를 다 잡아갔다고. 그냥. 이놈들이, 빨갱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도 해방된다, 해방된다들 자꾸 귓구녁으로들 그러니까 이놈들이 미리 간 거야. 이북으로. 이북으로 가서 고만이지 뭐.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닌 살은 거지. 그러다가 여기 월미도로 배가 들어온 거야. 미군들 배가. 그래가지고 함포로 다가 막 폭격을 하는데 여기 전도관 밑에 기냥 거기 파놓은 데를 풍 떨어지면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막 파산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 그놈들도(빨갱이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자식은 없으세요? 언니 분은?

아이구 자식은 뭐. 딴 데로 시집을 갔지. 갔는데 거기서 그냥 어떠케 우리 형부가 수단이 좋아갖고 돈을 잘 벌어갖꼬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갖고 있다가는 괜히 우연찮게 병들어갖고 죽었다니까. 인제 죽은 지 3년 됐어.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남동 여기 소래 가는 쪽에 그쪽에다 땅을 첨에 살 적에 한 평에 7백원 주고 산 놈의 거 이게 70만원이 됐으니 얼마냐구요. 그래갖꼬 베락부자가 됐잖아.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살다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걸 뭐. 그래가지고설랑은 다들 그러커고 나갔는데 아니 여름인데 그때가 7월인지[5] 그렇게 돼가지구설랑 해방된다고 구경들 가자고 그러구 그래서 송림동 저기 양키시장 있는 데를 그냥 가보니까. 글쎄, 그냥 변소칸에 앉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껴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가다가 엎드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총을 쏘고 그러니깐 그 사람들은 몰르니까 미군들이 막 쏜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고 나오면 안 쏘는데 손도 안 들고 그냥 도망가다가 이놈 새끼 빨개이라고 막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 거기 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와서 그랬는지 몰르지요. 그래갖고 해방돼가지구설랑 팔월15일날 해방됐잖아 그때. 해방되고 그냥, 이놈들도 광복절날 그 일본놈들이구나, 일본놈들 들어와가지구 그래서 [나간 게]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 해서 그러커고 일사때도 그냥 그랬지, 육이오 때도 그랬지. 아유 육이오 때도 말도 못하게 죽었어요. 사람.

총 쏴서 앞에 얘기한 사람들이 죽을 때, 해방될 때 해방 구경 나가셔서 본 거예요.

나가지 않고 그냥 있는데 총을 쐈는데 그냥 앞에 가다가 죽었다니까.

---

5) 기억의 오류-8월 해방을 얘기한다.

미군들이 총을 쏴요?

그럼 쏴요. 빨갱이인 줄 알고. 그럼 그러니까는 손들고 나오면 괜찮은데.

육이오 전쟁 나기 전에요?

그렇죠[6]. 아주 그래서 나갈래면 손들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틀어박혀 있으라고 그러면 그냥 막 그놈들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뒤지고 그랬잖아. 아이구 무서웠어, 아주. 그때는. 그래갖구설랑 일사때(일사후퇴 때)는 내가 시집을 가가꼬 얼마 안 되니까 일사때가 돼오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강화로다가 피난들을 다 갔다고. 강화로다 다 피난들을 가가지고 우리 오빠 우리 언니들 다 갔는데 나는 못 갔어요. 우리 시어머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못 가게 허는 거야. 넌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노인네[가] 그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뭐 복종을 해야 하니까는 그럼 그러라고. 할머니허고 둘이서 살면서 그러니까 시동상하고 셋이서 살았지. 남편은 무조건 끌어간 거야. 국민병으루다가. 막 그냥 열일곱 살서부터 뭐 오십대고 육십대고 다 끌어간 거예요.

할아버지를 끌어갔다고요?

끌어갔지. 우리 오빠, 우리 동상, 남자들이래는 거는 다 간 거야 아주. 그러니까 집엔 여자들만 있더랜거예요.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인제 쌀을 그때 얼마를 사놨더랬어. 사놓고 먹고 그랬는데 다 먹구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할머이가 그러시길래 쌀 한 되를 담가서 떡을 헌 거야. 시루에다 쪄 가주구설랑 쳐가지구 그거를 방망이 떡을 맨든다고 손으로 맨드니 떡이 깨끗해요? 꾸적지근허지. 그렇게 맨들어갖구설랑은 할머니허고 둘이 나가설랑 동인천 굴

6) 기억의 오류-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함. 해방되고 난 뒤,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얘기로 추정

다리 있잖아요. 고 밑구녕에 나가서 파는 거야 그거를. 파니 뭐 하루에 몇 개나 파냐구요. 그때는 다들 뭐 어렵고 난리통 안이고 남자들도 별로 없고 아이들허고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몇 개씩 팔먼은 떡이 남는 거야. 거기서 떡이 남는 건 그거 갖다 그걸로다 끄니(끼니) 이루고(잇고) 우거지 주서다 그냥 주물럭주물럭 소금에다가 해갖고 둘이서, 할매하고 벌어서 먹고살고 그랬죠 뭐. 아이구 말도 말라고 그때는.

그때는 인원수도 없지만 사람 하나만 볼래도 참 어려웠어요

그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전쟁도 무섭고 그랬겠네요?

아유 무섭죠. 그리고 동네에 사람들이 없었잖아. 그냥 다들 어디로 가고 그래갖꼬 아유 아주 무서왔어. 그때는 인원수도 없지만 해도 다 숨기 때문에 사람 하나만 볼래도 참 어려웠어요. 저녁이면 그냥 세 시만 되면 밥해먹고들 다 문 걸고 들어가서는 이불 쓰고 드러누웠다고. 왜냐면 막 폭격들허고 그러니까는. 기관총 요만씩 헌 거 그거이 막 창문으로 뚫고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솜이불 뒤집어쓰고 있으니까는 거기를 못 들어오더라고요. 톡톡해서 솜이 그걸(총알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구, 우리 사촌시누가 그러는 거야. 아유 시상에 우리는 이런 데서 살아나서 인제 오래 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겪은 게 많아갖고. 그러면 겨울게도, 일사때(일사후퇴 때)도 전부들 피난들 가고 여자들만 있고 사람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드문드문 있는데 기냥 끓여 잡

숫지도 못허고 그래. 우리 저기 사촌언니도 동인천서 장사를 허는데 수족을 못 쓰니까 자식들이 밥해줘서 먹고 그랬는데 저들은 나가서 젊은 사람을 만나야 갔으니까 지들은 피난 나간다고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을 나가는데 우리 사촌언니는 밥을 해서 냄비에다가 큰 데다가 김치하고 담아놓구설랑은 그냥 내비리고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게 불을 때갔어요, 뭐 밥을 데워 먹갔어요. 얼면 언 대로 집어먹다 들어와서 보니까는 빳빳하게 얼어죽었더래니까. 밥도 그거 다 먹지도 못허고 죽었더래니까.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머님은 전쟁 났을 때는 따로 피난은 다른 데 안 가보신 거네요?

했더랬죠. 나 혼자서. 안산으로. 가지 말라고 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외삼촌들이, 할머니 동상들이 누나는 늙었으니까 괜찮지만 얘는 젊어서 자식도 여태 낳지도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혹시나 만날래는지[남편을] 아느냐고. 얘 데리고 나간다고 막 우겨가지고설랑 우리 외삼촌들이 나를 나가자고 그래서 가져갈 게 있어야지 당장. 이부자리 하나 하고 옷 좀 꾸리고 피난 간다고 새벽 3시에 떠났는데 같이들 묻어서 안산으로다 간 거예요. 안산으로 가다가 보니까는 뭐 방마다 다아 사람들이 찼지 시골이니까는. 글루들 피난 가가지고. 그러니 어디가 있을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헛간에, 헛간인데 거기가 집이 있더라고. 외삼촌 보고 외삼촌, 외삼촌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설랑 며칠만 있다가 가자고. 그래갖고설랑 거기서 이불을 깔아놓고 외삼촌네는 아이들이 쪼끄만 거 세 살 먹고 다섯 살 먹고 요런 거이 네 명이 있으니깐. 그러니깐 지 아버지가 보따리를 지고 아이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인제 걸어가고 우리 또 시누는 한보따리 이고 아이를 업고 걸어가고, 그러니깐 내가 짐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집 짐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

까는. 우리 외삼촌이 야 젊은 아이 저렇게 고상시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됐으니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기냥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띠버리고 가면 어떡허느냐고 그러니까는 아유 그래도 그냥 너는 여기 사람들 있으니까 같이 묻혀 있으라고 그러길래 난 안 된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촌 시누가 그러면은 날 보고설랑은 저기 동상의 댁 그러면 나하고 같이 인천으로 도로 들어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떡허냐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또 나오더락도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그러고 안산서 아침을 다섯 시에 먹고설랑은 여기 걸어오니까는 저녁때가 되더라고요.

안산에서 인천으로요?

예. 인천으로 오니까는 그냥 발이 다 부릇고(부르트고) 말도 못하지 뭐. 그 때는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왔어요. 겨울인데, 일사 땐(일사후퇴 때) 겨울이었잖아. 여꺼정 허벅지꺼정 빠지는데 쭈욱 눈이 와서 덮혔으니까는 시골에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는 밟은 자죽이 없는 거야. 그래 오다가는 낭떠러지에서 퍽 떨어져서 눈 속에꺼정 폭 빠져서 그런 적도 있고 그러먼은 둘이서 서루다가 히치고(헤치고) 나오고 이러케서 집이를 와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간 거야.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막내외삼촌하고 그렇게 둘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만석동 저기 하수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배가 들어오고 배가 나가고 그랬더랬어요. 지금도 그래. 배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데가 있어요.

만석동 부두요?

예. 거기에. 저기 우리 시누가 그래. 여보게 저기니 물초롱지고설랑, 그 전엔

초롱에다 지게 지고 물 길어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보게 우리 초롱갖고설랑 거기 가보자고 그래요. 쌀도 많이 쌓아놓고 그랬다니까는 이북놈들이 가져가도 그거 다 못 가져갔을 테니까는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길 갔다. 물초롱을 지구설랑 가니까는 쌀을 가져가다 터뜨려가지구 쌀이 널린 거야.

이북 사람들이 만석동 부두에 쌀을 쌓아놓았다구요?

예. 눈이 많고 거기가 [쌀이] 널렸는데 어떡해. 야 이제 총 맞아서 죽을 때 죽더락도 쌀이라도 갖다먹고 죽어야갔다. 그거를 두 초롱씩을 하루에 열 개씩 가져오는 거야. 집도 멀죠. 여기서 어디 갈 만해? 여기서 저기 로타리 갈만 헌데 거기를 하루에 다섯 여섯 번씩 져 날랐어. 져 날라서 방에다 따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때도 전장(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보리쌀도 쌓아놓고 그랬는데 보리쌀들 가질러 간 사람들은 꺼내갖고 나오다가 폭격을 해설랑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 우리는 쌀만 거기서 쓸어갖구서 담아가지고 오니까 그런 일은 몰랐지 인제. 오다가 기관총 막 둘러대면 어디 저런 구석에 가서 숨었다가 오고 숨었다 또 오고 이랬다구요. 그렇게 해서 쌀을 잔뜩 가져다 놨는데 우리 시누는 거기 식구가 많으니까는 날 두고 나는 식구들 데리고 올 테니까는 시어머니허구설랑 있으라구 그러기에 네 그러세요 [하고]. 그러구서는 나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있고 시누이는 가고 그랬는데 여기 만석동 방직회사가 있더랬는데 지금도 있지요. 거기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만석동에 방직회사도 있었어요?

예. 있었죠. 방직회사 옷 짜는 데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광목이 그냥 이렇게 떼로 쌓여 있는데 얼마나 탐이 나는지 몰르갔어. 이불하고 옷 해 입는 거. 에이 몰르갔다. 그거를 한 필이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공장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죠. 다들 피난들 가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 노인네들허고 젊은이는 나밖에 없나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노인네들 있고 그러는데 거(거기) 가서 광목을 몇 통을 가져온 거야. 가져왔는데 그걸 감춰놔야 할 텐데 감춰놓을 데가 있어야지. 그걸 들키면 다 가져간다 그래서. 밤새두룩 그냥 부엌바닥을 파는 거야. 호미로 파고 뭐 곡괭이로다 파고 이러커고설랑 거기다 두 통을 감춰놓고 다 미껴놓고(메워놓고) 가마때기를 하나 깔아 놓고 그러구설랑은 한 통은 가위로다가 째가지고설랑 드문드문 꿰매가지고 이불을, 홑이불을 다 씌웠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오면 무조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밤새도록 다 꿰매서 이불을 시쳐놓고 그랬으니 마음으로는 부자같애. 기냥 광목이 다 있지 쌀도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는 살 거 같으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인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 밥도 실컷 먹고 죽으니까는 원이 없구나 그러고 생각허고 살았어요. 하루 이틀 사는데 우리 올케가 자기네가 강환데 강화로 피난 갔는데 가보니깐 먹을 거이 하나도 없고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가니까는 그냥 왔더라고.

친정 올케요?

그럼요. 고모,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 그러기에 아유 잘 왔다고, 우리들 그냥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여기 같이들 있으면 좋갔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단하시는 거예요. 지가끔 가서 있어야지 왜 여 와서 있으래냐 그러기에 어른 말 듣고 그러믄은 언니는 언니네 집에 가서 있고 내가 먹을 걸 몰래 조금 갖다 줄 테니까 그거갖고 아이하고 둘이서 끓여먹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가길래 쌀을 몰래 배에다가 차가지고 인제 행주치마

를 요렇게 접어가지고 양쪽을 꿰매가지고 이 속에다 넣어서(뱃구레 쪽에 행주치마를 꿰매는 흉내를 내신다) 우리 시어머니가 무서우니까는 그렇게 갖다 줬다고. 그렇게 몇 번을 날르다 보니까 뭐 초롱으로 하나 가져온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매가 그냥 이거 누구 쌀 다 퍼줬냐고 야단하시기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만저만해서 올케가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몰래 쌀을 줬다고 그랬더니 막 야단을 하시는 거야. 말대꾸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전에는 말대꾸를 하면 입도 막 짓찧었다구요. 할매가.

시어머니가 입을 짓찧어요?

그럼요. 말대꾸를 하면 큰일난다고. 그러케 무서왔어요. 막 때리고 그러니까는 말도 못허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엎드리고만 앉았는 거야. 그때는 뭐가 안 됐는지 꼴 뵈기 싫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꼴 뵈기 싫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뭐 또 나무가 있어? 만석동 거기 가서 나무나 있나 하고 이리저리 댕기다가는 나무 한 개비 두 개비 주서서 갖고 오먼은 요만헌 냄비 걸구설랑은, 그러니깐 돌멩이 요렇게 요렇게 올려놓고 고기다 [냄비] 걸고 불을 때서 밥을 갠신히 익혀서 먹는 거야. 그러면은 된장도 지져먹을 거 있어요? 그냥 그전에 먹던 된장 그거 갖다가 이러케 발라서 먹고 그랬지 뭐. 아유 그 전에 먹고 사는 거 뭐 제대로 먹었어요? 그러커고 살았어. 그랬는데 그때 우리 오빠서껀 강화로 피난 갔다 숨었다가 와서 자기네들이 돈 잘 버니까는, 장사허고 회사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잘 버니까 그때는 우리 시어머님이 조금 기가 죽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자꾸 갖다먹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기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는데 나는 그러니까는 그때는 장사도 못허고 이 방직회사 댕기는 사람들이 인제 나갔다가는 도로 들어와가지고는 미군들이 들어와서는 다시

한국 사람들 모여놓구설랑은 그걸 운영을 허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 들어가서들 일들을 허고 문형들을 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서가 그길 댕기는데 쥐새끼라고 요렇게 대롱에다가 올리면 왜 광목 짜는데 올리면 돌아가는 거 그것들을 가져오는 거야. 날보고 난닝구 그걸 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난닝구가 어딨어요. 난닝구가 없으니까는 실로다가 그걸 두 겹으로다가 떠가지고설랑 파는 거야. 우리 동서가 거기 댕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고걸 갖다가 주면 그러면 나는 고걸 담아가지고 난닝구 오늘 저녁때 시작하면 내일 저녁때 하나 떠서 그거를 팔고 또 실을 사서 [떠서] 팔고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 그냥저냥 먹더라고요. 난 뜨개질도 엄청나게 한 거야. 시집가는 여자들도 그 전에는 이불보도 다 떠가지고 갔잖아요. 방석도 다 떠서 거기다가 호청만 쐬웠다가 솜만 넣고 그걸 뜬 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뜨개질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불보도 따로 떠가지고 쭈욱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거 떠가지고 한 삼년은 먹고 살았나봐 아마.

뜨개질해서 팔기도 했군요?

뜨개질하면 여기저기서 시집가는 새색시들이 와서 떠 달라고 그러고 그냥 방석 떠 달라고 그러고 난닝구 떠 달라고 그러고 할머니들 적삼, 난닝구 요만큼씩(팔뚝을 가리키며) 내려오게 적삼 이렇게 떠서 그렇게 허고 그러면 우리 동서가 갖다가 팔아주고 저도 가져오고 그러고. 뜨개질허먼 꼬박이 밥만 해먹고 치고(치우고) 빨래나 해서 널고 뜨기 시작허먼 하루 하나씩 떴어요. 난닝구 고 뭐고. 그러케서 떠서 먹고 한 삼년은 살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나라도, 이놈들도 들어와서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놈들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다 댕기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미군놈들도 더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축항

안에, 월미도 축항 안 있어요. 배 들어오는 데. 거기를 우리 친정엄마가 같이 댕기자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빨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빨래해서 다 대려서 주고 우리는 품값만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면 그놈들이 빵이고 고기고 뭐고 고맙다고 [주고], 저희들 빨래해서 풀에다 대리면 아주 빤짝빤짝하게 대려서 주면 고맙다고 그런다고. 그놈들이 빵이고 뭐 쪼꼬레또고 이런 거 주는 거 가지고 나오다가 먹지 않은 건 팔고 오고 먹은 건 갖다가 아이들 주고 이러커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타령하듯이 아주 길게 한숨을 쉬신다) 살다 보니까 한 삼년을 또 살더라고요.

자식들 잔뜩 놔놓고 죽었으니까 영감만 불쌍하지 뭐

그럼 할아버지는 국민병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나갔다가 3년 만에 들어온 거야. 3년 만에 들어왔는데 다 죽었다고 그랬지 살았다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디로 나가셨더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여기서 끝으로 갔더랬데요. 끝으로, 부산으로. 그래갖고 우리 오빠허고 우리 동상허고 우리 영감허고 셋이서 갔는데 우리 오빠는 아주 좋은 데로다가 떨어지고 우리 동상도 좋은 데로 떨어졌는데 우리 영감만 아주 나쁜 데로 떨어져설랑 고상을 했대잖아요. 그러다가 오다가 만나가지고 고상을 면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왔는데 난리들이지 뭐. 다 죽었다 그러지 살았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 외삼촌

들도 그렇고 외숙모들도 그렇고 야 이제 됐다야 그러시는 거야.

시외삼촌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믄요. 이 집엔 일가가 없어. 이 시어머니 쪽으로만 외삼촌들이 있지. 윤서방네는 일가가 없더라고요. 다만 형제밖에 없어. 지금 작은집허고 우리하고 두 집이밖에 없다고. 일가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구.

다 시어머니의 형제분들이네요.

그럼요. [시어머니는] 아들 둘에 딸 둘 낳았는데 개성으로다 시집을 보냈는데 개성이 이러케 돼서 못 댕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아들만 둘 오로지 바라고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딸들은 구경도 못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얼굴도 못 봤지 뭐.



막내아들과 큰손녀와 함께 집 근처 골목에서

시아버님도 못 보셨겠네요?

시아버지도 다 못 봤죠. 시어머니만 보고 시아버지도 못 보고, 그냥 그랬잖아. 우리 며느리들도 시아버지 하나 본 사람이 없어, 일찍 죽었으니까. 남편 죽고 다 여의었으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은 있는데 사진보담도 실적(실물)을 봐야 되는데 모른다고. 우리 할아버이(남편)는 키가 쪼끄마한 사람이 아주 야무지고 똑

똑허게 생겼어. 아주 여기저기서 정말 뭐 허먼 불러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었으니까는 며느리들도 하나 보지도 못허고 죽었다고. 가마이 보면 너무 불쌍허더라고. 새끼들만 잔뜩 놔놓고. 내가 고상했지 뭐.

그러게요. 자제분들이 일곱이나 되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고 다 품안에 기르셔가지고 각자 짝지어서 여의셨잖아요.

밥 먹고 지들 그냥 살만 허니까.

자제분들 사는 모양은 다 어때요?

다 각각이지 뭐. 각각인데도 그냥 이런 명일 때 겉은 날은 마음이 다 한 마음인지 어쩐지 그냥 그렇고 다 각각이야. 근데 욕심이 지일(제일) 많은 놈은 둘밖에 없어. 둘은 아주 욕심이 많어. 우리 싯째아들허고 닛째아들허고는 욕심이 많어. 아주 많어 걔네들은. 샘도 많고 욕심도 많더라고. 자식들 많이 길러보니깐 그렇더라고.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이 많이 가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뭐 다 그래요. 다 그냥그냥 사니까 다 그렇더라고. 둘째아들이 그게 좀 저기해서 그러지. 우리는 며느릴 너무 잘 얻은 거야 둘째 며느리. 그런데 돈을, 장사허라고 우리 딸이 돈 일억을 대줬는데 그 놈이 장사도 안 허고 떼먹고 도망갔잖아요.

누가요?

남이. 우리 딸이, 사위가 돈을 일억을 대준 거야 장사허라고. 그랬는데 같이 허는 놈이 그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가주고 그놈 잡으러 간다고 뭐 러시안가 어디로 가가지고 오지도 못허잖아.

그래서 러시아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니 그 아들 말고. 걔는 아주 갈라고 헌 거고.

오오. 그럼 아드님 두 분이 러시아에 나가 있네요?

예. 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걸리고. 그거는 속도 안 썩이고 어려서부텀도 내 말이래면 복종을 다 허고 그랬는데. 그러니 색시가 지금 그러는 거야.

둘째 며느님은 여기 있어요?

요기 있어요. 용남시장 있는데 거기 살아. 그래, 그러는 거야. 지가 벌어먹으면석도 내가 시집와가지고 신랑한테 이년 소리 한마디라도 듣고 살았으면 정말이지 기다리지도 않을 텐데 위해주는 것만 허고 살아와서 그거이 보고 싶고 가심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나오래도 못 나오는 거야. 그놈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접때는 가끔씩 전화가 오더니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몰르갔어. 차차 나아지갔지. 근데 정비공장에 기술자예요. 차가 빵꾸나먼은 왜 우리네 옷을 깁잖아요. 인천에서는 그 깁는 기술이 일등이야 아주. 그 사람만큼, 우리 아들만큼 길(기울) 줄 아는 사람이 없다구. 그래서 뽑혀 댕기면서 돈 벌었는데 어떤 놈을 잘못 만나서 고상을 하고 저렇게 가가지고는 오지를 못허고 있다구요.

사기를 당하셨구나.

예. 사기를 당해서 4년째 가서 있는데 지금 그거이 속상허지 다른 거는 뭐 하나도 저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 색시가 일주일에 여기 한 번도 오고 이 주일에 한 번도 오고 그러면은 얘 어떡허냐 그러면은 어머니 걱정허지 마세요. 여기서 아이들허고 그냥저냥 먹고사니까는 걱정허지 말라고. 원체 깨끗허고 반찬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둘째 며느님이요?

그럼요. 여기저기서 부르니까는 파출부식으루다 댕기는데 너무 잘허니까는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얻어오는 것도 많고 아이들 주라고 가져오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기 허고(일하고). 아이가 지금 고등핵교 이학년이고 국민핵교 사학년이고 그래요. 둘 있는데. 근데 인제 끄떡없이 살잖아. 그래서 내가, 나도 돈이 있으면 좀[도와주고 싶은데]. 돈도 엄청 뜯어갔죠. 개가 가져간 거이 아니라 딴 놈[다른 자식들]이 뭐 헌다허면 오백이고 천만 원이고 주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또 우리 막내 공장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기계 한 개가 집 하나 사게 된다고요. 그렇게 비싼 놈의 기계야. 일본기곈데 그런 거 사놓고 허니까 어떡허냐고. 그러니까 돈 있던 거 그런 데로 저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인제는 돈도 없어, 나도.

어머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나이 드시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열아홉 살 때가 있었나 하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열아홉 살 때 스무 살 때 그때 생각만 나는 거야. 우리 언니서껀 우리 친정엄마서껀 열아홉 살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 생각이 나고, 엊저녁에도 괜히 드러눴는데 아유,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죽을 때가 돼왔을까. 시상에 열아홉 살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으까 그러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골목에서 놀던 동무들도 있을 테고, 또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핵교도, 우리는 핵교 들어가자마자 일본놈들 때문에 못 댕겼잖아. 핵교도 못 댕겼어요. 일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일 년 남아 뱄나봐(배웠나봐). 그러고는 못 댕겼다니까.

학교가 문을 닫았나요?

문을 닫고 전부들 피난가고 이러니까는 문이 닫히고. 또 복구하기는 우리네들도 어렵고 허니까 못했죠. 지금도 겨우 내 이름이나 알고 그거나 알지 저기 허지는 못헌다구. 그냥 내 이름만 알고 사는 거야. 지금이락도 공부를 허면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허허허. 자꾸 잊어버려 아이구.

자식 두고 도망은 못 가고 그냥저냥 살았죠 뭐

만수동 신접살림 사시던 그 동네에서 남편께서 국민병으로 나가셨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 안산으로 피난도 가셨더랬고, 거기서 만석동 부두로 쌀을 주우러 가시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랬더랬죠. 그냥 인제 나무를 주수러 가면 부대기 하나 들고 행주치마를 크게 맨들어 가주구 빗자루 하나 들고 가서 솔가지 장사꾼들이 욍겨놓으면 떨어진 거 고거를 빗자루로다 쓸어서 담아서 이러케 자루에다 하나 해놓고 행주치마에다 하나 해놓고 갖고 와서 그거 때서 밥해먹고. 밥도 뭐 요만한 냄비에다가, 나무가 많이 드니깐 큰 솥에다 못허고 돌멩이 요렇게 걸고 해서 쪼끔씩 때서 밥만 익혀서 먹어. 된장 고추장 그런 거는 그냥 얻어다 먹고. 언니네 가서 얻어오고 친정에 가서 얻어오고 우리 올케네 가서 얻어오고 이렇게 해서,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는 먹었어요. 돈을 안 버니까. 그리고 내가 뜨개질해 가지고 송림동 양키시장 거기다 갖다 팔고 실 그런 거 또 싸게 사가지구 거(거기) 가서 팔고, 보리쌀도 한 되 사고 수수쌀도 한 되 사고 쌀은 생전 살 줄도 몰

라. 비싸니까. 갖다가 절구에 붓고설랑은 물 쪼금 붓고 덱기는 거야. 막 찧는 거야. 그러면 겉껍질이 벗어져요. 그러면은 그걸루다가 밥을 허면 부드러운 거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지 뭐. 그러케 허는 건가부다 허고 사니깐 맨날 시어머니는 아이 못 낳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해. 그러니 [신랑이] 국민병 나갔다 겨울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우리 [시]외삼촌이 그러는 거야. 누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잖느냐고. 무엇 때문에 같이 자는 걸 못 자게 하구설랑은 아이 생기길 바라는 거냐고 외삼촌들헌테 야단을 맞고 그래도 안 그러셔. 지사를 지내두요. 당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외삼촌네서 제사 지내면 자고 가라고 그래도 그 밤중에 그냥 오시는 거야.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

시어머님이요?

예. 괜히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도 아들이 일 갔다 오만은 가만히 기시다가도 괜히 우스운 걸 다 일러바친다고. 그러면 [남편이] 열나가지고 여편네만 닦달허고 그랬다고. 오죽허면 우리 닛째 낳구설랑은 걔가 돌이 돼왔는데 어떻게 괜히 때를 부리고 일 갔다 들어와서 심통을 부리고 그래갖꼬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기냥 이거 업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갔다 그러고 다른 아이들은 내비리고 고것만 업고 나오니까 하하하 세상에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시상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헐 수 없이 뒷문으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구설랑 집구석 밑에 가서 섰는데 이 새끼가 자꾸 낑낑대잖아. 그래서 젖꼭지를 물리고 암만 있어도 그냥 낑낑대는 거야. 그 인제 잠들면 들어올라고. 술만 먹으면 잔소리를 허니까는. 자먼은 들어와야겄다 그러구설랑 밤 열두 시가 돼도 그냥 있다가 잠든 연후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내가 먼점 일어나서 밥허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술만 먹으면 할매가 뭐라 그런 걸



지금도 집안일을 하신다는 조경희씨

자기가 맘대로 못허니까는 그렇게 심술을 부리고 그 지랄을 허더래니까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얘네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며느리 편들지 아들 편 절대 안 들어요. 아주 거기에 머리가 떡헌 사람이 돼서 안 해. 아이, 그래도 그렇게 말대꾸 안 허고 잘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새끼들허고 사는 거지 그냥 말대꾸나 허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기나 허고 그랬어 봐요. 이 아이들이 뭐이 됐갔느냐고. 난 그 생각이 들어가. 지금도 그냥 날 보고 가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랬을 직(적)에 아이 넷 있는데 그랬을 직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우리 사위가 그러는 거야. 노인네가 그만큼이나 극성맞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살아오셨지 그렇잖았으면 그냥 내비리고 시집을 갔으먼 얘네들 다 고아래는 거야. 그 전엔 고아원이 많았더랬어. 요기, 요 근처에도 있고 그래서(그랬어). 웬만허면 고아원이 여기 많았다고. 그러다가 요런 데 없어지고 저 송도로 갔지만 해도 그 전에 여기 저 공설운동장 있는데 거기도 있더랬고. 거기는 양노원도 있고 그랬더랬어. 고아원 말만 나오면 아주 펄펄 뛰지 뭐.

이게 다 어머님 고생해 오신 결과물이죠 뭐.

지금도 우리 딸은 엄마, 엄마, 하루만 안 봐도 엄마, 엄마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야, 죽을 때 한 삼일만 앓고 죽었으면 좋갔다 그랬더니 아유 엄마 그런 소리 허지 마세요, 꼭 그런다고. 이층에 사는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도 내려와서 "엄마, 나 가" 그러기에 "그래, 가" 저거 나가 없으만은 그런 소리도 안 헐 텐데. 나 없으면 여길 왜 들어오갔어 안 들어오지. 그냥 바로 가지. 그런다고 글쎄.

요기 와서 저기 집 앞에 사거리 길난데 하꼬방 집에서 오래 사셨죠? 막내아드님은 이 집에서 낳으셨어요?

아니 저쪽 집에서 낳았지. 저쪽 집 하꼬방 집에서 애들 다 낳고 길러서, 길이 난다고 헐린 거야. 요 밑에 길이 없던 곳에 쪼끄만 사거리 길이 난 거야. 그 전에 있던 집들이 다 없어지고. 하꼬방 집이 헐려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한 이십 년은 돼. 이 집을 둘째딸이 사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일루 이사를 왔고, 지금은 딸도 이층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드님이 다섯에 딸 둘인데, 막내아드님이 지금 어머님 모시고 사시잖아요? 큰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떠세요?

왜냐면은 아들들을 다 장개 보내서 다 시간(세간)을 냈어요. 막내가 지 형들하고 많이 층하가 지니까는 요걸 내가 데리고 살았지. 손주딸[7]허고. 세 식구 요기서 사는데 그게 인제 나이 먹었으니까는 지 누이들이 그러는 거야. 장개 보내서 시간(세간) 내라고. 근데 얘네들이 와서 사는데 시간(세간) 내라니까 안 난데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들을 모시고 사는 거야. 시간(세간) 내래니깐 안 난데요. 그러고 지 둘이 나가서 벌더라고. 그때는 지들이 벌면 버나부다 그러고,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

7) 이혼한 큰아들 딸

갖꼬 생활허고 그렇게 살아왔죠 뭐.

꼭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저는(장남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꺼정은 할 만허고 또 여기는 아이들이 쪼끄맣고, 여기서(여기가) 산 데고 그러니까는, 딸들도 그러는 거야. 엄마 딴 데 낯선데 가서 살먼 아무래도 저거허니까는 그냥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는 거지.

어머님은 장사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제가 얘기를 쭈욱 들어보니깐 장사를 안 해보신 거 없이 많이 해오셨는데. 점포는 따로 한 번도 안 가지셨어요?

아니. 요기다가, 하꼬방 집 살 때 쪼그맣게 하나 했더랬는데 못 쓰갔더래니깐. 아이들이 많으니깐. 식구들이 많으니까는 자꾸 훔쳐 먹으니까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훔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어 가서 큰 손주딸만 주는 거야. 여기다가 주머니를 이만허게 달아가지고 과자 사탕 이런 거를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구설랑 딸서껀 핵교 댕기고 할 때, 애들이 쪼끄맸을 적에 할매가 그냥 낮에 물건 사러 간다고 어머님 가게 보세요 그러고 나먼 갔다 오면 뭐가 허우룩헌데 돈은 하나도 없는 거야. 훔쳐놨다가 아이들 오면 고거 [첫째 둘째] 둘만 손준 줄 알고 키우셨어요. 그러니 양말을 다 벗어서 놔도 걔네들 것만, 두 켤레만 딱 골라서 빨고 이래셨다고. 그러니깐 작은딸은 그렇게 뵈기 싫어했다고. 날보고 다 얘기허니까는 저 년은 아주 뭐든지 지 에미한테 일른다고 그렇게 미워라 허시는 거야. 그래서 얘(둘째딸)도 할머닐 잘 안 딸코(따르고) 큰딸허고 큰아들허고만 할머니를 따르는 거야. 어디 가서 누가 뭐 줘도 가져와서 주머니에다가 몰래 갖고 와서 방에서 몰래 주고 그랬다구요. 이상허게 얘네들이 밥을 먹으래면 안 먹는 거야. 쬐끔만 먹고. 이상허다, 이상허다 그러구설랑 하

루는 봤더니 그러케 쪼그만 방에서 거기다 갖다놓구설랑 멕이는 거야. 그런 줄도 몰르고 나는 밥 안 먹는다고 맨날 걱정했더니 아니더라고.

할머니들은 보통 첫 손자들을 그렇게 챙기시더라구요.

응, 그렇게 챙기시더라구. 그런데 난 첫 손주고 둘째고 싯째고 그러기가 싫어. 다 똑같이 이러카지. 근데 마음은 큰아이한테로 더 가긴 가더라구요 뭐든지. 먹는 거고 뭐고 걔는 조금 더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

장사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장사는 뭐 한 십 몇 년을 했나봐. 십이 년인가, 십삼 년인가 했나봐. 여름에는 신천리 가서 포도 받아다가 팔고 복숭아 그런 거 받아다 팔고 그러커고 다 팔고 들어오면 그거갖꼬 한 이삼일은 먹갔더라고. 비 오는 날 장사 못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쌀을 팔아 놓는 거야. 그래도 그냥 밥만 있으면 소금에락도 먹잖아요. 아이들허고 먹으니까는 깡에 가서 우거지도 주서다가 삶어서 된장에다 주물럭거려서 지져먹고 그렇잖으면 새우젓에다가 지져도 먹고 이러커고 살았죠 뭐. 냄비에다 하나 지져놓으면 나는 먹을 게 없어요. 낭중에. 다 먹었어. 국물이고 뭐고 없이. 그때는 아이들이 여섯이, 다 먹으면 없어요. 국물도 없어.

시어머님은 언제까지 모셨어요?

시어머님은 팔십하나 되도룩 사셨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6년 있다가 남편이 죽었다고. 할아버이가 죽고 나서 그때는 아이들허고 그냥저냥 살면서 걔네들이 쪼금 크니까 돈 벌면 쪼끔씩 애껴서 쓰고 걔네들 시집보낼 때 해서 보내고 아들 장개갈 때 패물 같은 것도 조금식이락도 해주고.

---

8) 비닐봉지-표현의 오류

할머니가 팔십하나까지 사셨으면 장수하셨네요?

네. 장수허셨어요. 그런데 육개월꺼정은 소대변을 받아냈으니까. 낭중에는 망령이 오시는지 대변을 누시고는 종이에다가 다 꾸려놓는 거야. 소복이 꾸려놓으시먼 아이들이 빵인줄 알고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핵교 갔다 오먼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러고 똥이먼은 저들이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착해서 냄새난대는 소리도 안 허고 그냥 오줌을 싸셔도 그렇고. 너무 오줌똥을 싸니까는 요에다가 고무종이[8]를 뒤집어씌워 놓고 그 위에다 앉혀놓으먼 걸레만 젖으니까는 이불엔 배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빨고 옷이란 옷은 다 기저귀를 맨들어가지구 채(채워) 드리고 그랬더랬어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뭐 아는 게 있시야지 도움이 되든지 허는데 그냥.

아니에요. 말씀 재밌게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구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산문화총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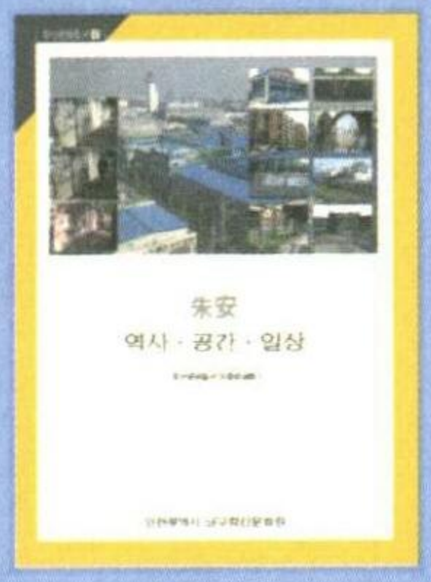
구술자서전 - 남구 사람들의 삶과 일

초판 1쇄 인쇄일 / 2006년 12월 11일
초판 1쇄 발행일 / 2006년 12월 15일

발행인 / 구동운
기　획 / 김창수
편　집 / 조명희
발행처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58(용현동 81-8)
tel. 032)866-3993, 880-4763
www.haksanculture.or.kr
제작공급 / 다인아트 032+431+0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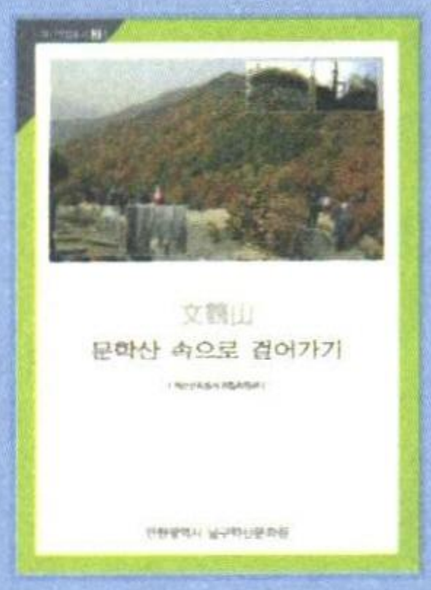
값 / 10,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1권 朱安 역사 · 공간 · 일상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투사하고 이로부터 재발견된 미래도시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 공간, 일상이라는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분야의 젊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 어린 탐사를 진행하였다. 도시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2권 文鶴山 속으로 걸어가기

인천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문학산을 다각적으로 진단했다. 언어학적으로 풀어본 문학산 일대 땅이름, 인천의 지형환경 특성과 문학산의 도시지리적 기능,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운동의 의의 등 유구한 역사에서부터 문학산과 남구, 향후 문학산까지 조망하였다.

* 학산문화총서는 계속 발행됩니다.

이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인 데가 있습니다. 파란 많은 한국의 근대사를 온몸으로 감당해왔으며, 가족들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꿋꿋하게 삶을 영위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남구의 생생한 역사도 되새겨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주민 구성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온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이 들려주는 삶의 역정이야말로 어떤 역사 서술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남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술증언으로 남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향토*연구의 한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값 10,000원